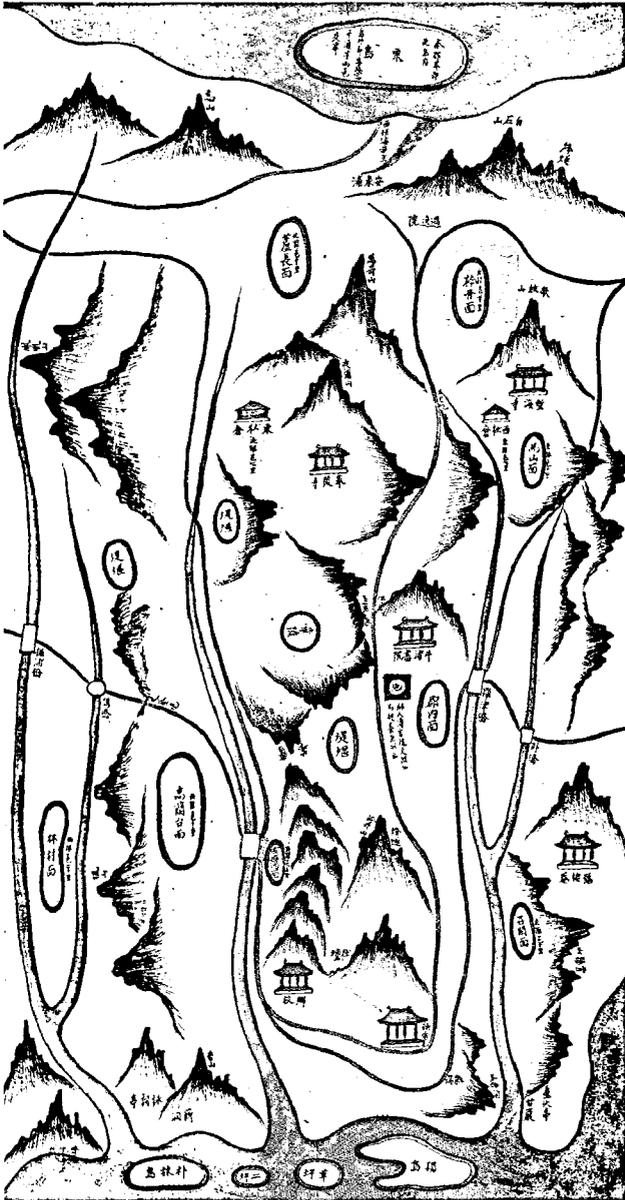


셋째 마당

## 김포를 바라보다!



김포군 읍지(1872)

21. 언제부터 '김포' 라고 불렀을까?  
-김포의 지명변천사 -
22. 19년만에 축성된 문수산성
23. 김포의 봉수대(烽火臺)를 복원하자!
24. 김포는 섬이 되었다
25. 조선시대 김포의 역(驛)과 옛길은?
26. 강과 바다의 문화, 철책선에 갇히다
27. 김포를 지켜낸 8개의 성곽
28. '갯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김포에 없다
29. 김포는 어느 성씨(姓氏)들이 살았을까

김포를 바라보다!

## 21

# 언제부터 '김포'라고 불렀을까?

## - 김포의 지명변천사 -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김포지역은 옛 군·현이 폐지되기도 하고, 다른 군·현에 흡수되기도 하고, 다른 주현에 속현이 되어 군·현의 형세가 축소되는가 하면 승격되어 현이 ‘군(郡)’ 또는 ‘부(府)’가 되기도 했다.<sup>1)</sup> 이렇게 군·현의 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읍호승강(邑號陞降)이라고 한다.

김포가 시(市)가 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읍호승강의 역사를 살펴보자.

### 김포에 대한 첫 기록 ‘삼국사기’

고려시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1145, 인종23) <지리지(地理志)> 편에 ‘김포’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한다.

그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계군(長堤郡)<sup>2)</sup>은 원래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sup>3)</sup>이었던 것을 경덕왕(景德

---

1) 조선시대 군현제도의 특징은 백성에 대한 향리나 토호의 개인적 지배를 방지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고, 군·현 밑에 면(面)·리(里)·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두었다. 도(道)에는 관찰사(觀察使), 군·현에는 군수(郡守)와 현령(縣令: 縣監)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했다.

2) 장계군(長堤郡)은 통일신라시대 부천지역에 설치한 지방 행정구역이다.

3) 주부토군(主夫吐郡)은 고대 부평지역에 설치된 고구려의 지방행정구역이다. 문헌에서 전하는 부천 지역 최초의 지명인 주부토는 고구려식 지명이다.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시기는 475년(장수왕 63)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일대를 차지했던 때

주)<sup>4)</sup>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수주(樹州)’<sup>5)</sup> 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넷이다. 수성현(成城縣)<sup>6)</sup>은 원래 고구려의 ‘수이홀(首尔忽)’<sup>7)</sup>로서 경덕왕이 개칭했다. 지금의 ‘수안현(守安縣)’<sup>8)</sup>이다. 김포현(金浦縣)<sup>9)</sup>은 원래 고구려의 ‘검포현(黔浦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했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동성현(童城縣)<sup>10)</sup>은 원래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으로 경덕왕이 개칭했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분진현(分津縣)<sup>11)</sup>은 원래 고구려의 ‘평유압현(平淮押縣)’<sup>12)</sup>이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했다. 지금의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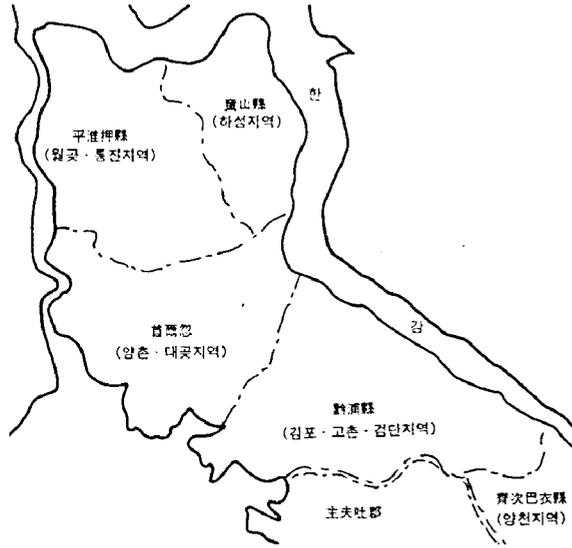
---

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 지역은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토군이라는 명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757년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따라 한자식 명칭인 장제군(長堤郡)으로 변경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된 듯하다. 장제군 이후 부평지역의 명칭은 고려 태조 때 수주(樹州)로 바뀌었다가, 다시 안남도호부·계양도호부·길주목·부평부를 거쳐 부평군·부천군으로 바뀌었다.

- 4) 경덕왕(景德王)은 신라 제35대 왕(재위 742~765)으로, 왕권강화를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경덕왕 16년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각 고을의 명칭을 한자어로 바꾸는 인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현의 이름 중에서 땅이름이 한 글자인 것은 늘이고, 여러 글자인 것은 줄여서 모두 두 음절의 땅이름이 되게 획일적인 개정을 했다.
- 5) 수주(樹州)는 고려 전기 경기도 부천의 행정지명이다. 계양산 북쪽 수소리(樹蘇里)에 청사가 있었는데, 이곳이 밀림 속처럼 울창하다 하여 수주(樹州)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수주는 고구려 때 주부토(主夫吐), 통일신라시대 장제(長堤)에 이어 세 번째로 쓰인 부평의 행정 지명이다.
- 6) 수성현(成城縣)은 본래 고구려 수이홀인데, 신라 경덕왕이 ‘수성’으로 고쳐서 장제(부평)군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수안’으로 고쳐서 그대로 존속시켰고, 뒤에 수주(부평)에 편입시켰다. 명종 2년(1172) 임진에 감무를 처음 두었고, 공양왕 3년(1391)에 ‘통진현’에 편입시켰다. 1895년에는 인천부 관할의 통진군으로 했다가, 1914년 통진·양천 두 군을 김포군에 편입시켰다.
- 7) 수이홀(首尔忽)은 ‘수리홀’을 음차 방법으로 표기한 지명으로 ‘머릿성(高城)’ 또는 ‘존장(尊長)의 성(城)’이란 뜻이다.
- 8) 수안현(守安縣)은 “존장의 고을”의 뜻을 가진다.
- 9) 김포현(金浦縣)은 본래 고구려 검포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김포’로 고쳐서 장제(부평)군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그대로 소속되었고, 뒤에는 수주(인천)에 속했다가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처음 두었다. 신종 원년(1198)에 어태를 현지에 뒀다고 하여 승격하여 현령관이 되었고, 조선 태조 때에는 부평에 속했다가 곧 따로 분리되었고, 태종 14년(1414)에 양천을 없애고 김포현에 합쳐서 금양현이라 했다가 얼마 뒤에 양천을 금천(과천)에 합치고, 김포현을 부평에 속했다가, 동 16년에 다시 각각 현이 되어 영을 두었고, 인조 11년(1633)에 군으로 승격했다. 1895년에는 인천부 관할의 김포군이 되었다가, 1914년 통진·양천 두 군을 김포군에 편입하고, 1979년 김포면을 읍으로 승격하고, 1998년 김포군을 김포시로 승격했다.
- 10) 동성현(童城縣)은 본래 고구려 동자홀(또는 동산현, 재차파의)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동성’으로 고쳐서 장제(부평)군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불렀고, 수주(인천)에 속했다가, 명종 때에 다시 회복했고, 공양왕 3년(1391)에 통진현에 편입시켰다. 1895년에는 인천부 관할의 통진군이 되었다가, 1914년 통진·양천 두 군이 김포군에 편입되었다.
- 11) 분진현(分津縣)은 본래 고구려 평회압(平淮押)(또는 평유압(平淮押), 북사성, 모사성, 벌사파의, 벌사파의)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분진’으로 고쳐서 장제(부평)군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가 ‘통진’으로 고쳐서 그대로 소속시켰다가, 현종 때에 수주(인천)에 소속시켰고, 공양왕이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부르다가, 태종 13년(1413)에 현감이 되었고, 숙종 20년(1694)에 부로 승격했다. 1895년에 고쳐서 통진군으로 했다가, 1914년에 통진·양천 두 군이 김포군에 편입되었다.
- 12) 평회압현(平淮押縣), 분진(分津), 통진(通津)은 모두 ‘큰 강 고을’의 뜻이다.

진현(通津縣) 이다”라고 되어 있다.<sup>13)</sup>

이처럼 ‘삼국사기’에는 김포 일대의 옛 고을 이름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고, 시기별로 바뀐 땅 이름이 나오며 순서는 경덕왕 때, 고구려 때, 고려 때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김포지역의 지명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점령기의 옛 김포지역 현의 위치(김포군 지명유래집,1995)

## 존장 또는 부족장이 다스리는 바닷가 고을, 김포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년)에 최초로 ‘검포(黔浦)’라는 지명으로 역사 기록에 나타났으며,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에 의해 주부토군에서 이름이 바뀐 장제군은 수주에 속해 있었고, 수성현·김포현·동성현·분진현 등 모두 4개의 속현을 관할했다. 이들 속현도 모두 토착지명에서 한자어로 바꾼 것이다.

우선 김포(黔浦)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검포의 한자 ‘검(黔)’이 ‘검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에는 읽히는 음(音)이 ‘검’으로 되고, 신의 이름(神名)을 나타낼 때는 ‘금’이 되는데, ‘검’과 통하는 글자로 ‘신(神)’ 또는 ‘존장(尊長)’, ‘왕(王)’의 의미를 지닌다. 포(浦)는 당연히 포구를 뜻한다. 따라서 검포현(黔浦縣)은 “존장 또는 부족장(제사장)이 다스리는 바닷가 고을”의 의미가 되며, 따라서 고을 이름도 검포가 아닌 ‘검포’라야 옳다. ‘검’의 음운변천 결과는 ‘금’, ‘감’, ‘검’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4)</sup>

대체로 검포현은 지금의 김포1·2·3동, 고촌읍,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지역을 말한다. 또한 수이홀은 양촌읍, 대곶면 지역이며, 평회압현은 통진읍·월곶면

13) 이병운, 2004, 『한국행정지명변천사』, 100쪽.

14) 『김포군 지명유래집』(1995) 참조.

지역이고, 동자홀현은 하성면지역, 재차파의현(齊次巴衣縣) 지역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동면, 양서면) 지역을 말한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 형성기에 김포지역은 백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백제는 4세기 말부터 강대해진 고구려의 침공을 받기 시작하여 광개토왕에게 58성과 700촌을 빼앗겼으며, 고구려 장수왕을 63년(475년) 백제의 개로왕(455~475)을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러나 551~553년까지 백제가 김포지역을 고구려로부터 일시 수복했으나 553년 신라의 침공으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소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촌(村)을 최소 행정단위로 하고, 소국을 군(郡), 몇 개의 군을 아울러 주(州)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주군제(州郡制)를 지방행정의 기초로 삼았다. 주는 광역행정의 구역을 의미하고, 군은 몇 개의 현(縣)을 통괄하는 중간 단계의 행정을 담당했다. 현은 촌을 구성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었고, 촌은 몇 개의 자연 마을과 그들의 경제활동 공간을 포함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742년(경덕왕 1년) 전 국토를 9주 5경으로 재편할 때 한산주(漢山州)에 속한 김포반도를 장제군(계양구의 옛 이름)의 통제를 받는 영현으로, 옛 김포현을 개칭한 김포현(김포·고촌·검단 지역), 평회암현이었던 분진현(통진·월곶 지역), 동자홀이었던 동성현(하성면 지역), 수이홀이었던 술성현(양촌읍·대곶면 지역)과 울진군(현 시흥)의 영현으로, 재차파의현(齊次巴衣縣)을 개명한 공암현(孔巖縣, 현 서울 강서구 지역)<sup>15)</sup>이 편제되었다.

## 고려시대의 김포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김포 일대는 고려의 영역 안에 들게 되면서 지명이 바뀌게 된다. 김포현은 그대로 계승했으나, 분진현은 통진현으로, 술성현은 수안현으로 바뀌었다.

15) 양천군(陽川郡)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을 중심으로 강서구와 양천구 등지에 걸쳐 있던 옛 행정구역으로 초기 명칭은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 혹은 공암현(孔巖縣)이다. 제차파의(齊次巴衣)는 이두식 표기고, 공암(孔巖縣)은 그 한자식 표기다. 초기에 제차파의이고 나중에 공암으로 고쳤다고는 해도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공암으로 썼지만 그대로 제차파의로 읽혔을지도 모른다. 암(巖)과 대응되는 '파의(巴衣)'는 그대로 현대어의 '바위'로 유래된 것이 확실하지만 앞의 제차(齊次)의미는 미상으로 확실치 않은데다 공(孔)자와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로서는 공암이라는 한자표기만 좇아 '구멍바위'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양동에 있는 허가바위라는 바위굴 때문이다.

성종 14년(995)에는 현재의 김포 일대가 경기·황해도를 묶은 ‘관내도(關內道)’<sup>16)</sup>에 속했고, 현종 9년(1018) 4도호부(都護府)<sup>17)</sup>, 8목,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縣)을 두었을 때 김포현은 수주(계양구의 고려 초기 이름)의 속현이 되었다.

명종 12년(1182)에 수주(樹州)에서 김포현을 분리 독립시켜 비로소 감무(監務)<sup>18)</sup>를 두었고, 고려 20대 왕인 신종(神宗) 원년(1198) 김포에 임금의 태인 어태(御胎)가 묻힌 뒤 현령(縣令)이 다스리는 고을로 격이 높아졌고,<sup>19)</sup> ‘고려사 지리지’<sup>20)</sup>에는 양광도(楊廣道)의 부평·강화·교동(喬桐)·김포·통진과 서해도(西海道)의 연안(延安)·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峽溪)를 우도(右道)에 소속시켜 각기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官)으로써 보좌하게 했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공양왕 2년(1390)부터 김포지역은 경기우도(京畿右道)에 소속되었다. 또한 김포지역이 경기우도에 소속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태조 3년(1394) 6월 23일자에서도 “도평의사사<sup>21)</sup>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로 고치자고 청하니…동성(童城), 통진, 수안(守安), 김포, 덕수(德水)를 우도에 소속시키고서…”라는 대목이 나온다.

16) 관내도(關內道): 고려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양주(楊州)·광주(廣州)·황주(黃州)·해주(海州) 등의 29주(州) 82현(縣)을 관할했다.

17) 도호부(都護府):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기관.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14) 관제를 개정할 때 처음 설치되었다. 안동(安東: 慶州)·안서(安西: 海州)·안남(安南: 全州)·안북(安北: 安州) 등 네 곳에 두었으나, 얼마 후 경주와 전주의 것을 없애고 안변(安邊: 登州)·안남(安南: 樹州)·안동(安東) 세 곳을 새로 두어 모두 다섯 곳이 되었다.

18) 감무(監務)는 고려시대에 지방의 군·현(郡縣)에 파견한 관직이다.

1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 경기 김포현 <건치연혁>

20) 고려사는 고려 34대 475년간의 역사·문화 등을 기전체(紀傳體)로 쓴 역사책으로 1449년(세종 31년)에 시작하여 1451년(문종 1년)에 완성했다. 1392년(조선 태조 1년)에 조준, 정도전, 정충 등에게 고려사 편찬을 명하여 편년체로 된 37권의 고려국사가 편찬되었으나 전하지 않고 1414년(태종 14년)에 하륜, 남재, 이숙번, 변계량에게 다시 짓게 하고, 1419년(세종 1년)에는 유관, 변계량에게 개수케 하여 1424년(세종 6년)에 수교고려사(銜校高麗史)를 펴냈다. 1438~1442년(세종 20~24)에 4차 개찬(改撰)을 신개, 권제가 하여 고려사전문을 편년체 역사서로 크게 보완되었다. 1449년(세종 31년) 정인지, 김충서, 이선재 등이 기전체로 개찬하여 1451년(문종1)에 완성하고 1454년(단종 2) 정인지의 주자본과 중종 때 목판본이 전해왔다.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등 139권으로 되어있다. 고려사 지는 천문(天文) 3권, 역(曆) 3권, 오행(五行) 3권, 지리(地理) 3권, 예(禮) 11권, 악(樂) 2권, 여복(輿服) 1권, 선거(選舉) 1권, 백관(百官) 2권, 식화(食貨) 3권, 병(兵) 3권, 형법 2권으로 되어 있다.

21)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는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이다. 전기에 설치되었던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이며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도병마사는 989년(성종 8) 동서북면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이들을 지휘하기 위한 판사(判事)를 둔 데서 유래하며, 현종 초를 전후한 시기에 설치되었다.

표1. 김포시 지역 군/현의 변천사(김포군 지명유래집.1995)

시대	삼한	삼국초	장수왕63 (475)	경덕왕16 (757)	삼국사기 (1145)	충선왕2 (1310)	공양왕3 (1391)	태종14 (1414)	태종16 (1416)	인조10 (1632)	숙종20 (1694)	고종32 (1895)	1914	
군·현 변천사	속로불사국 速盧不斯國		검포현 (黔浦縣)	김포현 (金浦縣)	김포현 (金浦縣)			금양현 (金陽縣)	김포현 (金浦縣)	김포군 (金浦郡)			김포군 (金浦郡)	
			재차파의현 (齊次巴衣縣)	공암현 (孔巖縣)	공암현 (孔巖縣)	양천현(陽川縣)			양천현(陽川縣)		양천군 (陽川郡)			
		별사파의 (別史波衣) 평유압 (平唯押)	평유압현 (平唯押縣)	분진현 (分津縣)	통진현(通津縣)			통진현(通津縣)		통진부 (通津府)		통진군 (通津郡)		
			수이홀 (首尔忽)	술성현 (戌城縣)	수안현(守安縣)									
		동산현 (幢山縣) 구사파의 (仇斯波衣)	동자홀 (童子忽)	동성현 (童城縣)	동성현(童城縣)									

표2. 김포시 지역 군/현의 변천사(김포군 지명유래집.1995)

시대	삼한	삼국초	장수왕63 (475)	경덕왕16 (757)	삼국사기(1145)	충선왕2 (1310)	공양왕3 (1391)	
군·현 변천사	속로불사국 速盧不斯國		검포현 (黔浦縣)	김포현 (金浦縣)	김포현(金浦縣)			
			재차파의현 (齊次巴衣縣)	공암현 (孔巖縣)	공암현 (孔巖縣)	양천현(陽川縣)		
		별사파의 (別史波衣) 평유압 (平唯押)	평유압현 (平唯押縣)	분진현 (分津縣)	통진현(通津縣)			통진현 (通津縣)
			수이홀 (首尔忽)	술성현 (戌城縣)	수안현(守安縣)			
		동산현 (幢山縣) 구사파의 (仇斯波衣)	동자홀 (童子忽)	동성현 (童城縣)	동성현(童城縣)			

표3. 김포시 지역 군/현의 변천사(김포군 지명유래집.1995)

시대	삼한	태종14 (1414)	태종16 (1416)	인조10 (1632)	숙종20 (1694)	고종32 (1895)	1914
군·현 변천사	속로불사국 速盧不斯國	금양현 (金陽縣)	김포현 (金浦縣)	김포군(金浦郡)			김포군 (金浦郡)
			양천현(陽川縣)				
		통진현(通津縣)				통진부 (通津府)	

<표1,2,3 출처-김포군지명유래집. 김포군. 1995>

한편 통진현은 공양왕 3년(1391) 인근의 동성, 수안 두 현을 병합하고, 조선 태조 3년(1394)에 비로소 통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 태조 3년(1394) 11월 12일자에 기술되어 있다.

## 세도가의 입김이 작용한 조선시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조선시대에 8도제가 확립되면서 각 도에는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 등으로 차등화된 군현이 구획되었고, 이들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됨으로써 행정적으로 전국에 대한 일원적인 지배체제를 갖추었다.

조선 건국(1392년) 후 태종 2년(1402)에 김포지역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sup>22)</sup> 소속, 태종 13년(1413)에는 양주부(楊洲府, 현 남양주시) 소속으로 되었다. 태종 14년(1414)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개편하여 김포 일대는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조선 왕조는 군현의 통폐합을 통해 지방관의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개편에는 해당 관찰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1414) 9월 8일자에 나타난다.

“경기도 관찰사가 도 내의 병합한 현읍(縣邑)의 일에 대한 안배에 처리[事宜]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는 이러했다. ‘...금양(金陽, 김포·양천)의 인물은 비록 비슷하더라도 경계와 땅의 형세를 볼 때, 양천을 김포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나, 양천은 경성(京城)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현읍을 옮겨 배속할 곳을 청컨대, 의정(議政)하여 주소서.’ 호조에서 과천을 금천에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시 이러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민감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합하는 방식에 따라 병합된 군현의 명칭이 ‘양금(陽金)’이나 ‘금양(金陽)’으로도 바뀔 수 있는 문제였다. 병합의 대상이 된 군현의 토착세력들은 병합되더라도 예부터 내려오던 자신들의 읍명을 그대로 존속시키려 했다. 이는 고려시대 이래로 본

22)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는 고려·조선시대 경기도를 분할하여 설치한 행정구역이다. 고려에서는 1391년(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요청에 따라 과전분급(科田分給) 때 경기를 좌·우도로 나누었다. 좌도에는 한양(漢陽)·남양(南陽)·교하(交河)·양천(陽川)·인주(仁州)·안산(安山)·금주(衿州)·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영평(永平)·이천(伊川)·고봉(高峯)·철원(鐵原)·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 등의 고을이 속했고, 우도에는 부평·강화·교동·김포·통진·연안·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挾溪) 등의 고을이 속했다.

관을 둘러싼 읍격(邑格), 읍호(邑號) 문제가 그 성씨 시조(始祖)의 본향(本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에 양천은 김포에 배속되었고, 군현명은 금양(金陽)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태종은 행정구역을 다시금 개편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 윤9월 24일자에는

“다시 과천현감을 설치했다. 호조(戶曹)에서 아뢰었다. ‘...금천을 양천에 합해 금양현(金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나온다.<sup>23)</sup>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김포현이 양천현을 흡수·통합해 금양현(金陽縣)으로 개편되었지만 2달 후인 10월에 다시 분리되어 양천현은 금천(金川), 김포현은 부평부에 편입되어 행정편제상 양천과 김포 두 지역은 속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행정구역의 명칭 결정이 반복된 것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 하는데 경성에서 수원까지의 길이 멀고 험하므로 과천을 독립시키는 편이 낫다는 호조의 논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시 과천에 농장을 지니고 있었던 세자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로(金漢老)가 태종에게 부탁하여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결국 과천은 독립되었고, 금천은 새로운 합병 대상을 찾아야 했다. 이때 인접한 양천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금천과 양천이 통합되어 금양현이 생겨났지만, 이 조치는 김포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양천과 김포가 합쳐졌던 금양현은 분리되면서, 김포는 다시 부평도호부에 편제된 것이다. 이렇게 명칭의 변경이 반복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통폐합 대상이 된 군현에 근거지를 둔 척신의 반발이 거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종 16년(1416) 7월 30일자는 “합병한 군현을 다시 나누어 예전대로 했다. 경기의 금천·양천·삭녕(朔寧)·안협(安峽)·마전(麻田)·연천·김포, 충청도의 온수(溫水)·신창(新昌)·전의(全義)·연기·황간(黃澗)·청산(靑山), 전라도의 부령(扶寧)·보안(保安)을 모두 복구했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2년 만에 다시 양천과 김포는 본래 현으로 환원되어 김포현과 양천현으

23) <김포시사 1.역사>, 279쪽 참조

로 편제되어 현령이 다스리게 되었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중에서 148권부터 155권에 걸쳐 각 도의 연혁, 고적, 물산, 지형 따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지리지인 『세종실록』(1454) <지리지>에는 김포의 지명 역사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김포현’ 편에는

“본래 고구려의 금포현(黔浦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장제군(현 부평)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현종 무오(戊午)에 이내 수주(계양구의 고려 초 명칭) 관내에 붙였다가, 명종 임진(壬辰)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신종 원년(1198)에 왕의 태(胎)를 현(縣)의 땅에 묻고 현령관(縣令官)으로 승격시켰다. 본조(조선시대) 태종 갑오(甲午) 8월에 양천현(陽川縣)을 혁파하여 본현(本縣)에 합치고, 금양현(金陽縣)이라 하다가 10월에 다시 양천을 금천(衿川, 현 시흥)에 합치고, 김포현은 혁파하여 부평부(富平府)에 붙였다가 병신(丙申) 7월에 다시 현령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통진현(通津縣)’ 편에 대해서는,

“본래 고구려의 평유압현(平唯押縣)인데, 신라가 분진(分津) 일명(一名) 북사성(北史城)으로 고쳤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수안현(守安縣)은 본래 고구려의 수이홀(首爾忽)인데, 신라가 수성현(戌城縣)으로 고쳤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동성현(童城縣)은 본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 일명(一名) 동산현(童山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위의 3현이 신라 때에는 모두 장제군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수주 관내에 붙였다가, 공양왕 3년 신미(辛未)에 비로소 통진감무(通津監務)를 두어 수안(守安)과 동성(童城)을 이에 붙였고, 본조 태종 계사(癸巳)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종 18년(1487)의 『동국여지승람』(1486)에는 경기좌도 수원진 소속에 7개현이 있고, 김포지역에는 김포현·통진현·양천현이 편제되어 있다.

## 조선시대 김포·통진의 읍격 변동

이후 김포현·양천현·통진현으로 구성된 김포지역의 행정체제는 큰 변동 없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유지되었다. 하지만 읍격의 변동은 있었다.

첫 번째 변동은 인조 10년(1632) 3월 11일 인조의 부모 묘인 흥경원(興慶園)을 장릉(章陵)으로 승격시키고, 동시에 읍호를 김포현에서 ‘김포군(金浦郡)’으로 승격시켰

다. 이때부터 현령시대를 마감하고 군수시대가 시작되었다. 당시 김포현 현령이던 오달천(吳達天)이 군수로 승진되어 김포군 최초의 군수가 되는 명예를 안았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실록 인조 10년 5월 8일자에 “김포를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성종 2년 고양현(高陽縣)에 경릉(敬陵)과 창릉(昌陵) 두 능이 있다는 이유로 군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김포도 이러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고 승격 이유를 밝히고 있다. 통진현은 이미 태종 13년(1413) 감무가 다스리던 고을에서 현감이 다스리는 고을로 승격되었다.<sup>24)</sup>

두 번째 변동은 숙종 20년(1694) 문수산성의 축성이 완료되어 통진현은 그 격을 도호부로 높였고 무관 이우항(李宇恒)이 초대 부사로 임명되었다.

실록 숙종 20년(1694) 9월 13일자는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통진은 이 산성(山城)의 주인이니, 마땅히 고을 명칭을 승격시켜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을 올려 부(府)로 만들고, 무신 중에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사람을 가려 보내는 것을 일정한 규례로 삼으라 ...’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조치는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해 통진에 문수산성을 쌓는 일이 끝나자 군사적으로 중요한 산성을 관할하는 통진의 읍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진도호부’는 ‘통진현’으로 다시 읍호가 강등되기도 했다.

숙종 36년(1710) 12월 11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통진부를 강등하여 통진현을 삼고, 홍주목(洪州牧)을 강등하여 홍양현(洪陽縣)을 삼았는데, 모두 삼성죄인(三省罪人)이 태어난 고을이기 때문이었다.”

강등당한 이유는 삼성죄인이 태어난 고을이라는 이유였다. ‘삼성죄인’이란 의정부·사헌부·의금부 등 삼성(三省)에서 추국을 당할 만한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강상죄인(綱常罪人)과 유사하다. ‘강상죄인’이란 조선 사회 질서의 기본인 삼강오륜을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은 죄인으로 부모를 죽인 경우, 남편을 죽이거나 관노가 관장을 죽이는 경우로 조선시대 가장 죄질이 나쁜 범

24) 태종실록 13년 10월 15일자.

죄로 대역죄와 맞먹었으며,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사형이었다. 또한 죄인의 아내와 자식들은 관의 노비가 되었으며, 죄인이 살던 집은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터에는 연못을 팠으며, 죄인이 살던 고을은 행정 명칭이 강등된다. 그리고 강상죄가 일어난 곳의 수령은 백성을 교화시키지 못한 이유로 파면된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는 강상죄에 대해 유교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또한 실록은 통진을 강화도에 귀속시킨 기록도 기술하고 있다. 숙종 38년(1712) 11월 5일자는 “...강화유수(江華留守) 조태로(趙泰老)가 아뢰기를, ‘통진은 강도(江都)와 실로이와 입술의 관계인데, 문수산성이 통진으로 가는 요충지에 있어 그 위에 올라서면 강도의 형세가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니, 함께 지키면서 기세를 합친 다음에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용사(總戎使)<sup>25</sup>에 소속되었으니 강도에 대해서는 실로 서로 의지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군사 정세를 들어보니 모두들 강도에 소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니, 하문(下問)하여 처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이유(李濡) 또한 소속을 바꾸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하니 임금이 이속시키도록 명했다...’”

다시 말해 군사적인 이유를 들어 통진을 강화도에 소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정상으로는 통진현이지만 군사상으로는 강도(강화도)에 소속시킨 것이다.

세 번째 변동은 근대적 개혁인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한 1895년(고종32)의 일이다.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98호로 전국의 지방관할구역을 개정하면서 32개부로 나누고, 통진부는 ‘통진군’으로 개편되면서 ‘김포군’, ‘양천군’과 함께 인천부에 소속되었다.

실록 고종 32년(1896) 5월 26일자는

“...조령을 내리기를 ...칙령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을 재가하여 반포했다. 칙령 제98호 ‘지방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했다. ...‘지방제도(地方制度)’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漢城府)는 한성군(漢城郡), 양주군,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 영평군(永平郡), 가평군, 연천군, 고양군, 파주군,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는 인천군(仁川郡), 김포군, 부평군(富平郡), 양천군, 시흥군, 안산군(安山郡), 과천군, 수원군, 남양군(南陽郡), 강화군, 교동군(喬桐郡), 통진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5) 총용사(總戎使)란 조선시대에 둔, 총용칭의 으뜸 벼슬. 종2품 무관 벼슬이다.

물론 읍격이 일원화되기는 했지만 모든 군이 같은 규모는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칙령 164호 ‘군수관등봉급에 관한 건’을 반포하여 각 군을 면과 결호 수의 다소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했다. 이 조치에 따라 통진군은 3등, 김포와 양천군은 5등의 군으로 결정되었다.

실록 고종 33년(1896) 8월 4일자는

“지방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 제36호 ‘지방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했다. 전국 23개 부(府)를 13개 도(道)로 개정했는데 수부(首府)의 위치는 경기도(京畿道)는 수원(水原),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했는데 군수(郡守)는 그대로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6년(고종 33년) 8월에 전년도 칙령 164호가 폐지되고 새로이 칙령 36호가 반포되면서 23부제가 다시 13도제로 개편되었다. 칙령 36호에는 종래 5등급으로 나누었던 군의 규모를 4등급으로 바꾸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통진군은 3등 군수(12개 면 관할)<sup>26)</sup>, 김포군과 양천군은 4등 군수가 다스리는 30개 군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아울러 관할도 인천부에서 경기도로 옮겨졌다.

##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개편

1914년 일제에 의해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행해지면서 김포지역도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되었다. 1913년 말부터 시작된 이 개편은 행정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통폐합 작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로 도의 위치와 관할 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으로 공포했다.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부령에 의해 전국을 종전의 317군 4,351면을 13도 12부 218군 2,517면으로 조정했다.<sup>27)</sup> 이때 김포, 통진, 양천의 3개 군을 김포군으로 통합시켰다. 이로써 김포군은 3개 군, 24개 면이던 것이 9개 면으로 편제되었다.<sup>28)</sup>

26) 지방구역 정리건(1906.9.24 반포 효령 제49호)에 따르면 김포 8면(군내면, 석한면, 고현내면, 김단면, 마산면, 노장면; 고란태면, 임촌면), 통진 12면(군내면, 보곶면, 월여곶면, 소이포면, 질전면, 봉성면, 하은면, 양릉면, 상곶면, 대파면, 고이곶면, 반이촌면)이다.

27) 1910년 편제는 13도 12부 317군이다.

28)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1913.12.29 공포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명칭: 김포군, 위치: 김포, 관할구역: 김포군 일원, 통진군 일원, 양천군 일원’

## 1911년 김포군·통진군 면별 관할 지명

김포군 면별	지 명
군내면	동변리, 서변리, 북변리, 걸포리, 감정리, 웅자정리, 흥도평리
석한면	천현리, 운양리, 장기리, 운양하리, 고창리, 청수동, 발산리
마산면	대곡리, 두곡리, 불노리, 목지리, 마산리
검단면	여래리, 봉화촌, 좌동, 금곡리, 신리, 반월촌, 안동포, 소왕길리, 대왕길리, 오류동, 마전리, 속사골리, 대촌
노장면	고산하리, 죽저리, 위정리, 발산리, 고산리, 당하리
고현내면	사우리, 신리, 풍무동, 당곡리, 현동
고란태면	행산리, 태리, 풍곡리, 이화촌, 신평리, 한기리, 준산리, 신동, 신촌
임촌면	화기리, 신평리, 평리, 전호리

## 1911년 김포군·통진군 면별 관할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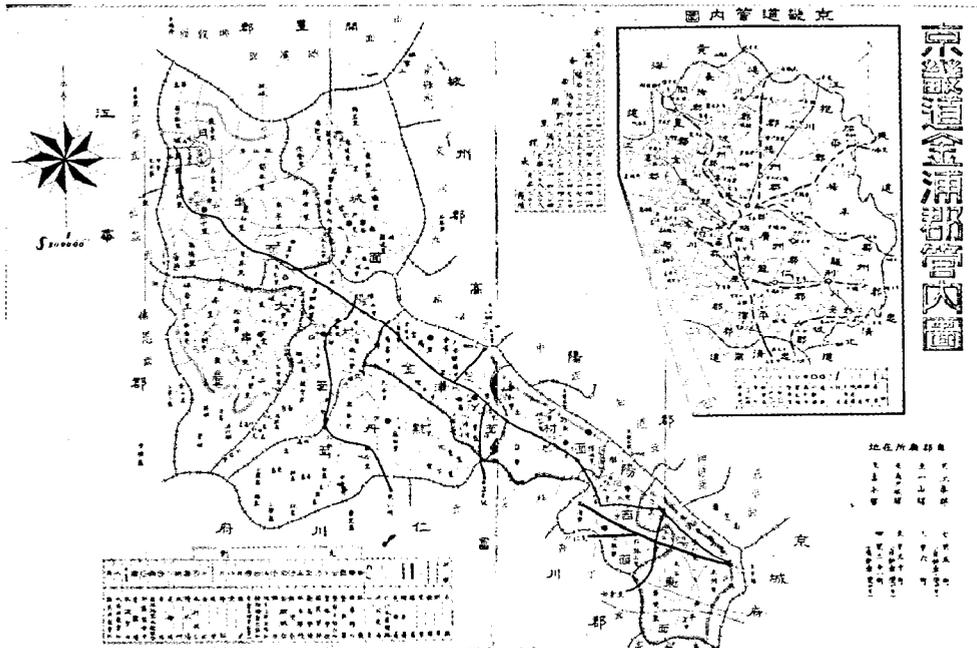
통진군 면별	지 명
군내면	군하리, 포내리, 고양포리, 능동, 웅정리, 갈산리, 점촌, 초막동, 고읍리
포구곶면	산성리, 동막리, 포구곶(보십곶지), 강령포, 흥흥리(이기울)
월여곶면	서명동(서명골), 검암리(검바위), 남정동(남정골), 고척산리, 개야리, 조산현, 위곡리, 울내리, 조강리
소이포면	가좌동, 양촌리, 수곡리, 사야노리, 포창리, 후평리, 가작동, 서사암리, 동시암리, 마조리, 마근포, 불지리, 김포리(소야), 두월리, 마음도리
질전면	질전리, 원통리, 귀노리, 태동, 등산리, 동을산리
봉성면	사곡리, 석탄리, 마동리, 마서리, 전류리
하은면	하은동, 사초리, 봉성리, 수참리
양릉면	발산리(질곶), 모산리, 소마산리, 질곶리, 곡촌, 누리, 양릉리, 온산리, 고단리, 오라리, 석산리
질곶면	구래리, 질곶리, 유현동, 사유지리, 학현리, 고읍달리, 향모포리, 황포리, 대포리, 대능산리

## 1914년 김포군의 행정구역

면 이름	구 역
군내면	군내면 일원, 석한면 일원, 고현내면 일원
검단면	마산면 일원, 검단면 일원, 노장면 일원
고촌면	고란태면 일원, 임촌면 일원
월곶면	통진군 군내면 일원, 보구곶면 일원, 월곶면 일원
대곶면	고리곶면 일원, 대파면 일원, 반이촌면 가현리
양촌면	상곶면 일원, 양능면 일원, 반이촌면(가현리 제외) 일원
하성면	하성면 일원, 소이포면 일원
양동면	양천군 군내면 일원, 남산면 일원, 장군소면 일원
양서면	가곡면 일원, 삼정면 일원

출처: 『조선지리지자료』(1911)\*

\* 『조선지리지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도서번호 古2703)에 소장되어 있는 총 54책의 필사본으로 편찬자, 시기, 펴낸 곳 등이 미상이다. 1910년경 조선 지명을 정리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 지명의 유형, 한자 지명, 한글 지명, 소재 등리의 내용이 한자 혹은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다. 전체 54책은 도별로 분책되어 있으며, 도별로 분책된 것은 다시 각도에 소속된 군별로 몇 개 군씩 한 책으로 묶여 있다. 한 책으로 묶인 군은 다시 면별로 나뉘는데, 각 면 별로 조사항목이 명기되어 있다. 함경남·북도의 자료가 전하지 않고, 전라북도편도 1편만 남아 있는 낙질본이다.



김포군지도(1941년 일제시대)

1914년 1월 25일 총독부령으로 부제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이후 각 도마다 도령으로 하부행정 단위의 구역변경이 시작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면적인 면의 명칭 및 구역이 변경, 확정된 것은 3월 13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서였다. 통폐합된 김포군도 이 도령에 의해 면의 명칭 및 구역이 확정되었다.

변경된 김포군의 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김포군의 군내면과 석한면, 고현내면을 합해 ‘군내면’으로, 검단면과 마산면, 노장면을 합해 ‘검단면’으로, 고란태면과 임촌면을 ‘고촌면’으로 축소·조정했다. 또한 통진군은 군내면과 월여곶면, 보구곶면을 ‘월곶면’으로, 양릉면과 상곶면, 반이촌면을 ‘양촌면’으로, 대파면과 고리곶면, 반이촌, 소이포면 일부를 합해서 ‘대곶면’으로, 하은면과 봉성면과 질전면 일부를 ‘하성면’으로 조정했다.<sup>29)</sup>

이후 1930년 12월 29일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03호에 의해 읍제가 시행되면서 1931년 4월 1일 전국 41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6년 4월 김포군의 양동면의

29) 면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때 두 개의 면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거나 (고촌면, 월곶면, 대곶면, 양촌면), 종래 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군내면, 검단면, 하성면), 한 개 면을 기준(양동면, 양서면)으로 명칭을 만들었다. 이로서 고유한 김포지역의 마을 이름이 사라졌으며 일제는 지명 획일화를 통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행정적 편의를 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부가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또한 1938년 1월 김포군 군내면이 '김포면(金浦面)'으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일제치하의 행정구역이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 해방 이후 꾸준히 규모가 축소된 김포군

1945년 8월 민족해방을 맞았으나 이해 11월 2일부터 발효된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제정되어 그 효력을 갖고 있던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 도제, 부제, 읍면제 및 동 시행법칙 등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법령이 그 효력을 지속함에 따라 행정구역도 일제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김포군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이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확장되면서 이들 시에 인접한 김포군의 일부 지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후 수도권 확장계획에 의거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2호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확장에 따라 1963년 1월 1일부로 김포군 양동면·양서면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어 김포군의 지역 규모는 7개 면으로 축소<sup>30)</sup>
-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따라 부천군 오정면의 10개 리와 계양면 전체가 김포군에 편입(9개 면)
-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7호에 따라 '오정면'이 다시 부천군에 편입되어 8개 면으로 조정<sup>31)</sup>
-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 김포면 '김포읍(金浦邑)' 승격(1읍 7면)<sup>32)</sup>
-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sup>33)</sup>로 양촌면의 마송리, 도사리, 수참

30)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62.11.21공고 법률 제1172호). '구역: 영등포(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31) 전라도 장성군 북상면의 폐지와 시군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75.9.23 공고 대통령령 제7817호). 경기도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경기도 김포군 오정면 일원, 경기도 김포군의 관할구역 중 오정면 일원을 제외한다.'

32) 미금읍등 53개읍 설치에 관한 규정(1979.4.7 공고 대통령령 제9409호) 김포군 김포읍(관할구역: 김포면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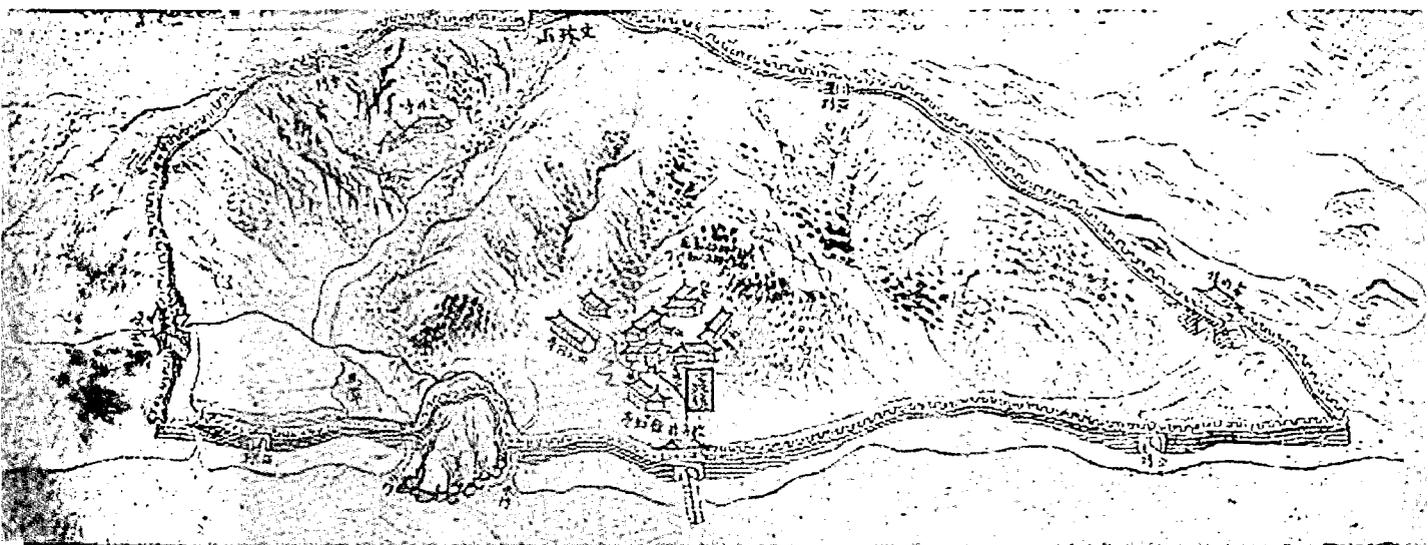
33) 1983.1.10 공고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 관할 구역변경 및 설치등에 관한 규정. 31 경기도 김포군에 통진면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김포군: 통진면, 관할구역: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 도사리, 수참리. 김포군 월곶면 웅정리, 고정리, 서암리, 귀전리, 동을산리. 김포군 대곶면 가현리. 32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의 관할구역 중에서 마송리, 도사리, 수참리를,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의 관할구역 중에서 웅정리, 고정리, 서암리, 귀전리, 동을산리를, 경기도 김포군 대곶

- 리의 3개리, 월곶면의 응정리, 고정리, 서암리, 귀전리, 등을산리의 5개리와 대곶면의 가현리를 합해 ‘통진면’을 신설(1읍 8면)
- 1986년 12월 23일 공고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거 김포군 계양면 노오지리 중 일부 지역이 김포군 고촌면 지역으로 관할 이관
  - 1988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2557호에 따라 하성면 하사리 일부가 통진면으로 이관
  - 1989년 12월 31일 법령 제4051호로 계양면이 인천시로 편입(1읍 7면). 편입 명분은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등 일부 지역을 인천시에 편입함으로써 필요한 도시시설의 용지를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의 도시발전 기반을 확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973년 7월에 부천군 계양면이 김포군으로 편입된 지 16년 만에 인천시로 편입되었다.
  - 1995년 3월 1일자 법률 제4802호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편입(1읍 6면)
  - 1998년 2월 3일 내무부 공고 제1998-6호에 의거 김포시 법정동이 설치되었다. 구체적으로 김포1동의 관할구역(법정동)은 북변동, 걸포동, 감정동 중 일부, 김포2동의 관할구역(법정동)은 운양동, 장기동, 감정동 중 김포1동 편입지역의 전지역, 김포3동의 관할구역(법정동)은 사우동, 풍무동 등이다.
  - 1998년 4월 1일 법률 제5458호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3읍 6면). 이로써 1632년(인조 10년 3월 11일) 인조의 부모묘인 흥경원(興慶園)을 장릉(章陵)으로 승격시키고, 동시에 읍호를 김포현에서 ‘김포군(金浦郡)’으로 승격된 지 366년 만에 시(市)로 승격되었다.
  - 2003년 9월 1일 김포3동이 사우동, 풍무동으로 분동되었고(4동 6면), 2004년 1월 1일 행정자치부 2003-176호(김포시 조례 제468호, 2003.12.30공포)로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1읍 5면 4동).
  - 2009년 9월 1일 고촌면이 고촌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4동(김포1동[걸포동, 북변동, 감정동],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사우동, 풍무동)과 2읍(통진읍, 고촌읍), 4면(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의 편제를 갖추(2읍 4면 4동)
  - 2011년 11월 14일 양촌면이 양촌읍으로 승격함으로써 김포시는 2012년말 현재 3읍(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3면(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5동(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

---

면의 관할구역 중에서 가현리를 각각 제외한다.

## 19년만에 축성된 문수산성



문수산성지도 '海東地圖'로 1800년 이후 1822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병인양요가 1866년에 있었으니까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 약 66~44년 전에 제작된 중요한 자료다. 이 해동지도의 강도(강화도)지역에서 문수산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지도를 보면 문수산성이 병인양요로 피해를 입기 직전의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김포의 대표적인 산성이자 유일하게 현존하는 성곽은 월곶면 성동리에 있는 문수산성(文殊山城)으로 해발 376m 문수산 등성에 있다. 문수산은 역사적으로 비솔산(比率山), 비예산(比峴山), 통진산(通津山)으로도 불려오고 있다. 문수산은 김포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문수산성은 1964년 8월 29일 사적 제139호로 지정되었다. 문수산성의 둘레는 15리 129보<sup>1)</sup>(步, 1보는 약 1.2m)에 석축(화강암)이며, 성벽위에 벽면을 따라 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낮은 담인 살반이 타(塼)가 1,273첩(磔, 살반이 타를 말함), 드나드는 성문의 누각인 문루(門樓)가 세 군데, 누각이 없이 만들어 놓은 암

1) 보(步)란 거리를 재는 단위의 하나. 주척(周尺)으로 여섯 자.(1.2m 정도로 환산)



문수산성 남문



남아문(홍예문)은 홍예식 암문으로 화강암을 사용했다

문(暗門)이 세 곳인데 한 곳만이 남아 있다. 성문은 산성의 동문인 취예루(取豫樓), 산성의 서문인 공해루(控海樓) 등 세 곳의 문루와 세 곳의 암문이 있었다. 이 중 취예루는 갑곶진과 마주보는 해안에 있었으며 강화에서 육지로 오는 관문 구실을 했다.

1866년의 병인양요에서 프랑스군 120명이 9월 18일 문수산성을 공격해 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어 없어지고 문수산 등성을 연결한 성벽만이 남아 있다. 성의 총 둘레는 6,201미터이고 면적은 64,000평에 이른다.

## 강화를 지킬 문수산성 축조 제안

문수산성의 축조는 인조가 청나라의 침범으로 벌어진 병자호란(1636년 12월~1637년 1월) 때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봉쇄당하면서 강화도로 파천하지 못하자 남한산성으로 파천하며 항거하다가 청나라에 한강 상류인 삼전도(三田渡)에서 치욕<sup>2)</sup>을 당한 이후, 강화도와 연결되는 길목인 통진의 갑곶나루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가 요구되어 강화도로 넘어가는 길목인 문수산 서쪽 산록에 산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김포의 문수산성 축조 과정을 살펴보면, 문수산성을 세울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숙종 1년(1675년) 4월 28일자에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sup>3)</sup>이 강화도 형세를 돌

2)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이란 병자호란 때 수항단(受降壇)을 쌓고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한 일을 뜻하며, 청나라의 전승비(戰勝碑)이기도 한 삼전도비(三田渡碑)로 더 알려져 있다.

3) 허적(許積, 1610~1680년)은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에 들어갔다. 사헌부에 있을 때, 뇌물을

아보고 “...또 통진의 문수산은 강도(江都, 강화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만약 조그마한 성을 문수산에 쌓아서 응거하여 지킨다면 적이 오고 가는 것을 피리를 불고 기를 휘둘러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임금에게 보고를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문수산성 성벽에는 축조에 동원된 삼군문(훈련도감, 어여청, 금위영)의 공사 구간에 따라 축조주체, 구간별 명칭 등으로 보이는 명문이 남아있다.

하지만 숙종 4년(1678년) 10월 23일자에는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sup>4)</sup>와 부사직(副司直) 이원정(李元禎)<sup>5)</sup>이 강도(江都)를 돌아보고 와서, 곧바로 지도(地圖)와 서계(書啓, 주어진 임무를 보고하는 글)를 올리면서 아직 때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문수산(文殊山)에 축성하기를 의논한 자는 물론 터무니없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역(大役, 국가적인 큰 공사)이 또 시작됨으로써 한데 아울러 일을 거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은 먼저 승려들 중에서 중 사리에 밝은 자를 모집하여, 절 하나를 산 안의 천맥(泉脈, 땅속의 샘 줄기)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요후(瞭候)를 숙련하게 하고, 기계(器械)를 간수토록 하다가, 그 뒤 1~2년을 기다렸다가 약간 재력(財力)이

받고 인재를 관직에 등용시킨 이경석, 이시백 등의 사형을 주청하여 대신들을 놀라게 했다. 그 후 평안감사를 거쳐 영의정까지 이르렀으나 얼마 후 사직하고 충주로 내려갔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다시 등용되어 변무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허목과 함께 남인을 지도하다가 허목의 승시열에 대한 과격론에 반대하여 청남·탁남당으로 분열되자, 탁남당을 이끌었다. 또한 현종비 김씨의 공개비난도 받았다. 1680년 그의 서자인 허견이 반역 사건을 일으킨 일로 인해 사약을 받고 죽었다.

- 4) 김석주(金錫胄, 1634~1684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57년(효종 8년) 진사(進士)가 되고 1662년(현종 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응시하여 장원급제, 전적(典籍)을 거쳐 이조좌랑을 지냈다. 당시 한당(漢黨)으로 집권당이던 산당(山黨)에게 중용되지 못하다가 1674년(현종 15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남인(南人) 허적(許積) 등과 결탁하여 ·(宋時烈)· 김수항(金壽恒) 등의 산당을 숙청하고 수어사(守禦使)· 도승지(都承旨) 등으로 특진되었다. 그 뒤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남인의 잔여세력을 꺾은 다음 그 공으로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되어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 숙종이 후궁인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는 문제를 반대한 · 등의 서인이 정권에서 쫓겨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공신의 호를 박탈당했다가 후에 복귀되었다.
- 5) 이원정(李元禎, 1622~1680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1648년(인조 26년) 사마시를 거쳐 1652년(효종 3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상의원 직장에 임명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신분이 복귀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그 후에도 정국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추탈(追奪)되었다.

저축되면, 반드시 축성할 계획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그의 의견은 성을 쌓지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의 커다란 공사가 겹치니 임시방편으로 산성 안에 절을 하나 세우고 승려들을 통하여 관리를 맡기다가, 1~2년 뒤 국가의 재정이 마련되면 성을 쌓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한다. 그렇지만 1~2년 뒤에도 그 일은 착수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이원정의 보고가 있은 지 3년 후인 숙종 7년(1681년) 5월 21일자를 보면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선(李選)<sup>6)</sup>이 별단(別單)<sup>7)</sup> 형식을 덧붙이며 그곳의 형편에 대해 조목별로 따지면서 상소하는 기록이 있다.



1684년 5월 13일(음력) 왕에게 그려 바친 문수산 지역 지도: 강도성(江都城)과 문수산성을 함께 축성하도록 결정. 『조선왕조실록』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덕진(德津)은 김포·부평으로 하여금 그때그때에 임하여 입보(入保)<sup>8)</sup>하게 하고, 문수산에도 그 봉우리에 성을 쌓아 통진으로 하여금 그때그때에 임하여 입보하되, 겸해서 요망(瞭望, 적의 형세를 살펴봄)하기에 편하게 하고, 갑곶이[甲串] 수유현(水踰峴)<sup>9)</sup>

- 6) 이선(李選, 1632~1692년)은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으로 ·의 문하생이다. 1686년 개성부(開城府)유수·예조참판을 역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참판을 지내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숙청될 때 귀양을 가서 죽었다. 1694년 신원되었다.
- 7) 별단(別單)이란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인명부를 말한다.
- 8) 입보(入保)란 보(堡) 안에 들어와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한다.
- 9) 수유현(水踰峴)은 일명 ‘무네미고개’라고도 한다. 영조 36년(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 <관액>편에 보면 “수유현이 관부 서쪽 5리에 있는데 강화에 이르는 목구멍 같은 곳으로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이 이 고개를 넘어 강화를 침범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성을 쌓고 방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현종 8년(1842년), 고종 8년(1871년)에 집필된 『통진부읍지』,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도 기술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월곶면 포내2리 수현동이다. 수유현이 수현으로 바뀌었다.

위에도 좌우로 돈대(墩臺)<sup>10</sup>를 설치하여 그때그때에 임하여, 들어가 수어(守禦,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음)하게 해서 미처 건너지 못하여 뒤에서 막는 곳이 되게 하소서...”라며 문수산에 성곽 쌓기를 다시 제안한다.

그 후로 1년 뒤인 숙종 8년(1682년) 8월 23일자에는 강화유수 조사석(趙師錫)<sup>11</sup>이 문수산성을 쌓도록 청하고 영의정 김수항(金壽恒)<sup>12</sup>·우의정 김석주(金錫胄)가 찬성을 하자 임금이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sup>13</sup>·어영대장(御營大將)<sup>14</sup> 김익훈(金益勳)<sup>15</sup>에게 문수산 형편을 살펴보게 한다. 그러나 정치상황으로 현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문수산성을 쌓는 논의는 일시 중단되었다.

중단된 문수산성 축조 논의는 숙종 11년(1685년) 4월 14일에 가서 임금은 판부사(判府事)<sup>16</sup> 민정중(閔鼎重)<sup>17</sup>·병조판서로 승진된 조사석(趙師錫)을 문수산에 다시 파견한다.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민정중이 보고하기를,

10) 돈대(墩臺)란 주변 관측이 용이하도록 평지보다 높은 평평한 땅에 설치한 소규모 군사 기지로 봉화가 달려 있는 곳도 있다.

11) 조사석(趙師錫, 1632~1693년)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1660년(현종 1년) 진사가 되어, 1662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 검열(檢閱)·봉교(奉敎)·정언(正言)·사서(司書)·이조정랑을 거쳐 황해·강원·경기도 등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1689년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에 올랐으나, 1690년(숙종 16년) 동궁(東宮) 책봉하례(冊封賀禮)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성(固城)에 유배되어 2년 뒤 유배지에서 죽었다.

12) 김수항(金壽恒, 1629~1689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서인이었다. 1660년에 자의대비 복상 문제가 일어나자, 송시열과 함께 기년설(己年)을 주장하여 남인파를 눌러 윤선도 등을 귀양 가게 했다. 그 후 이조판서·좌의정을 지내고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80년 남인들이 정권을 잃게 되자 영의정이 되었다. 이때부터 한동안 당쟁이 잠잠해지고 조정의 기강이 유지되었으나, 기사환국으로 남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진도에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13) 민유중(閔維重, 1630~1687년)은 조선 숙종의 장인, 즉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아버지다. 1650년(효종 1년) 증광문과에 급제, 예문관을 거쳐, 1674년(숙종 원년) 호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가 일어나자 대공설(大功說)을 지지했다. 1681년(숙종 7년) 딸이 숙종의 계비가 되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이 되었다. 노론(老論)에 속했으며, 경서(經書)에 밝아 사림 간에 명망이 높았다.

14) 어영대장(御營大將)은 조선시대 어영청(御營廳)의 우두머리 장수를 말한다.

15) 김익훈(金益勳, 1619~1689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의 종조부다. 김석주와 함께 역모 사건을 날조하여 남인들을 일망타진하려다가 서인(西人)이 노론, 소론으로 분당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사계 김장생의 손자이자 김반(金槃)의 아들이다.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익겸의 동생이며, 숙종의 장인 김만기, 서포 김만중 형제의 숙부였다. 예학자 김집의 조카였다. ·(宋時烈)의 제자다.

16) 판부사(判府事)는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으뜸 벼슬인 종일품 관직으로,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를 겸하기도 했다.

17) 민정중(閔鼎重, 1628~1692년)은 조선 후기 숙종 때 문신으로 서인계열이다. 이조·공조·호조·형조판서를 역임했다. 남인 득세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좌의정이 되었다. 기사환국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문수산성 북문에서 바라본 강화도

“국가에서 강도(江都)를 보장(保障)<sup>18)</sup>으로 삼고 있으니, 성(城)을 쌓는 일은 그 형편상 그만둘 수가 없다”며 “가령 국가에 갑자기 변고가 생겨서 강도(江都)에 들어가더라도 성(城)을 쌓아 고수하지 아니하여 흠담 사이에 주필(駐蹕)<sup>19)</sup>했다가 하루아침에 오랑캐가 삼강(三江)<sup>20)</sup>의 옥재(屋材, 집을 지은 목재)들을 헐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물 흐름을 따라 내려오면 그들의 방장(方張, 기세등등함)한 세력을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하고 강조하자, 임금은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으니 마땅히 여러 대신들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겠다”고 한다. 또 조사석(趙師錫)도 “...이제 만일 성(城)을 문수산에 쌓으면 곧 도로(道路)에 지장(支障)이 없어서 가히 강도(江都)에 전달(轉達)될 것입니다. 문수산성도 함께 쌓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자 임금이 이에 동의한다.

한 달 후인 숙종 11년(1685년) 5월 13일자에서도 임금이 병조판서 조사석(趙師錫)

18) 보장(保障)이란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흙 등으로 만든 견고한 구축물을 말한다.

19) 주필(駐蹕)은 임금이 거동하는 중간에 어가(御駕)를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던 일을 말한다.

20) 삼강(三江)이란 한강의 세 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남동 일대의 한강, 용산과 원효 일대의 용산강, 마포와 서강 일대의 서강을 이른다.

에게 묻자 “...문수산성에 이르러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 또한 반드시 쌓아야 한다”고 그는 재차 강조했고, “...강도(江都)의 성과 문수산의 성은 함께 쌓도록 하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일은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5년 후인 숙종 16년(1690년) 8월 7일자에 병조판서 민암(閔黯)<sup>21)</sup>이 문수산에 성을 쌓을 것을 제안하는 기록이 등장한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병조판서 민암(閔黯)이 말하기를, ‘신(臣)이 통진으로부터 강도(江都)의 형세를 두루 보니, 문수산이 강화부성(江華府城)의 주산(主山)인데, 동북으로 갑곶이(甲串)·강화성중(江華城中)까지 다 눈 안에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다들 강화(江華)를 지키려면 문수산에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거니와, 5리를 미처 쌓지 않아도 이내 강에 이르게 되니, 이 성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적이 오더라도 사방에 손덜 곳이 없습니다. 뒷날에 흑 대가(大駕, 임금이 타는 수레)가 와서 머무는 때가 있더라도 도인(都人)·사녀(士女)가 지키기 매우 편리한데, 산은 높고 막힌 데가 많으므로 성을 만들 것 없이 인왕산(仁王山)·백악(白岳)처럼 여장(女牆,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을 쌓으면, 이는 두어 리쯤에 지나지 않으므로, 드는 힘은 적고 나타나는 공은 많은 것이고, 일을 할 균졸은 통진 하나의 고을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숙종 19년(1693년) 10월 3일자는 “임금이 통진과 문수산과 강도를 요새지라고 하여 성을 쌓아 지키도록 의견을 제시하자 영의정 권대운(權大運)<sup>22)</sup> 등이 합사하여 이 일을 찬성했다. 임금이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sup>23)</sup>에게 가서 지형을 살펴보도록 명했다는 내용이 기술됨으로써 이 일이 시작될 듯 보였다.

21) 민암(閔黯, 1636~1694년)은 조선 후기 현종, 숙종 때 문신이다. 1668년(현종 9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 지평(持平),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남인으로서 ·(宋時烈) 등 서인의 처형 문제에 강경론자였다. 1691년 우의정이 되었고, 1694년 갑술환국 때 대정(大靜)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22) 권대운(權大運, 1612~1699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당대 남인의 중심적 인물로 처신하다가 1680년(숙종 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득세하자 중추부판사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당했다.

23) 이의징(李義徵, ?~1695)은 조선 숙종 시기의 무신으로, 진안 현감 때 치적으로 치적을 쌓아 2년 뒤 암행어사 오도일(吳道一)의 추천으로 왕으로부터 상작(賞爵)을 받았다. 공조판서, 훈련대장으로 통진 문수산 일대를 답사, 축성의 필요성을 건의해 실현했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 일명 갑술환국)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

다음달(숙종 19년(1693) 11월 24일)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은 숙종에게 문수산성 공사시기를 “문수산성의 축성을 내년 봄에는 시작하여야 하겠다”고 보고해 허락을 받는다.

숙종 20년(1694) 1월 9일자 기사는 금위영에서 문수산 성 쌓는 역을 금년 봄에 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며 성을 쌓을 돌을 강화도에서 캐기 시작해야 하고, 해조에 보름쯤(15일) 고제(告祭)를 지내겠다고 하자 왕이 허락한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지닌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숙종 20년(1694년) 2월 22일자에 기술되어 있다.

“대신과 비국(備局,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의 여러 신하들을 접견했다. 이때 장차 문수산성을 쌓으려고 하니 조정의 신하들이 진실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도, 임금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양국(兩局, 어영청과 훈련도감을 이름)의 대장(大將)에게 명하여 가서 형세(形勢)를 살피도록 했다. 병조판서 목창명(睦昌明)<sup>24)</sup> 또한 명령을 받들고 가서 마침내 성 쌓을 터를 정하고 돌아와서 그림을 그려서 바치며, 그 계획에 찬성했고, 우의정 민암(閔黯) 또한 그 계획이 옳다고 말했다. 목창명이 농사짓는 일에 손상이 있음을 근심하여, 가을을 기다려 시작해 쌓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임금이 문수산성의 축조를 결정하고 지시했으나 조정의 다른 신하들이 계속 반대해 늦어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가을에 하기로 했던 산성공사는 당초 정했던 5~6월경에 시작한 듯하다. 이 내용의 근거로 숙종 20년(1694) 7월 5일자에 금위영에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산성공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쳐 의약품과 의사를 내려보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방금 이 문수산의 성역(城役) 때 3군문의 역군·공장(工匠) 등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병을 치료할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강도(江都)에 토성(土城)을 쌓을 때의 예에 의하여 의사(醫司)로 하여금 각각 의관 1인을 지정하여 약물을 갖고 내려가게 하되 통진현(通津縣)에서 접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이로부터 5개월 후 숙종 20년(1694년) 9월 13일에 문수산에 성 쌓는 일이 이미 끝

24) 목창명(睦昌明, 1645~1695년)은 조선 후기 숙종 때 남인 계열 문신이다. 1692년 형조판서에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1694년 갑술옥사로 서인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났다고 전하고 있다.

9월 13일에 성 쌓는 일이 마감되었다고 하니 성을 쌓는 데 걸린 시간은 5개월 남짓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개월 만에 수행될 수 있는 일이 19년이나 미루어진 연유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성이 완성된 시기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6년으로부터 58년 만의 일이다.

어쨌든 문수산에 산성을 축조하지는 제안(1675년)이 있은 지 19년이 흐른 1694년에 이르러서야 문수산성이 세워질 수 있었다. 문수산에 산성이 완료되자 숙종은 약 한 달 후인 그해 10월 7일에 통진현을 통진부로 승격시키고 부사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비변사등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 남구만이 ‘통진의 관원은 마땅히 산성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 그 읍호를 승격시켜 품계 높은 자를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통진 부사로 승격시키고 무신(武臣) 당상 가운데서 가려서 뽑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

### 여러 차례 무너져 내린 문수산성

실록은 1694년 9월 문수산성 축성공사가 끝난 이후 산성이 무너져 내린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다.

『비변사등록』 숙종 26년(1700년) 7월 28일자는

“... ‘본청에서 소관하는 문수산성은 작년의 장마로 여장(女牆) 및 체성(體城)이 여러 곳 무너져 마땅히 서둘러 보수해야 하지만 본청에는 본래 물자가 부족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 그 모두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할 형편입니다. 당초 성을 쌓음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님에도 수년 뒤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도리어 당초에 성을 쌓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묘당(廟堂, 정부의 최고기관)에서 좋은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재력을 지급하면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고, 더구나 이전의 노력을 헛되게 않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했다”며, 비가 많이 와서 문수산성에 낮게 쌓은 담장인 여장(女牆)과 성의 몸통 부분인 체성(體城)이 무너져 보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기술하고 있다.

이후 영조 5년(1729년)에도 문수산성이 무너져 내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비변사등록』 영조 5년(1729년) 3월 7일자에도

“7일 금위영(禁衛營)<sup>25)</sup>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강화유수(江華留守)의 장계로 인하여 문수산성의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 역량(役糧)을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으로 하여금 분배해서 도와주게 하기로 이미 비변사에서 복계했으나 갑술년(甲戌年: 속종 20년, 1694년)에 처음으로 문수산성을 쌓을 때 각 군문에 할당하여 쌓게 한 것은 공사가 방대하여 강화부만의 힘으로는 담당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 일을 예로 삼아 무너진 족족 보수할 때에도 군문으로 하여금 물자를 돕게 하는 것은 사세로 보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본영(本營)의 군향(軍餉)은 원래가 넉넉하지 못하여 연속 삼남(三南)의 흉작으로 인하여 세입(歲入)이 크게 줄어 허다한 군병의 매월 방료(放料)도 사실 계속해서 지급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에 배정한 쌀은 내려보낼 수 없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국가의 핵심 기관인 금위영마저도 군량미가 넉넉지 못하고 흉년으로 세입도 줄어 문수산성의 보수에 필요한 역량을 내려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순조 12년(1812년)에도 “그 서쪽 문루를 일컬어 공해루(拱海樓)라 하는데, 복파루(伏波樓)와 더불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순조 임신(壬申, 1812년)에 유수 홍의호(洪義浩)가 산성을 중수하고 그 누를 개편하여 이르길 ‘희우(喜雨)’라 하니 초원(椒園) 이충익(李忠翊)의 글이다. 병인년의 병화(兵火)로 불타고 그 후 또한 다시 건립하여 공해루(拱海樓)라 하니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순조 임신년(壬申年)인 1812년에 문수산성을 보수한 기록이 있다.

## 새로이 등장한 외세의 방비책이 된 문수산성

1866년(고종 3년) 9월 7일 프랑스군의 로스 제독(Pierre-Gustave Roze, 1812~1882년)이 게리에르(Guerriere)호를 기함으로 하여 포함과 콜벳(Corvette)함 및 통보함 등 7척으로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갑곶진에 상륙하여 강화성을 점령하고, 음력 10월 26일 프랑스군 120명은 문수산성으로 침입했다. 이때 문수산성에는 봉상시사 한성근(韓聖根)이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광주의 별파군 530명을 이끌고 수비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작은 배가 성의 남문 밖에 다다라 정박했는데, 한성근이 이끄는 수비군이 프랑스군을 기습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무기의 열세를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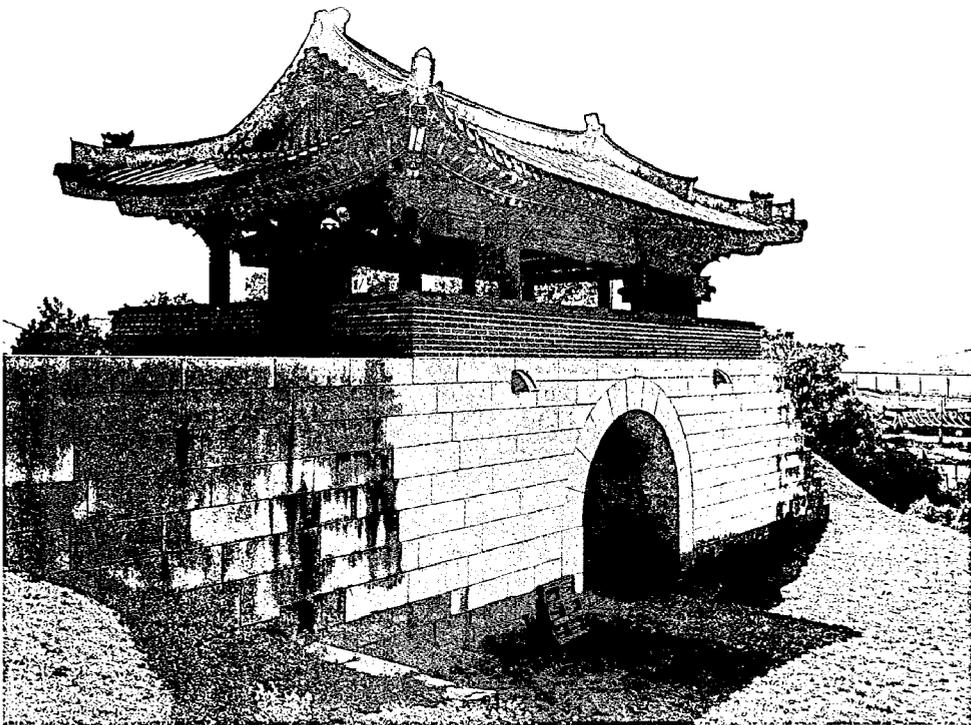
25) 금위영(禁衛營)은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軍營)이다. 조선 후기 오군영(五軍營) 가운데 하나로서 훈련도감, 어영청과 함께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의 핵심 군영이다.

하지 못한 한성군은 결국 후퇴하여 포수 4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1명이 포로로 잡혔다. 하지만 프랑스군 또한 2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자 성안의 민가 29호를 불살라 버렸다. 이 격전으로 해안가의 성벽과 문루들의 시설이 파괴되고 성안이 유린되었다.

이러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수 관리를 행했다. 고종 4년(1867년) 1월 25일자는

“호조에서 새로 주조한 돈을 내려서 진해와 성첩과 무기를 수리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이 의 보고한 바를 보니, 통진부의 문수산성은 바로 관방(關防)의 요충지인 만큼 진해(鎭海)와 성첩(城堞)과 무기 등의 허다한 수리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호조에서 새로 주조한 돈 가운데에서 1만 냥을 절계(折計)하여 획송(劃送)하여 차례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했다.”

또한 같은 해인 고종 4년(1867년) 7월 4일자에는 문수산성이 무너져 보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수산성 복문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감사의 장계(狀啓)를 보니, 문수산성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새로 쌓은 성첩(城堞)이 몇 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모두 무너졌다고 하니, 공력을 다 하지 않고 단지 겉치레만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도에서 군사 장비를 일신(一新)했다는 것도 한갓 명목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부사(府使) 이방희(李邦熙)는 용서하기 어려우니 귀양을 보내는 형벌을 시행하고 감독한 여러 사람들은 경기감영으로 하여금 경중을 나누어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성첩을 보수하는 일은 한시가 급하니, 통진부사(通津府使) 대신으로 올진현령(蔚珍縣令) 백낙선(白樂善)을 특별히 제수(除授)하여 즉시 내려 보내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행하여 기한 안에 완공한 것을 보고하게 하라”는 기록이다.

보수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무너져 내린 것은 형식적인 수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부사를 귀양 보내고 감독기관의 담당자들도 엄히 처리하고, 덧붙여 시급히 다른 관리를 내려 보내 기한 내에 보수 공사를 완비하라는 내용이다. 중앙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 고종 임금은 이 문수산성 보수 사업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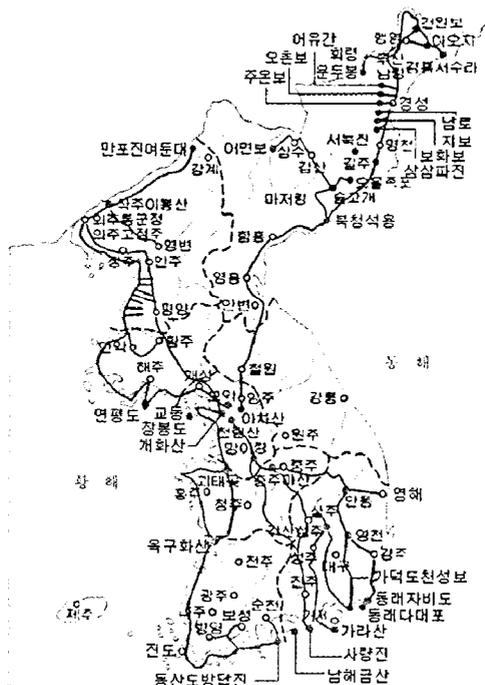
문수산성은 청나라의 침략과 그 대비책으로 강화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내는 역할을 띠고 대대적으로 산성을 개축되었지만, 그곳은 또 다른 외세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외세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부터 왔다. 대륙 세력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만든 문수산성이 근세에 들어 프랑스나 일본 등 외세를 방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알곳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92년부터 김포시가 문수산성 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를 감안한 미래 지향적 복원사업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함께 담겨 있기를 기대해본다.

# 김포의 봉수대(烽燧臺)를 복원하자!



서울 남산(목역산) 봉수대



조선시대 봉수망

봉수대 등 ‘봉수(烽燧)’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대부분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 밤에 햇불로 전달하는 것이 ‘봉(烽)’이고, 낮에 연기로 전달하는 것을 ‘수(燧)’라고 한다. 적군과 경계에 있는 곳에서 현장의 상황을 중앙과 각 지방의 군영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통신체제인 봉수대(烽燧臺)가 김포지역에 5개(현재 2개는 서울과 인천 지역임)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김포 시민은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한 군데도 봉수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까? 김포시의 봉수대 복원을 희망하며 김포지역의 봉수대 현황을 역사자료를 통해 살펴 본다.

봉수는 위치나 임무에 따라 경봉수(京烽燧), 연변봉수(沿邊烽燧), 내지봉수(內地烽燧)로 구분한다. 첫째, 경봉수란 수도 서울(한성에 있던 봉수로,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되던 중앙 봉수로서 서울 목멱산(남산)에 있던 ‘목멱봉수’를 말한다. 둘째, 연변봉수란 국경선이나 해륙 연변의 제1선에 설치하여 연대(煙臺)<sup>1)</sup>라고도 불렀던 기점 구실을 하던 곳이다.

통신 이외에 국경 초소나 수비대 역할도 했다. 셋째, 내지봉수는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던 중간 봉수로서 전국에 직봉과 간봉(間烽)<sup>2)</sup>이 673개소가 있었다. 내지봉수는 연락을 받아 다음 봉수로 연락을 해주던 선로가 있어 거미줄 같은 통신망이 이루어졌다. 그 기점이 최고 멀리 떨어진 변경인 두만강, 압록강,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5개 노선의 직봉으로 이루어졌고, 기점은 달라도 모두가 경봉수인 중앙의 목멱산을 종점으로 집결되었다. 이 직봉의 5로는 ①동북은 함경도의 경흥, ②동남은 경상도의 동래, ③서북의 내륙은 평안도의 강계, ④해

1) 연대(煙臺)란 해안 연변봉수에서 항시적으로 1거(炬) 또는 비상시 거화(炬火)를 위해 설치한 높이 3m 내외의 흙이나 돌, 또는 흙과 돌 혼합물로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이다. 연대 상부 중앙에는 원형 혹은 네모 모양의 연소실(燃燒室)이 마련되어 있다.

2) 간봉(間烽)이란 조선시대에 전국 봉수망 중 지방에서 목멱산(서울 남산)에 이르는 간선 5로(路)의 직봉(直烽)에 들지 않은 작은 봉수 조직이다. 여기에는 직봉과 직봉을 연결해주는 2차 선상(線上)에 있던 봉수대, 국경이나 해안지방 전초기지에서 본진(本鎭)이나 본영(本營)까지 연결되는 봉수대, 그리고 국경지대에 연대(煙臺) 하나만이 있던 봉화대(烽火臺) 등이 있다.

안지방으로는 의주, ⑤서남은 전라도 순천의 5개 소를 기점으로 했다.

제1봉의 봉수대는 함경·강원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주 아차산(서울 강동구) 봉수대로부터, 제2봉 봉수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봉수를 광주 천림산 봉수대로부터, 제3봉 봉수대는 평안·황해도에서 오는 봉수를 무악산 동봉의 봉수대로부터, 제4봉 봉수대는 평안·황해도의 해안에서 오는 봉수를 무악산 서봉의 봉수대로부터, 제5봉 봉수대는 전라·충청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천(서울 양천구) 개화산 봉수대로부터 각기 받았다.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온 봉수 정보는 목멱산(서울 남산) 봉수대의 오원(五員)<sup>3)</sup>이 병조에 종합 보고하면 병조에서는 매일 새벽 승정원(承政院)에 알려 임금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김포지역의 봉수는 제5봉 노선인데, 전라도 순천에서 시작하여 수원, 안산, 인천, 부평 축곶봉수(柵串烽燧)<sup>4)</sup>에서 김포(현재는 인천시 검단)의 백석산봉수(白石山烽燧)<sup>5)</sup>, 수안산봉수(守安山烽燧), 강화 대모성산봉수, 강화 진강산봉수 등 4개소를 거쳐 김포 월곶면의 남산봉수(南山烽燧), 김포 북변동의 냉정산봉수(冷井山烽燧), 서울 양천의 개화산봉수(開花山烽燧), 서울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로 최종 전달되었다.

현재 기준으로 김포지역의 대곶면 수안산봉수, 월곶면 남산봉수, 북변동 냉정산봉수의 역사적 내력을 살펴보자

## 대곶면의 수안산봉수

수안산봉수(守安山烽燧)는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산117번지 해발 146.8m인 수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제5로 연변봉수 직봉의 봉수로서 시대를 달리하여 ‘수안성산봉수’, ‘약산봉수’ 등으로 불렸다. 이 봉수와 대응되는 봉수의 노선 및 거리는 서쪽으로 강화 ‘대모성봉수’와 7.25km, 남쪽으로 인천 검단 ‘백석산봉수’와는 5.5km로

3) 오원(五員)이란 조선시대 경봉수(京烽燧)에 속한 봉수군(烽燧軍)의 감독자다. 다섯 봉화 아궁이에 한 사람씩 배치했다.

4) 축곶봉수(柵串烽燧)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북망산 북쪽에 위치한 해발 79.2m인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5) 백석산봉수(白石山烽燧)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 봉화촌 해발 47m인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는 제5거 직봉 노선의 연변봉수다. 대응봉수는 남쪽의 인천 축곶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의 김포 수안산봉수에 응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 봉수는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단종2)에 경기·통진현 소재 2개소의 봉수 가운데 1개소로서 ‘약산봉화’로 기술되어 있으며, “현의 남쪽에 소재하며 서쪽으로 강화 대모성, 남쪽으로 김포(인천 검단) 백석산에 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1432, 세종14)에는 ‘수안성산봉화’이란 명칭으로 서쪽으로 응했던 ‘대모성봉수’의 명칭이 ‘대모산성’으로 변화가 있었다.

조선 후기 『동국여지지』(1656, 효종7)의 기록 내용도 이와 같으나 다만 서쪽으로 응하던 ‘대모산성 봉수’ 이름이 ‘대모성산’으로 변했 뿐이다.

『여지도서』(1757, 영조33-1765, 영조41) <봉수(烽燧)>편에는 ‘수안산성 봉화’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위치와 대응 봉수 노선 및 거리 등을 알 수 있다. 『경기지(京畿誌)』(1843년) 『통진부읍지』에는 현재의 ‘수안산봉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1851년부터 1856년경에 김정호와 최성환(崔理煥)이 함께 편찬한 『여도비지(輿圖備志)』에는 수안산이 곧 수안고성임을 표기하고 있으며 1866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동지지(大東地誌)』(1851~1856)에는 수안산이 수안고성 안에 있음을 표기하고 있다. 한편 이 봉수의 봉수군(烽燧軍) 인원에 대해 1783년의 『강화부지(江華府誌)』<sup>6)</sup>는 자세히



수안산 산신제를 위한 제단

6) 『강화부지(江華府誌)』란 1783년(정조7) 강화유수 김노진(金魯鎭)이 편찬한 경기도 강화부(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읍지. 2권 1책. 목판본. 장서각 도서·규장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 등

기술하고 있다.

‘수안산봉수’는 남쪽으로 ‘백석산봉수’, 서쪽으로 강화 ‘대모산봉수’에 응하며, 봉수군 103명, 봉수장 4인, 감관(監官)<sup>7)</sup> 10인, 감고(監考)<sup>8)</sup> 2인, 오장(伍長)<sup>9)</sup> 10인, 군 40인 등 대응 봉수 외에 169명의 많은 봉수군이 배속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770)에는 제5거 직봉의 ‘수안산봉화’ 명칭으로 통진에 속하여 경기수사 소관의 봉수였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봉수는 수안산성 동문지 우측에서 동 방향으로 약 4개소의 돌로 만든 원형의 봉돈(烽墩)<sup>10)</sup> 흔적이 미미하게 남아 있다.

가장 서쪽 높은 곳에 있는 제1봉돈은 중심에 철봉이 박혀 있으며 원형으로 미미하나 봉돈의 윤곽이 확인된다.

제2봉돈은 제1봉돈과 3m의 거리를 두고 석재를 원형으로 돌려 봉돈 시설을 했다.

제3봉돈은 4개소의 봉돈 중 상태가 제일 양호하며 1.5×1.6m의 크기로 40×10cm, 30×15cm 가량의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봉돈 시설을 했다.

제4봉돈은 원형으로 흙으로 만들었다. 제1봉돈에서 제4봉돈까지 각 봉돈 간 중심거리는 3m(제1~2봉돈), 7m(제2~3봉돈), 4.6m(제3~4봉돈)이며 1~4봉돈 간 전체 길이는 14.6m로 소형이다.

---

에 있다. 이밖에 고종 때 편찬된 『강화부지』3종이 규장각 도서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1932)에 김노진의 읍지를 후본(後本)이라 하고, 이전에 구본(舊本)·전본(前本)·신본(新本) 등이 있었다고 하나, 이전 읍지들은 전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형상의 『강도지』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책이 가장 오래되고 내용이 풍부한 강화의 읍지로 알려져 왔다. 내용 구성은 심부전도(沁府全圖)와 심부내성도(沁府內城圖)를 비롯하여, 상권은 건치연혁(建置沿革)·형승(形勝)·성씨(姓氏)·풍속(風俗)·산천(山川)·토산(土產)·성곽(城郭, 附井池)·관량(關梁)·진보(鎭堡, 附牧場)·돈대(墩臺)·봉수(烽燧)·방리(坊里)·제언(提堰)·도서(島嶼)·궁전(宮殿)·부해(府廳)·학교(學校)·사단(祠壇)·정대(亭臺)·능묘(陵墓)·불우(佛宇) 등으로 되어 있다. 하권은 직제(職制)·군제(軍制)·공사(貢士)·명환(名宦)·유우(流寓)·인물(人物)·열녀(烈女)·고적(古蹟)·사실(事實) 등으로 되어 있다.

- 7) 감관(監官)이란 조선시대에 각 관아나 궁가(宮家)에서 금전·곡식의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던 벼슬아치다.
- 8) 감고(監考)란 조선 후기 봉수(烽燧)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각 노선을 순회하면서 감시·감독하던 벼슬아치다.
- 9) 오장(伍長)이란 조선시대에 지방 봉수(烽燧)에서 봉수군을 감독하던 사람으로, 다섯 봉화 아궁이에 한 사람씩 배치했다.
- 10) 봉돈(烽墩)이란 봉화를 올려 멀리 신호를 보내기 위해 돌이나 흙벽돌로 쌓아올린 곳이다.

## 월곶면의 남산봉수

‘남산봉수(南山烽燧)’는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 해발 180.2m 주산(主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산봉수’ 혹은 ‘군하리봉수’로 칭해지고 있다.



월곶면의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남산봉우리

‘주산봉수’와 대응 봉수의 노선의 거리는 동쪽의 김포 ‘주산봉수’와는 13km, 서쪽 강화 ‘송악(남산)봉수’와는 9km의 거리에 있다.

이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단종2)에 “경기 통진현 소재 2개소의 봉수가운데 1개소로서 ‘주산봉화’라는 이름으로 동쪽으로 김포 주산, 서쪽으로 강화 송악에 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1432, 세종14)에는 “현에서 5리의 거리며 동쪽으로 김포현 북성산, 서쪽으로 강화부 송악산에 응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산에서 ‘남산봉화’로의 명칭 변경과 대응 봉수도 동쪽의 김포 주산이 김포현 북성산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1757, 영조33~1765, 영조41)에는 봉수의 위치 표시 이외에 각 대응 봉수의 구체적인 거리를 알 수 있다. 『경기지』(1849~64년) 『통진부읍지』와 『대동지지』(1851~1856)에도 봉수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다. 이 남산 봉수의 봉수군 인원은 103명이라고 『강화부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1770)에는 김포 북변리의 ‘냉정산봉수’를 경유하여 제5로 ‘개화산봉수’에 최종 전달되는 직봉의 ‘남산봉수’ 명칭으로 같은 김포군의 ‘냉정산봉수’와 함께 경기수사 소관의 봉수였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 이제부터 북성산을 장릉산으로 불러라

‘북성산봉수’는 김포시 북변동 해발 150.3m 장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제5로 연변봉수의 직봉 봉수로서 시대를 달리하여 ‘주산봉수’, ‘북성산봉수’ 등으로 호칭되었다. 대응 봉수 노선의 거리는 서쪽으로 통진 ‘주산봉수’와



장릉산 전경

13km, 동쪽으로 '개화산붕수'와는 9.5km의 거리에 있다.

이 붕수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단종2)에서부터 조선 후기 각종 읍지에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명칭의 변경 및 대응 붕수 노선에 변화가 많았던 붕수다. 이곳에서는 경기 김포현에 소개하는 2개소의 붕수 가운데 1개소로서 '주산붕화'라는 이름으로 서쪽으로 통진 주산, 동쪽으로 양천 개화산에 응한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432, 세종14) <붕수>조에서 종전의 '주산붕화'에서 '북성산붕화'로 붕수 명칭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응 붕수 명칭의 변화(서쪽의 통진 주산에서 남산) 등을 알 수 있다. 산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붕수가 위치하는 북성산이 현의 북쪽 2리에 있는데 진산이라 했다.

조선 후기 『여지도서』(1757, 영조33~1765, 영조41)에서는 종전의 '북성산붕화'에서 '냉정산붕화'로 명칭의 변경 및 위치의 변화(현의 북쪽 2리에서 군의 남쪽 3리 소재) 등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여도비지』(1856)와 『대동지지』(1851~1856)에는 '냉정산붕수'가 북쪽 1리 지점에 위치한다고 했다.

이 붕수에 속한 붕수군(烽燧軍) 인원은 『강화부지』(1783, 정조7)에 붕수군 95명, 붕수장 2인, 감관 10인, 감고 2인, 오장 5인, 군 40인 등 총 154명의 많은 인원이 배속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증보문헌비고』(1770)에는 제5로 '개화산붕수'에 최종 전달되는 직봉의 '냉정산

봉화' 명칭으로 양천 '개화산봉수'에 최종 응하는 봉수며, 같은 군의 '남산봉수'와 함께 경기수사 소관의 봉수였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 ‘북성산봉수’가 ‘냉정산봉수’로 바뀐 이유

1910년 『금릉군지』<sup>11)</sup>는 ‘북성산봉수(北城山烽燧)’에서 ‘냉정산봉수(冷井山烽燧)’로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금릉군지』(1910) <봉수>편에 “군내면 북성산과 검단면 백석산과 군내면 냉정산과 같은 면 도당산(都堂山)에는 예전의 봉수대가 남아 있다.

북성산에 있는 봉수는 장릉(章陵)을 봉할 때 도당산<sup>12)</sup>으로 옮겨 설치했다. 도당산 봉수대는 이성원(李性源)<sup>13)</sup>이 향교를 옮길 때 냉정산으로 옮겨 그 안산(案山, 집터나 뒷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삼았다. 개국 503년 갑오년(1894) 이후에 폐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북성산봉수는 ‘북성산(장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당산’으로 옮겨지고, 다시 ‘냉정산’으로 이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성산에 있던 봉화대를 도당산으로 이전하게 된 원인은 인조 아버지와 어머니 능이 북성산으로 이전해왔기 때문이다.

11) 『금릉군지』는 1910년 군수 조동선이 완성했으나 처음 김상익이 고적을 정리하다가 사망하자 김포군 주사 이의락이 『금릉군지』라 명하고 서문을 썼다.

12) 『지명유래집』(김포군, 1995)은 도당산(都堂山)에 대해 “북변리 북편의 산에서 예전에 도당제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왔다. 천주교회가 있는 산이다. 높이는 해발 45m 정도”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잘못기술하고 있다. 천주교회가 있는 산에는 사직단(社稷壇)이 있던 곳으로 건국때 왕이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에 제사지내 풍요와 국가의 안녕을 빌던 곳이다. 사직단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할 목적으로 1911년에 철거하였다. 『금릉군지』에 기술된 봉수대가 북성산에서 도당산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지금의 천주교회가 있는 도당산이 아닌 김포향교가 있던 뒷산, 즉 김포초등학교 뒷산(현재 충혼탑이 소재)을 말한다. 이곳에서도 도당제를 올렸으며, 제사를 지내던 여제단(厲祭壇)이 있던 곳이다. 여제단이란 여귀(厲鬼) 곧 제사를 못받고 떠도는 못된 전염병으로 죽은 원귀(怨鬼)를 제사지내던 곳이다. 여제단이 있던 곳은 현 김포시립도서관(평생학습센터) 자리에 있었다.

13) 이성원(李性源, 1725~1790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1754년(영조 30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사(蔭仕)로 의금부도사가 되었다가, 현령으로 176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또한 사과로서 1766년 문신중시(文臣重試)에서 장원급제했다. 그뒤 병조좌랑·홍문관교리 등을 역임한 뒤 1778년(정조 2년)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1780년 선혜청제조를 거쳐 이듬해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86년 규장각 직제학을 지냈으며, 이듬해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1788년 우의정에 올랐고,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1789년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죽었다.



김포향교 명륜당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定遠君)이 1619년(광해군 11년) 12월 29일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1620년 2월 양주군 곡촌리에 장례를 치른 후 3년 뒤 큰아들 능양군(인조)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라 아버지 정원군을 '대원군'에 봉했으며, 묘가 원으로 추송되어 흥경원(興慶園)이라 했다.

또한 1626년(인조 4년) 1월 14일 인조의 어머니 구씨가 4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5월 18일 김포 성산의 언덕에 안장하고, 원호를 육경원(毓慶園)이라 했다. 그로부터 1년 후 흥경원을 이곳 성산으로 묘소를 옮기고, 원호를 흥경원이라 합하여 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왕의 무덤이 모셔진 산 정상에 봉화대가 있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성산 봉화대는 도당산(都堂山)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후 1632년 이귀(李貴)<sup>14)</sup> 등의 주청에 따라 다시 '원종'으로 추존하여 능호를 장릉(長陵)이라 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성산도 장릉산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당산'은 어디에 있는 산을 말할까? 도당산은 현재의 김포초등학교 위 충훈탑이 있는 봉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북성산 봉화대는 도당산으로 옮겨

14) 이귀(李貴, 1557~1633년)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김류(金瑬)와 더불어 인조반정을 성사시켜 연평 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벼슬은 병조판서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정묘호란 때 왕을 모시고 강화에 피란 중, 화의를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졌으나 영조 47년(1771년)에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이 김포향교(金浦鄉校)<sup>15)</sup>를 걸포리에서 북변리 현 김포초등학교 남쪽 아래 위치로 옮길 때 또 다시 봉화대가 냉정산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향교가 이전해움에 따라 봉화대는 또 다시 냉정산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냉정산은 바로 공군부대가 있는 뒷산으로, 현재 충혼탑이 있는 건너편 산봉우리를 말한다. 현재 산 정상에는 군부대의 참호와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북성산봉수는 김포지역의 다른 봉수대와는 달리 2차에 걸쳐 ‘도당산’과 ‘냉정산’으로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당산으로 봉수대가 옮겨진 역사적 흔적은 다른 자료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김포지역의 봉수대는 고종 32년(1895) 윤 5월 9일에 군부의 지시로 전국 봉수대와 봉수군을 폐지함에 따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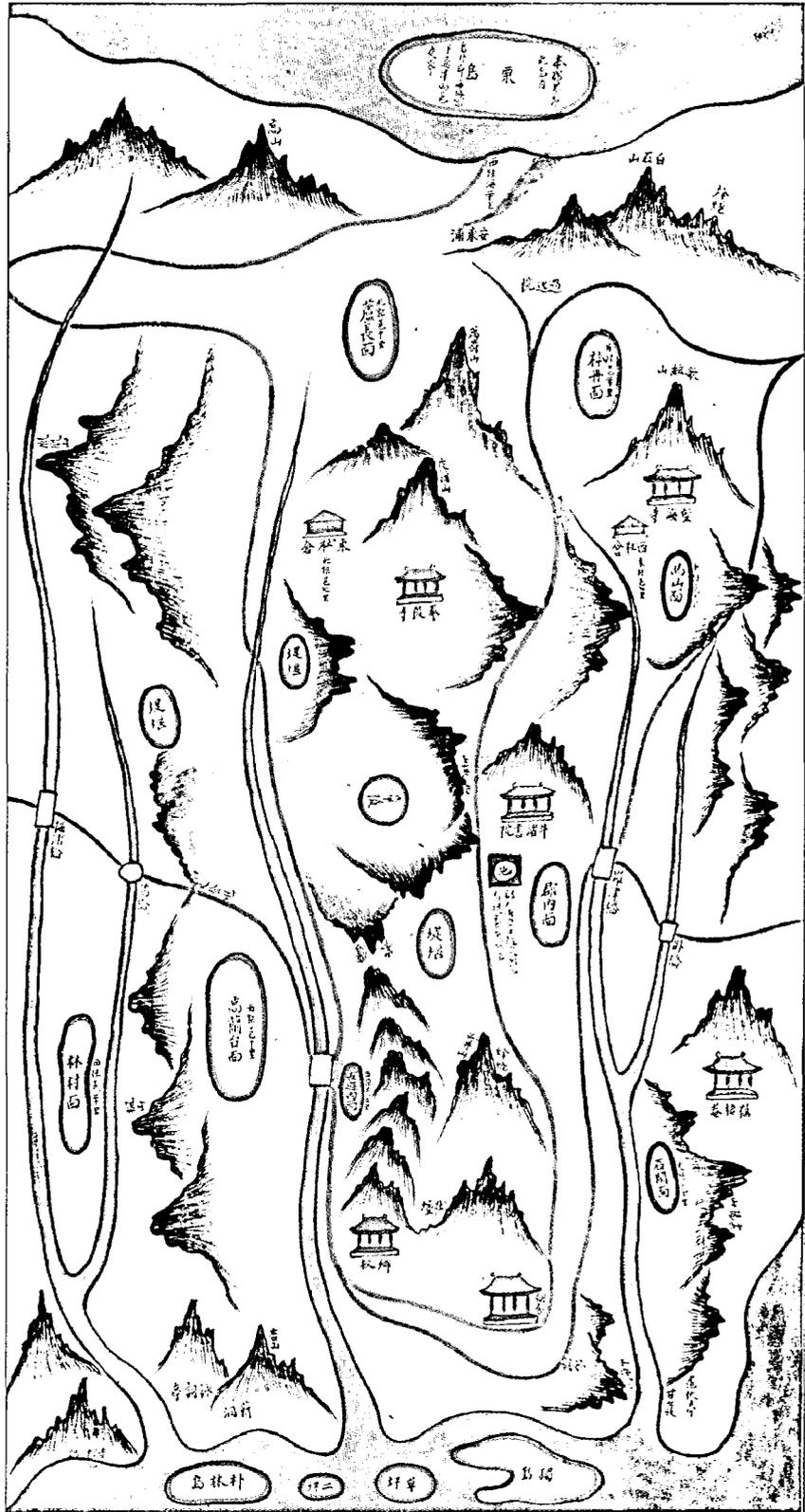
15) 김포향교(金浦鄉校)는 고려 인종 5년(1127년) 3월에 창건되었다. 이후 현청이 풍무동 장릉의 재실 터로 이전했을 때 향교는 향교곡(현 길훈아파트 자리)에 있었다고 전한다. 인조 1년(1623년) 인조반정 후 인조의 생부인 원종대왕의 능을 옮김에 따라 인조 4년에 청사를 전 청사 자리로 옮길 때 향교도 걸포리로 이전했고, 영조 47년에 지금의 북변리로 옮겼다(김포향교편찬위원회, 『김포향교지』 상권(상권)], 2004년 2월).

## 김포는 섬이 되었다

“김포에 섬이 있다”고 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포에는 섬이 많았다. 현재에는 공식적으로 4개 무인 섬, 즉 유도(留道), 부래도(浮來島), 대송여(大松嶼), 소송여(小松嶼) 등이 남아 있지만 김포에는 수십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반도였다. 더욱이 고양시와 김포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4개의 섬이 있었다.

우리에게 반도란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 좀 더 작은 규모라면 ‘태안반도’, ‘옹진반도’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반도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연결된 땅을 말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김포지역에는 ‘대곶면’, ‘월곶면’이라는 지명이 있듯이 바다로 돌출한 육지를 곶 또는 관(串, cape)이라고 부르고 그보다 규모가 크면 반도(半島)라고 부른다.

이렇게 김포는 지정학적으로 한쪽은 바다로, 다른 한쪽은 한강으로 둘러싸인 특별한 반도였다. 그래서 흔히 김포를 다른 말로 지칭할 때는 ‘김포반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김포반도는 수십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반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김포는 반도가 아니다. 경인아라뱃길 조성으로 김포반도가 섬이 되었다. 인천과 한강을 잇는 뱃길이 만들어지면서 김포는 더 이상 반도가 아닌 섬이 되었다.



김포군 읍지

1871年(高宗8) 列邑地圖騰上令에 따라 1872年(高宗9) 京畿道 金浦郡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彩色地圖. 그림 하단 한강에 4개의 섬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부터 박말도, 이평, 초평, 독도

## 한강에는 4개의 섬이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김포현〉편에는 “조도(助島)는 현의 북쪽 강 한가운데 있는데, 선공감(繕工監)의 풀밭(草場)이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김포현’이란 현재의 김포 1, 2, 3동(감정동, 북변동, 사우동, 풍무동, 운양동, 장기동, 걸포동)과 고촌면,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을 말한다. 김포현에서 북쪽 방향의 강, 즉 한강의 한가운데 조도(助島)라는 섬이 있는데 조선시대 토목과 수리를 담당하던 선공감(繕工監)이란 관청에서 갈대를 채취하던 곳이라는 뜻이다. 이 조도라는 이름의 섬은 ‘초평(草坪)’으로 불린다.

한강에는 조도라는 섬 이외에 1872년도에 편찬된 조선 후기 지방도인 ‘김포지도’를 살펴보면 감암포(지금의 운양동 샘재마을 앞 포구) 앞 한강에 독도(獨島)라는 섬이 표시되어 있다. 독도는 ‘오염’, 혹은 ‘고도(孤島)’<sup>1)</sup>로도 칭해졌으며 원래 그곳에 마을이 있었으며 예전에는 이곳에서 고양군(현 고양시) 이산포로 가는 나룻배가 기착하는 나루터가 있었다. 하지만 을축년(乙丑年) 대홍수 때 이 섬이 사라진 것이다. 을축년 대홍수란 일제시대 때인 1925에 일어난 네 차례의 커다란 홍수를 말한다. 1925년 7월 6일부터 15일 동안 폭우로 김포반도는 물바다가 되었고,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 280mm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120여 채의 가옥 유실, 200호의 가옥 전과, 300호의 가옥 반과, 사망자 20여 명, 부상자 20명, 전답 침수 100여 정보와 고촌읍 이화리, 전호리 앞 제방, 흥도평 제방이 붕괴되었다. 이후 1927년부터 을축년 대홍수로 무너진 한강 제방을 다시 쌓기 시작하여 고촌읍 향산리, 김포면(김포2동) 운양리 천현수문까지 6km, 고촌읍 신동에서 김포면 운양리 천현마을까지 약 6km, 양촌읍 누산리부터 하성면 봉성리까지 약 6km를 더 쌓았다. 이때 김포면 북변리(북변동) 황금교



1925년 을축년 한강대홍수로 무너진 김포제방을 쌓는데 독도 섬의 흙을 옮겨 사용해 독도가 사라졌다.



고촌읍 신곡6리 한강변 신곡양수장과 김포대교 사이 백마도(박말도) 전경

1) 고도(孤島)는 독도섬의 다른 이름이다. 이 섬으로 현 김포대교(양화도 하류)로부터 김포시 하성면 입진강 입구까지를 ‘고도강’으로 부른다.

부근의 산과 걸포리(걸포동) 소재의 독도 (오금산)를 파서 제방을 쌓았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독도라는 섬이 사라진 것이다.

다음으로 조도 옆에 이평이라는 섬이 있었음을 1899년에 편찬된 위의 지도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sup>2)</sup> 이평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월곶면 보구곶리 산 1번지의 유도섬

또한 고촌읍 전류리 앞(현재의 김포대교 밑) 박말도(朴抹島)<sup>3)</sup>라는 섬이 있었다. 일명 백마도로도 칭해지는데, 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1847년(헌종 13년) 박말도에 관해서 섬이 계속 커지므로 섬의 크기를 측량해서 조정에 보고한 내용이 규장각 문고에 보존되어 있는바, <김포사복시 박말도초평니(金浦司僕寺朴抹島草坪泥)>란 3장으로 된 문건이다. 여기서 사복시(司僕寺)란 조선시대 궁중의 마필이나 목장을 관리하던 기관으로 이 박말도에 말 목장이 있었는데 토사 퇴적으로 섬이 커져서 이를 측량해 보고한 내용이다.

1842년(헌종 8년)의 『김포읍지』에는 “김포군에 목장은 없으나 사복시에서 말(馬) 한 필을 분양받아 기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말을 박말도에서 길렀던 듯하다.

## '유도' 와 5개의 작은 '서(嶼)'

우리는 섬 지역을 칭할 때 도서(島嶼)지역이라고 말한다. 도서란 크고 작은 섬을 말하는데, 큰 것은 섬, 작은 것은 서라고 칭한다. 김포지역에는 하성면 시암리 오른쪽 한강 하구 앞 한강에 신서(新嶼), 시암리(영촌) 앞 한강 하구에 돌곶서(突串嶼), 와

2) 1899년(광무 3) 전국 읍지상송령에 의해 만들어진 읍지(邑誌)인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에 한강변에 4개의 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 읍지의 필사의 저본이 된 것은 1842년(헌종 8)의 『京畿誌』 <奎 12178> 제2책 소수의 <金浦郡邑誌>이다. 다만 水田·糶糶·田稅·大同·均役·俸廩·軍兵·社還米의 조항이 첨가되어 있다. 이 가운데 均役·俸廩 두 조항은 1871년(고종 8)의 『京畿邑誌』 <奎 12177> 제1책 소수의 <金浦郡邑誌> 말에 첨부된 邑事例의 내용과 같으며 그것을 저본으로 했다. 進貢·糶糶·俸廩·軍兵조에 '甲午以後無'·社還米條에 '一百石甲午劃下' 라는 註記가 붙어 있는데서 1894년 甲午改革 이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 오류도(梧柳島)로도 불린다. 고촌면 신곡리 영사정 앞 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약 1천 평 규모의 무인도다. 현재 섬 위로 김포대교가 지나간다.



1872년 통진부지도, 사진 왼쪽 상단에 월곶면 유도섬과 사진 오른쪽 상단 하성면 시암리 지역에 섬이 표시되어 있다.



대곶면 신안리 덕포마을 염하수로에 위치한 부래도(부락산, 부렴산)

서(瓦嶼), 월곶면 강령포구 옆 서(嶼), 그리고 보구곶리 앞 평화의 소<sup>4)</sup>가 떠나려 왔던 유도(留島)와 그 옆으로 노고서(老枯嶼)가 있었다. 유도는 55ha(16만 7,207평) 규모로 행정구역으로는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 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임진강, 염하강, 예성강이 한강과 합류하는 곳으로 한강의 하구가 끝나는 법정 지점이다.

유도는 일명 ‘머무루섬’으로 불리며, 육지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이 섬은 까마득한 옛날 홍수에 떠나려 오다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전설과 함께하며 ‘머울은 섬)머무루 섬’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도(巳島)라는 한자 지명이 사용되기도 한다. 섬의 형태는 개가 누운 모양이라 하는데, 서쪽이 머리에 해당한다고 전해온다. 입과 코에 비견되는 부분에는 동굴이 있고, 그 속에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전해오는데, 명당이라서 “팔정지하구묘하(八井之下九墓下)”라 불렀다.

‘추여’ (싸렘)는 마을 서남쪽 염하수로변에 있는 원래 섬이었던 곳이다. 해발 14.4m의 측량기점인 삼각점<sup>5)</sup>이 있다. 미도(米島)는 한자 지명이고 다르게는 ‘쌀섬’이라고도 부른다. 1871년(고종 8년)에 집필된 『통진읍지』에 ‘추여’라고 기록된 것을 참고하면 아마도 ‘싸리염)싸렘’으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1996년 집중호우로 그만 떠나려가던 두발배기 송아지 한 마리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바로 그곳이다. 비무장지대 안이라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라 송아지는 굶주림 속에 아위어갔고, 보다 못한 우리 군이 북한 군과 극적인 협의 끝에 이 섬으로 들어가서 송아지를 구출했다. 송아지는 1998년 제주도 출신 암소를 짝으로 맞이하여 7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2006년 자연사했다. 분단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평화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사건이다.

5) 삼각점이란 삼각측량이나 3번측량에 의하여 수평위치가 정해진 점. 삼각점은 1910년부터 1918년에 일본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토지수탈을 위한 지적도 제작과 기간산업 건설 및 군사적 이용을 위한 1:50,000 지형도 제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삼각점을 설치했다.

## 부래도와 서해 바다에 뜬 작은 섬들

김포반도 서해 안쪽에 있는 섬과 암초들을 살펴보자. 먼저 부래도(浮來島)라는 섬이 있다. 위치는 대곶면 대명포구(대명항)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5km 정도 지점인 대곶면 신안리 덕포 앞 바다에 있다.

옛 둔대가 있었다는 자리 앞의 염하(鹽河,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수로다. 강화해협이라고도 한다)수로에 있는 약 6천 평 규모의 섬인데, 한강물을 따라 떠내려 왔다고 하여 ‘부래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섬 안의 산에는 성터도 남아 있는데, 부락산, 부렴, 부렴산, 부렴섬 등이 부래도의 다른 명칭이다.

1487년(성종 18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 이 섬이 기재된 이후 『통진읍지』들은 현의 남쪽 23리(송도는 24리)에 ‘항무이도’가 있는데, 둘레가 4리(송도는 3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1864년(고종 원년)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항산도(缸山島)’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고려 때 ‘항과강(缸破江)’이라 했는데 삼남지방의 선박들이 지나다가 정박하던 곳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석(註釋)을 달아놓



월곶면 보구곶리 싸림(추여, 미도)

았으며, 그 주석에는 덧붙여 부래도는 ‘부락산’ 이라고도 했는데 항산(缸山)의 남쪽에 있고 썰물 때면 육지와 연결된다고 하고, 송도는 항산도 옆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름섬’은 거물대 1리(곡촌) 마을과 수청산 사이에 있던 작은 언덕으로 된 섬으로 오리가 잘 내렸다고 하여 ‘오리섬’이라 부른다. 또한 대보름날 떠나려 왔다가 하여 ‘보름섬’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담도 있다.

‘박마도(대벽 4리)’는 예전에 섬이었는데 광복 이후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이 섬에서 양촌읍 학운리 삼도까지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가 조성되어서 마을이 번성했다고 한다. 통진부 관련 옛 문헌에는 ‘방마도(放馬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포내여(박마도)’는 서남쪽의 예전 섬으로 고유 지명으로는 ‘개앗섬’이라 하는데 개펄 밭에 있는 섬, 즉 ‘개밭섬>개앗섬’이 된 것이다.

‘가여’는 멩에섬이라 부르며, ‘멍염’이라고도 한다. ‘대송여’는 ‘가여’ 서남쪽에 있는 섬, 그 남쪽에는 ‘소송여’가 있다. 솔섬, 솔엽송이, 송염, 송도(松島) 등으로도 불려왔다. 본 섬의 길이는 1km 정도인 데 비해 폭은 200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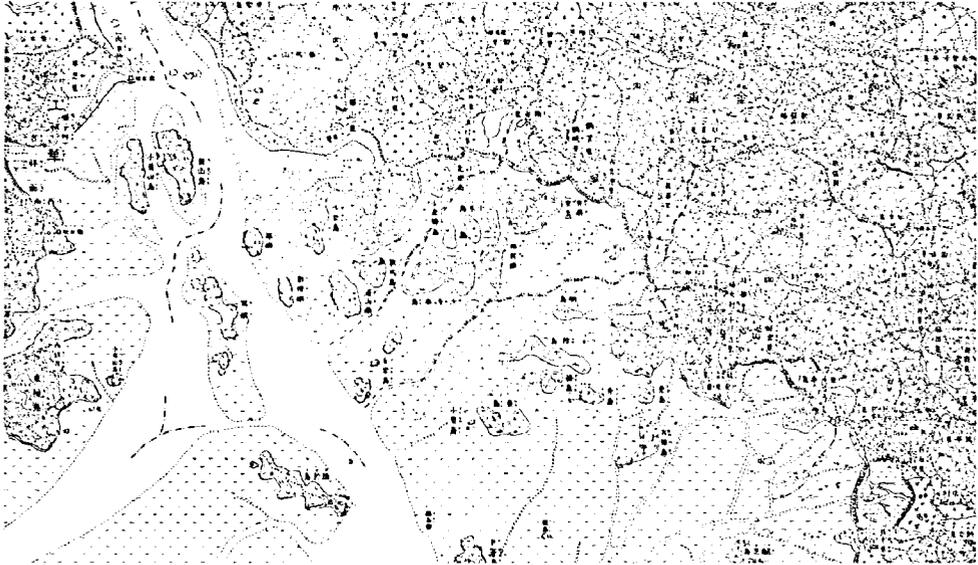
대벽3리(대곡)의 ‘되노르지’는 ‘사암도’ 서편에 있는 예전의 섬으로, 현재는 간척지의 끝 부분이 되는데 ‘되누루지’, ‘되루지’ 등으로 불렸다. 한자 표기는 도루(都樓)여로 높다는 뜻의 다락 또는 달(達) 계 ‘의 지명인 듯하다

##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양촌읍 섬들

‘학운4리’ 마을로 삼도(三島) 2구(二區)는 북편 들판 가운데 있는 예전의 섬이 서해안 제방 축조로 육지로 되면서 육토 한가운데 있다. 해방 이후 간척사업, 6·25 후 월남한 실향민들이 입주하면서 대대적 간척사업이 벌어진 ‘삼도2구’는 ‘매쟁이(馬場)’ 서편의 예전의 섬으로, 이곳도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어 동서로 길게 걸쳐 있다. ‘삼도1구’는 ‘매쟁이’와 한 덩어리로 된 예전의 섬으로 삼도 중 두 번째 섬이다. 매쟁이는 삼도 1구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나라의 말을 기르던 마장(馬場)이 있었다.

‘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는 ‘안석도(安石島)’는 매쟁이 남쪽 끝에 붙은 예전 섬으로 작은 매쟁이 마을이 있고 그 산을 ‘쪽박산’이라 부른다.

‘안암도(安岩島)’는 삼도 2구 서남쪽 750m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다. ‘굴펄’, ‘구비펄’이라 불렸다. ‘구비염’은 안암도 서남쪽 500m 정도에 있는 작은 두 개의 섬이었으나 육지가 되었다. ‘송장섬’은



〈1916년 김포군 지형도〉 김포군 대곶면, 양촌면, 검단면 일대 섬들이 있었으나 간척지 개발로 일부섬을 제외하고 육지로 변했다.

‘싸렷’ 서편에 있는 예전의 작은 섬으로 논 한가운데 떠 있는 듯이 자리잡고 있다. 흡사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송장섬’이라 불려왔다.

‘첫섬’은 학운6리다. 이곳에 나란히 있는 세 개의 섬 중에서 육지 쪽에서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첫섬이라 불렀고 ‘보도(寶島)’, ‘보서(寶嶼)’라고 불려오던 섬이다.

## 검단면에만 12개의 섬과 암초

지금은 인천광역시 검단동이 되었지만 1995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김포군 검단면이었다. 이 검단면 오류4리<sup>6)</sup> 반월촌과 오류5리 금호동에도 크고 작은 섬들이 있었다. 이들을 간략히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달곶’은 바락고지 끝에 있는 예전의 섬으로 ‘월섬’이라고도 부르는데, ‘곶’은 작은 규모의 바위섬을 뜻하므로 ‘담곶(담)달곶’으로 된 듯하다. 하지만 월섬이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달(月)곶’을 ‘달곶’이라고 써왔으리라 추정하기도 한다. ② ‘반월도’는 빗점 북편에 있으며, 제방이 없던 시절에는 섬이었다. 또한 ③

6) 1789년(정조 13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법정리인 고잔리(高蠡里)가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자연촌인 반월촌, 오류동, 봉화촌, 대촌을 통합해 오류리로 바꿨다. 금호동은 6·25 전쟁 후 실향민들이 개펄에 제방을 막고 개간을 하고 입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간척사업으로 김포시 대곶면, 양촌면과 검단면(현 인천광역시)의 섬들이 육지로 변했다.(위성사진)

‘육도(陸島)’는 오류농장 안에 있는 예전의 섬이고, ④ ‘추도’는 육도 남쪽에 있는 예전 섬으로 ‘짜리섬’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⑤ ‘승도(升島)’는 ‘추도’ 남쪽에 있는 예전 섬으로 ‘되섬’이고 ⑥ ‘고도’는 ‘육도’ 서쪽의 섬이다. ⑦ ‘명도(明島)’는 육도 북쪽에 있던 섬이고, ⑧ ‘울도(栗島)’는 육도 서남쪽에 있던 비교적 큰 섬으로 중앙에는 해발 65m 높이의 산이 있으며 서편의 작은 섬은 ‘소울도’라고 불렀다. ⑨ ‘복숭아섬’은 울도 동남쪽 약 1.7km 정도 거리에 있던 복숭아 모양의 섬이고, ⑩ ‘거침도’는 울도 서남쪽 1.7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섬으로 현재 서해안 제방의 끝이 이 섬을 지나며 높이 33m의 산도 있다. ⑪ ‘매도(梅島)’는 거침도 서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매섬’이라고도 부른다. ⑫ ‘토도’는 승도 동쪽에 있던 섬, ‘길무두’는 토도 남쪽에 있던 섬이다.

이렇듯 김포반도는 수많은 작은 섬들과 암초들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유도, 부래도, 대송여, 소송여 등 4개의 섬만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인천시로 편입된 검단면을 포함하여 김포반도 주변의 서해바다와 한강

변에는 총 40여 개의 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총 40여 개의 섬과 암초들 중 일부는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으며, 암초 일부는 물에 잠기는가 하면, 아직 섬으로 존재하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섬도 일부 있다. 또한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밑에 있는 ‘백마도’라 불리는 섬은 일산의 자유로 공사 때 그 산을 파서 흙으로 썼기 때문에 섬의 흔적이 없어졌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이 김포반도를 둘러싼 한강과 서해바다를 40년이 넘게 철조망으로 둘러놓은 것이다. 이로써 김포는 수많은 섬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김포 주민들의 ‘바다와 강의 문화’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 조선시대 김포의 역(驛)과 옛길은?

김포에 철도가 생긴다. 경전철이니 중전철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어쨌든 김포지역을 관통하는 철도가 만들어지고 김포의 많은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김포에 처음으로 철도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철로를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역이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며, 어느 곳에 역이 들어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저마다 자기 동네로 철도가 지나가야 한다느니 역사(驛舍)가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김포시의 고민이 크다.



구한말 역참의 모습

옛날 조선시대 김포에도 역(驛)이 있었다. 앞으로 만들어질 역은 ‘전철’이 통행하는 역이지만 조선시대 김포지역의 역은 ‘말[馬]’이 준비되어 있던 곳이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 전달이나 관리의 행차, 물품 수송을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 기관인 ‘역참(驛站)’은 고려시대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선조 30년(1597)경 변방의 군사정세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파발망(擺撥網)<sup>1)</sup>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말을 타고 전하는 기발(騎撥)은 25리마다, 걸어서 전하는 보발(步撥)은 60리마다 1참(站)<sup>2)</sup>을 설치하여 기발은 그 우두머리인 발장(撥長) 1명, 군정(軍丁)<sup>3)</sup> 5명 및 말 5필을, 보발은 발장 1명과 군정 2명씩을 두었고, 참점(站店)<sup>4)</sup>이 있어 공용 출장자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우리가 보통 “한참을 가야 한다”는 말을 써왔는데 이 말이 ‘참’과 ‘참’ 사이의 거리, 즉 25리를 뜻한다.

이 역(驛)은 역원(驛院), 역참(驛站=관(館)<sup>5)</sup>, 우역(郵驛)<sup>6)</sup>으로도 불린다. 일종의 정거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운영되던 곳이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를 따라 여행을 하다가 쉬는 곳이 바로 역이다. 하지만 공무 여행자에게만 제공되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원(院)<sup>7)</sup>이나 주막 같은 것을 따로 운영하기

1) 파발(擺撥)이란 조선 전기 이후 변경(邊境)의 군사정세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의 시달사항을 변경에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통신망. 파발은 말을 사용하여 보다 신속히 전달하는 기발(騎撥)과 사람의 도보에 의해서 전달하는 보발(步撥)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7년(선조30)부터 조직하여 시행되었다.

2) 참(站)이란 조선시대의 통신 및 공용 출장자의 숙박시설. 발소(撥所)·정류소라고도 하며, 원래 중국의 역(驛)과 같은 뜻의 몽골어의 한역어(漢譯語)이며, 역과 같은 기능을 했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7년(선조30)경 변경의 군사정세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파발망(擺撥網)이 전국적으로 조직됨에 따라 기발(騎撥)은 25리마다, 보발(步撥)은 60리마다 1참을 설치하여 기발은 참마다 발장(撥將) 1명, 군정(軍丁) 5명 및 말 5필을, 보발은 참마다 발장 1명과 군정 2명씩을 두었다. 참에는 참점(站店)이 설치되어 공용 출장자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 참마다 아록전(衙祿田) 5결(結)씩을 지급하여 그 경비에 충당하도록 했다.

3) 군정(軍丁)이란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으로,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했다.

4) 임진왜란 뒤에는 참(站-조선시대의 통신 및 공용 출장자의 숙박시설)마다 참점(站店)이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뒤에 주점·주막으로 부른 거릿집으로 발전함에 따라 원은 점차 모습을 감추어, 전국 여러 곳에 ‘원’ 자가 붙은 지명만 남았다.

5) 역참(驛站) 또는 찰방(察訪)은 각 지역에 두었던 관직으로 역참(驛站), 역마(驛馬) 등의 마정(馬政)을 관리했다. 고려 때의 찰방사(察訪使)에 기원하며, 담당 지역에 대한 규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찰방이 관할하는 역도(驛道) 지역은 일반 수령(守令)의 관할 영역에서 독립한다. 마관(馬官), 역승(驛丞), 우관(郵官).

6) 우역(郵驛)은 신라·고려·조선시대에 공문서 전달, 관청 물건 운송, 공무를 띤 출장 관리의 숙박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국가의 육상 통신·교통기관이다.

7) 역원(驛院)은 조선 세조 때부터 역로(驛路)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일종의 여관으로 역제(驛制)와

도 했다. 조선시대의 역은 교통과 통신망의 근간이 되고,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兵曹)에서 관할했다.

## 술꾼들의 군침을 돌게 만들던 주막이 25개

“주막”하면 인심 좋은 주모를 떠올리고, 사극의 한 장면에서 “주모, 주안상 좀 봐 주게!” 하는 질펀한 주문과 수선스러움이 가득한 낭만의 장소로 기억된다. 이러한 주막은 우리 기억에서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총독부가 1911년 펴낸 『조선지리지』에 따르면 김포와 통진 지역에서 총 25개의 주막이 운영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sup>8)</sup>

우선 통진지역(양촌면·대곶면·월곶면·통진읍·하성면)에는 17개 주막이 있는데, 군내면(군하리·고막리·고양리·갈산리·포내리): ①원루주막(遠廬酒幕, 원모루주막) 통진군 군내면 고양포리, ②오리정주막(五里亭酒幕) 통진군 군내면 갈산리, ③읍내주막(邑內酒幕) 통진군 군내면 군하리, 보구곶면(성동리·보구곶리·용강리): ④산성주막(山城酒幕) 통진군 보구곶면 산성리, ⑤강령포주막(康寧浦酒幕) 통진군 보구곶면 강령포, 월여곶면(서암리·고정리): ⑥조강가리주막(祖江街里酒幕) 통진군 월여곶면 사명동(서암리), ⑦마원주막(馬院酒幕, 마라니주막) 통진군 월여곶면 위곡리(개곡리), ⑧조강리주막(祖江里酒幕) 통진군 월여곶면 조강리, 소이포면(가금리·신리·마조리·후평리): ⑨후평주막(後坪酒幕, 뒤뜰리주막) 통진군 소이포면 후평리, ⑩강감동주막(江甘東酒幕, 풀막주막) 통진군 소이포면 가작동(후평리), ⑪동촌주막(東村酒幕, 동녘말주막) 통진군 소



조선시대 주막풍경

이포면 동암리, ⑫마근포주막(麻近浦酒幕, 마근지주막) 통진군 소이포면 마근포, 봉성면(전류리·봉성리): ⑬전류리주막(顛流里酒幕, 절이장이주막) 통진군 봉성면 전류리, 하은면(수참리·하사리): ⑭봉성리주막(奉城里酒幕) 통진군 하은면 봉성리, ⑮수참리주막(水站里酒幕) 통진군 하은면 수참리, 고리곶면(송마리·석정리·신

같이 각 도에 통하는 길목이나 인기가 드문 곳에 세워 행려(行旅)에 편하도록 배려한 시설이었다. 원이 있던 곳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예전에는 일부러 한적한 곳에 원을 둠으로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도 했다. 따라서 원이 붙은 곳에는 지금도 번창한 곳이 많다.

8) 주막위치는 당시 주소로 표기함

안리·쇄암리·대명리): 바삭바위주막 통진군 고리곶면 쇠암리, 반이촌면(기현리·마송리·도사리·양촌면 흥신리): 조강신리(祖江臣里酒幕) 통진군 반이촌면 마송리.

또한 김포지역(김포 123동·고촌읍·인천 검단동)에는 8개 주막이 있었는데, 군내면(김포동): ①나진교주막(羅津橋酒幕) 김포군 군내면 감정리, 석한면(김포2동) ②장기리주막(場基里酒幕) 김포군 석한면 장기리, 검단면(인천 검단동): ③안동포주막(安東浦酒幕) 김포군 검단면 안동포, ④방축두주막(坊築頭酒幕, 방머리주막) 김포군 검단면 오류동, ⑤완정리주막(完井里酒幕)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⑥소당리주막(小堂里酒幕) 김포군 검단면 속사곶리(왕길리), ⑦속사리주막(束沙里酒幕) 김포군 검단면 속사곶리, 고현내면(풍무동) ⑧치막신리(治幕臣里, 디정간거리) 김포군 고현내면 신리(新里)라고 한다.

지역을 고증하여 넉넉한 주막거리를 재현해보는 것은 술꾼들만의 향수일까? 어르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옛 주막이 있었던 곳을 파악해보는 것도 지역의 향토 문화를 이어나가는 일 중의 하나일 듯싶다.

## 김포에는 다섯 개 정도의 역이 있었다

김포 어느 지역에 조선시대의 역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길을 통해 역과 역 사이를 오갔을까? 역이 세워졌던 곳과 김포의 옛길을 찾아가 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으로 김포지역의 역(驛)이 세워져 있음을 알리는 문헌은 『세종실록』 <지리지>다. <지리지>는 경기도 지역의 역(驛) 편제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중림도(重林道) - 경신(慶申), 석곡(石谷), 반유(盤乳), 남산(南山), 금수(金輸), 종생(種生)...”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중림도’란 경기도 지역 5개의 역 편제(중림도, 평구도, 도원도, 동화도, 경안도)의 하나를 말하는데, 김포를 지나 강화도 교동까지의 노선이다.

중림도의 출발지는 경신으로, 지금의 시흥시 과림동 ‘중림마을’을 가리킨다.



종생역 위치. 대곶면 율생3리 종생마을 전경(사진 중앙 산아래 부분이 역참이 있던 자리)



대곶면 율생리에 세워졌던 '종생역'이 있던 위치를 주인이 가리키고 있다.

석곡은 ‘안산시’를 말하며, 반유는 지금의 금천구 ‘독산본동’ 남문시장 부근을, 남산은 서울 ‘양천구’를, 금수는 인천 계양구 다남동 ‘역굴마을’을, 종생은 김포 시 대곶면 ‘종생마을(현 김포시 대곶면 율생3리 마을)’을 말한다.

이 노선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세조 6년(1460) 2월 5일자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김포 부분에 관련된 문장을 소개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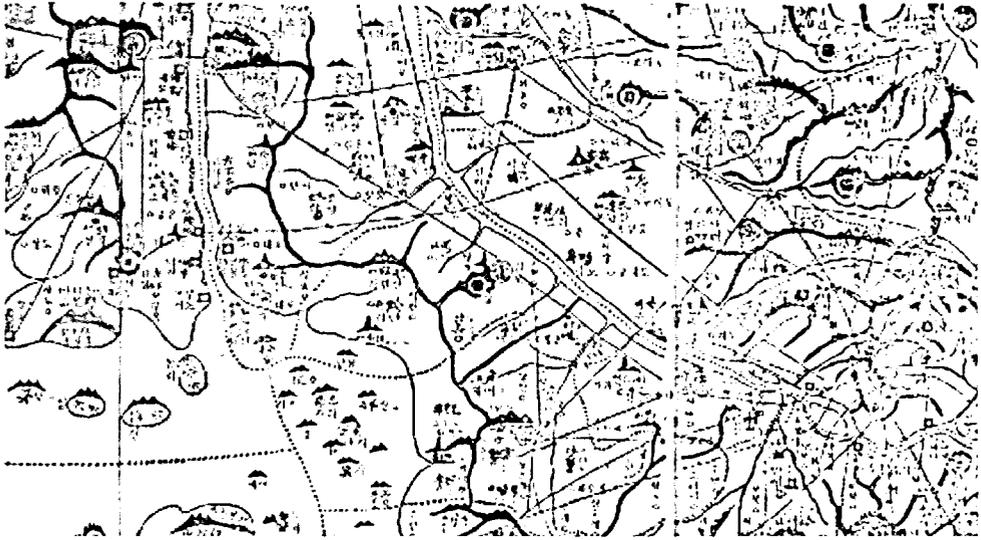
“... ‘경기의 중립도 소관인 인천부(仁川府)의 중립역(重林驛)·경신역(慶新驛), 금천현(衿川縣)의 반유역(盤乳驛), 양천현(陽川縣)의 남산역(南山驛), 통진현(通津縣)의 종생역(種生驛), 부평부(富平府)의 금륜역(金輪驛)... 총 23개 역(驛)을 합하여 하나의 도(道)로 하고 경기좌도(京畿左道)라고 칭하여 경기좌도 찰방(京畿左道察訪)<sup>9)</sup>으로써 이를 맡아 보게 하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이다.

역을 관장하고 있는 병조에서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제대로 순시를 할 수 없으니 역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김포의 종생역이 경기도 중립도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30년(중종 25년)에 기술된 『신증동국여지승람』 <통진(通津)역원(驛院)> 편에도 “종생역(終生驛), 전류참(顛流站), 조강원(祖江院), 갑곶원(甲串院), 온원산(溫院山)”이 있으며 같은 자료 ‘김포현’에는 “광인원(廣因院)<sup>10)</sup>”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금의 대곶면 율생리 종생역뿐 아니라 하성면 전류리에 전류참, 월곶면 조강리에 조강원·갑곶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옛 김포의 검단면 마전리; 검단사거리)에 광인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찰방(察訪)이란 조선시대에 각 도(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 마관(馬官)·우관(郵官)이라는 별칭이 있다.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 초기 전국에 23명의 찰방과 18명의 역승(驛丞)을 두어 총 537역을 관장케 했는데, 1535년(중종 30년)에는 역승을 없애고 전국의 큰 역에 40명의 찰방을 두고 이를 찰방역이라 했다. 작은 역에는 역장을 두어 찰방이 이를 관장했는데, 중요한 요소에는 겸(兼)찰방 12명을 두어 찰방의 비행을 감시하게 했다.

10) 단종 2년(1454) '세종실록지리지', 현종 8년(1842), 고종 8년(1871), 광무 3년(1899)의 '김포군읍지', 고종 원년(1864)의 '대동지지'에는 김포군·현에 역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종 25년(1530)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정호의 '동국여지' '김포편'의 우역(郵驛)편에는 각각 광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현(縣)의 서(西) 십오리(十五里)에 있다”고 한다. 또한 고종 8년(1871)의 '김포군읍지'의 기사 중에는 역원무(驛院無)라고 되어 있으나 조정에 올린 지도에는 검단면 지역에 과일원(過逸院)이라 적어 넣었다. 앞의 광인원, 과일원의 일치 여부가 의문시되지만 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강화대로' 노선

1760년(영조 36년)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중립 소속의 종생역은 부(府) 남쪽 20리에 있고, 말 7필, 역리(驛吏)<sup>11)</sup> 21명, 노(奴, 사내 종) 13명, 비(婢, 계집 종) 11명” 등의 규모가 적혀 있다.

『통진부읍지』〈통진(通津)〉(1694년 부로 승격된 이후) ‘역원(驛院)’ 편에도 종생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중립역에 소속된 종생역은 관부 남쪽 20리에 있다. 상등마(上等馬) 1필, 중등마 3필, 짐실는 말 3필이 있다. 마위전(馬位田)<sup>12)</sup>은 논과 밭을 아울러 41결(結)<sup>13)</sup> 75부(負)<sup>14)</sup>다. 역리(驛吏)는 21인이고, 사내 종 13명, 계집 종 11명이 있다” 고 역이 관리하던 말과 현황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1) 역리(驛吏)란 조선시대 역(驛)의 실무를 집행한 역의 향리층이다.

12) 마위전(馬位田)이란 역마(驛馬)를 기르는데 필요한 경비로 쓸 곡식을 가꾸던 밭이다.

13) 결(結)이란 논밭의 면적 단위다. 모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토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전척(田尺)의 길이도 토지 등급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양전척(量田尺)에 따라 1평방척(平方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이라 한다.

14) 부(負)란 토지 면적과 수확량을 동시에 표시하는 단위다. 파(把)·속(束)·부(負)·결(結)로 이루어진 결부법(結負法) 단위의 하나로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는 채택되어 대체로 전시과체제가 무너지는 고려 후기 무렵까지 토지의 면적을 표시했다. 1444년(세종 26년) 공법(貢法)이 실시된 뒤부터 그 면적은 각 등급의 토지를 측량하는 자로 사방 10척의 정사각형 면적이 되었다. 1902년(광무 6년) 100m<sup>2</sup>인 1a를 1부로 정했다.

또 김정호의 『대동지지(1861-1866)』〈통진(通津)〉 ‘역참(驛站)’ 편에도 “종생역[옛날에는 종승역(從繩驛)이라고 했다] 남쪽으로 25리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지지자료』〈통진〉 ‘역원명’에 “통진군 대곶면 종생리,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고문헌에 소개된 역 가운데 대곶면의 종생역이 김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옛 역참이 세워져 운영되던 종생역은 현 대곶면 초원지리(현 이천환경 터)에 세워져 운영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으며 다만 종생마을이라는 마을 이름과 종생역을 운영하기 위해 말을 사육하던 곳 ‘말매지’ 명칭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김포지역의 역 혹은 역참, 역원은 대곶면의 종생역, 하성면의 전류참, 월곶면의 갑곶원·조강원, 지금은 인천시이지만 구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의 광인원(구 검단면 사거리 지역)과 온원산(溫院山, 현재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음)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김포의 옛 도로는 어디였을까?

김포의 옛길은 바로 이 역과 역 사이의 도로를 말한다. 현재 김포지역의 중심도로는 48번국도다. 김포의 도로는 강화를 가기 위한 도로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쪽은 서울에서 강화(48국도)로, 다른 하나는 인천에서 강화로 가는 길이다. 옛길도 마찬가지다. 강화도 교동까지 가기 위한 도로망이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총 10개의 전국 도로망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6번째 도로망인 ‘강화대로’가 있다. 서울에서 강화 교동까지 160리 거리구간이다.

이 강화대로의 첫 출발지는 서울 종로구 평동(강북삼성병원 앞 고개마루) 돈의문(敦義門)이다. 돈의문에서 시작하여 마포구 합정동 당산철교 북단(양화도, 楊花渡)<sup>15)</sup>을

15) 양화도는 흔히 양화진(楊花津)이라 불리는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 북단에 있던 나루다. 조선 시대에 한양(漢陽)에서 강화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상에 있던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조운(漕運)을 통하여 삼남(三南) 지방에서 올라온 세곡(稅穀)을 저장했다가 재분배하는 곳이었다. 또한 한양의 천연방어선을 이루는 요지였으므로 진대(鎭臺)를 설치했다. 이 지역은 정자가 많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기 천주교도들이 순교한 곳인가 하면, 상해에서 암살당한 개화의 선각자金玉均(金玉均)의 시체가 청나라와 정부에 의해 능지처참당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 이 지역에는 양화진 순교자기념관과 한말 한국의 개화에 공헌한 외국인들의 공동묘지인 외인묘지가 있다.

거치고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교(안양천) 일대(철곶포)를 지나 강서구 가양동 일대(양천)와 강서구 개화동(개화산, 개화우)을 통과해 지금의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굴포교(굴포천)를 건넌다.

굴포천을 건너 고촌면 풍곡리 천등고개(천등현)를 넘어 김포 사우동을 거치고, 다음으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양릉포교)에 도착하여 통진읍 도사5리(백석현)로 넘어간다.

이후 김포지역으로 들어서면서 강화로 가는 옛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옛길과 다른 하나는 김포 시내(북변동)에서 응주물, 양촌읍 마산리(가현산), 구래리, 유현리, 대곶면 종생(울생리)리, 팔거리, 월곶면 고막리, 포내리 지역을 거쳐 가는 길이다.

통진읍 도사리에서 월곶면 군하리와 고막리(통진)에 도착한 후 배를 타고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강화대교, 갑곶진)에 내려서 강화읍 관청리(강화)를 지나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인화석진)에 도착한다.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교동 월진(교동읍내 있었으나 강화읍 월곶리로 이전)에 내려 교동 수영(교동면 읍내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김포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망을 요약하면, 지금의 고촌면 굴포천-천등고개-사우동-북변동/감정동(응정리)-양촌읍 양릉-통진읍 도사리-월곶면 군하리, 고막리를 거쳐 강화 갑곶진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다.

지금의 48국도 도로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강과 바다의 문화, 철책선에 갇히다



한강을 드나들던 배

## 강과 바다의 문화 철책선에 의해 사라지다

과거 물류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한강의 나루와 포구(浦口) 등의 활용 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 하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고 부르는데, 지명 중에 ‘포(浦)’자가 들어 있거나 ‘곶(串)’자가 들어 있는 지명에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음을 말한다. 나루는 한자 표기로 도(渡: 건널 도), 진(津: 나루 진) 또는 도진(渡津)으로 설명한다. 도(渡)는 주로 관용(官用) 나루를, 진(津)은 주로 민간 나루를 가리켰다.

김포지역의 나루터는 대부분 과거 수상교통 시대의 거점으로 삼국시대 또는 고려·조선시대부터 교역이 활발해 상권이 번창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남북이 둘로 갈라지면서 대부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철책선 안에 갇히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 월곶, 조강에 나룻배 있다

월곶지역의 옛 나루터는 6곳이다. 조강리에 ‘조강포나루’, 용강리에 ‘강녕포나루’, 성동리의 ‘산성나루터’, 보구곶리의 ‘싸렘(추여)나루, 고양리의 ‘원모루나루’, 포내리의 ‘대나루’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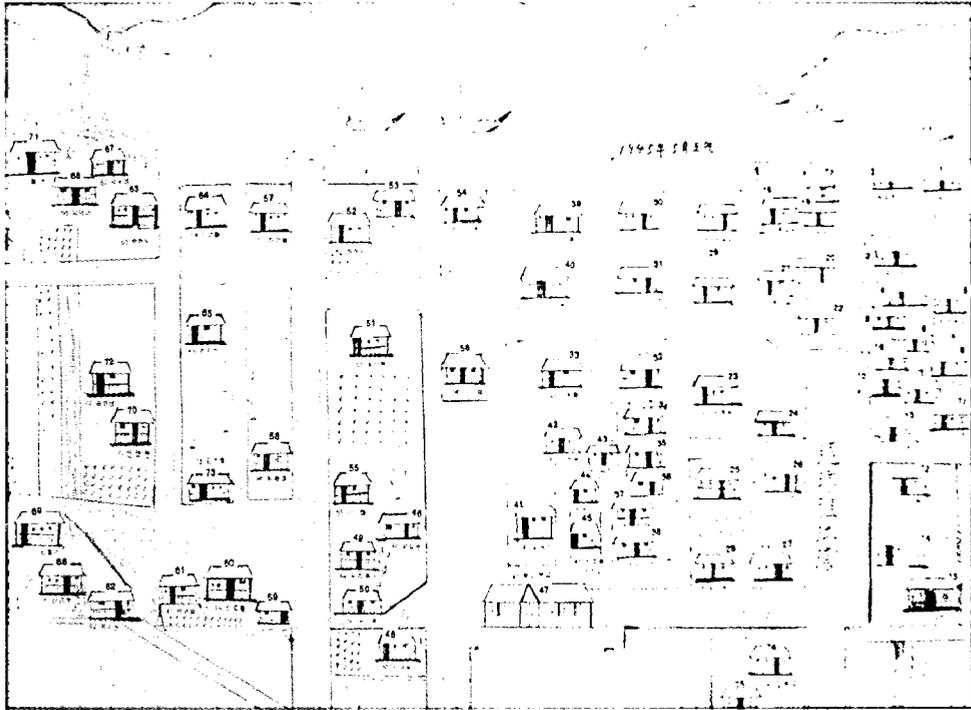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속에 김포지역의 나루터에 대한 첫 공식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통진현〉 편에서 “조강은 현 북쪽에 있다. 나룻배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조강나루’와 ‘강녕포 나루’다. 이 조강나루터에 대한 또 다른 기술은 『대동지지』〈통진현〉 ‘진도(津渡)’ 편에 “조강진(祖江津) 북쪽으로 13리에 있다. 개성으로 통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통진현〉편에서는 “조강도



조강포 산 아래가 조강나루터였다.



월곶면 고양리 원모루나루터가 있던 자리(사진 왼쪽 제방(오른쪽방향 끝지점))



조강나루 마을 모습. 1945년 당시 조강포 마을 모습이다. 6·25전쟁 후 마을이 소개되어 없어졌다.

(祖江渡) 고을의 동쪽 15리에 있는데 한강과 임진강이 이 강에서 합해진다”라며 조강나루터를 ‘도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강나루터 이외에 응강리에 있는 강녕포도 소개하고 있는데 조강포나루보다 자세하다. “강녕포(江寧浦) 북쪽으로 15리, 조강의 아래쪽에 있다.” ‘도서’ 편에는 “유도(留島) 강녕포 앞에 있는데, 서쪽으로 연미정(燕尾亭)<sup>1)</sup>과 대치하고 있다. 주선이 경유하여 정박하는 곳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통감부가 1908년 간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sup>2)</sup>에도 “통진군 북측으로는 대안(對岸)의 풍덕군에 이르는

1) 연미정(燕尾亭)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정자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 24호로 지정되었다. 황필주가 소유하고 있다. 최초 건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고려 제23대 왕 고종이 구재(九齋)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면학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조선시대 삼포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고 1512년 함경도 지방 야안(野人)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등 국가에 공로가 많은 황형(黃衡)에게 조정에서 세워 하사했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대부분 파손된 것을 1744년(영조20년) 유수(留守) 김시혁이 중건했고, 1891년(고종 28년) 조동면(趙東冕)이 중수했으며 1931년 유군성(劉君星)의 특지(特志)로 보수하는 등 여러 차례 보수했다.

2)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대한제국 농상공부 수산국이 1908년에 전 4권으로 간행한 책이다.

도진이 2곳 있는데, 하나는 조강포이고, 다른 하나는 강령포이다. 이 두 포구의 전면은 한강 및 임진강의 공통 하구로서, 강폭은 광대하지만 양우(兩雨)에는 물 흐름이 급격하여 물살이 잠잠해질 때가 아니면 도선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두 곳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물때를 기다리기 위해 계류하고 있는 배가 많다”며 조강포와 강령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은 물 흐름이 빨라 물때를 맞춰 대기하는 배가 많은 나루임을 전해주고 있다.

월곶면의 다른 나루터는 고양리의 ‘고양포(高陽浦)’라 불린 ‘원머루나루(원루포, 遠陋浦)’다. 원머루나루는 고양리 안말 서쪽 1km로 정도의 거리에 있고 염하수로에 연해 있는 포구마을이다. 원모루, 원포, 원동 등으로도 부른다. 예전에는 강화의 화도를 오고가는 나룻배가 있었다.

또한 포내리 포내(浦內)마을이 있다. ‘대나루’라고 하는데 한개, 호개라고도 부르며 한개, 호개가 큰 나루의 뜻이므로 대나루란 큰 나루의 뜻을 알 수 있다. 포내포(浦內浦)로도 불린다.

그리고 성동리의 ‘성동나루터’를 들 수 있다. 이곳은 1970년 강화대교가 건설되기 전 김포-강화 간을 배로 건너기 위해 사용되던 나루터로 조선시대 문신 박신(朴信)<sup>3)</sup>이 13년 동안 통진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사재(私財)를 들여 축조한 선착장으로 세종 14년에 완성되었다. 또한 보구곶리(浦口串里)에 싸렴(추여), 머무루섬이라는 유도(留島) 섬이 있는데, 이곳으로 배가 드나들던 싸렴나루터가

---

이 자료가 편찬된 시기는 대한제국이 일제 통감부의 지배하에 들어간 시기다. 이 때문에 농상공부에 투입 고용된 수산과장 등 일본인 관리들이 일제 통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한제국에 속한 섬들을 설치 답사해서 그 위치와 지세, 산물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 일본어로 출판한 것이다.

3) 박신(朴信, 1362~1444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조선 개국 후 원종공신에 책록되고 봉상시소경, 대사성에 이르렀다. 태종 때 대사헌, 공조판서, 호조판서, 찬성사·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세종 때 선공감 관리의 부정에 관련, 유배되었다. 본관 운봉(雲峰), 자 경부(敬夫), 호 설봉(雪峰), 시호 혜숙(惠肅). 정몽주(鄭夢周)의 제자다. 1385년(우왕 11년) 문과에 급제, 사헌부규정(司憲府糾正) 등을 거쳐 형조정랑(刑曹正郞)이 되었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고 봉상시소경(奉常寺少卿) 등에 이어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399년(정종 1년) 형조전서(刑曹典書), 1400년(태종 즉위) 좌부승지·승지에 이어 우대언(右代言)·대사헌 등을 거쳐 한성부윤(漢城府尹)·승녕부윤(承寧府尹)을 지냈다. 1405년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왕의 비위를 거슬러 아주현(牙州縣)에 유배, 이듬해 풀려나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에 기용되었다. 1407년 공조판서 등을 거쳐 호조판서를 지내고, 찬성사(贊成事)·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다시 찬성사를 지내고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 때 선공감 관리의 부정에 관련되어 13년 동안이나 통진현(通津縣)에 유배되었다가 1432년에 풀려났다.

있었다. 싸렘나루는 미도진(米嶋津)으로 불렸다.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월곶면 위곡리(개곡리) 교항포(橋項浦) ‘다리목기’가 소개되고 있다. 개곡리에 다리목기라는 나루가 있었음을 자료는 전하고 있는데 조강포구에서 조수가 밀려와 ‘밀다리’까지 드나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개곡천을 말한다. 개곡리 지명은 일제가 ‘개야리’의 개자와 ‘위곡리’의 곡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이 나루는 조강포구까지 가기 위한 작은 나루가 아닐까 싶다.



월곶면 성동리 '성동나루터 (갑곶나루 석축로 선착장)

### 양촌, 황포돛배를 띄워라

양촌읍 지역의 옛 나루터는 두 곳으로, 대포리의 ‘대포’와 유현리의 ‘나루세기’다. 김정호의 『대동지지』〈통진현〉편에 “대포(大浦) 남쪽으로 30리에 있다. 김포 가현산을 나와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며 ‘대포’를 소개하고 있다. 대포는 지금의 양촌읍 대포리(大浦里)를 말한다. 이곳은 ‘향모포(香毛浦)’라 불려왔다. 대포1리는 향동(香洞)이라 했고, 대포2리는 황포(黃浦)라 불렸다. 그러나 이곳 모두가 서해안 지역 매립으로 포구가 사라졌다.

향모포는 『조선지지자료』에도 통진군 상곶면(대포리) 향모포리에 소재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다. 향모포리는 ‘상무지’로 불렸으며 나루터를 ‘상무지나루’로도 불렸다.

또한 양촌읍 유현2리 서현마을이 한강 조수가 드나들었고 배를 대던 나루터였음을 알려주는 명칭이 있는데 ‘나루세기’라 부른다. 서현마을 앞에 예전에 큰 개가 있었는데 그곳을 ‘나루세기’라 불렀고, 나룻배를 이용하다가 ‘권돌다리’를 놓은 다음부터는 ‘권돌개’라 불려왔다고 한다.

## 풍어제를 올리던 나루터

대곶면지역의 옛 나루터는 7곳으로 대벽리의 '어모루포구'와 '북동메', 송마리의 성포, 신안리의 덕포, 쇠암리 나룻개(바삭바위)나루터, 대명리의 '대명포구', 약암리의 '적암나루터'다.

대곶면 대벽5리 어호(漁湖)마을, 즉 '어모루포구'가 있었다. 이 마을은 예전 서해의 간척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일대에서 가장 큰 포구였다. 예부터 '어모루'라 불렸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어모노리포(漁毛老里浦)(어모루기)는 통진군 대과면(대곶면) 어모노리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기잡이가 시작될 때인 정월 초사흘날 마을 뒷산인 당재에서 용왕제를 지내왔다.

또 어모루 앞 500m 지점에 섬이었던 북덕도(北德島)가 있다. 이곳은 제방을 쌓으면서 섬이었던 것이 내륙의 낮은 등성이가 됐다. '북동메'라 부른다. 이곳은 조감(潮減, 초8일, 23일) 때 포구로 사용되던 곳이다

그리고 송마2리 성포(城浦)마을의 '조구나루터'가 있다. 예전에 조깃배가 드나들던 포구였다고 하여 '조구나리'라고도 부르는데 집 한 채가 있었다고 한다. 쇠암1리 구룡촌(龜龍村)마을에는 '나룻개' 나루터가 있는데, 구룡촌의 해변 마을로 예전 강화도의 광성진으로 건너가는 나루가 있었다.

『조선지지자료』에 '바삭바위나루'라고 기록된 것이 있는데, 나룻개의 안쪽은 안나룻개, 바깥쪽은 바깥나룻개라 부른다. 신안리 덕포(德浦)마을의 포구다. 예전에 포구가 있어서 인천이나 서울로 향하던 운반선, 어선들이 기착했기 때문에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덕포는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1597년) 영의정 유성룡이 수군 강화책을 상소한 내용 중에 덕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수군(水軍)이 주둔하는 포구였음을 알 수 있다.



대곶면 대명항 앞바다에서 풍어제

대명3리 한정(寒井)마을도 포구이다. 『조선지지자료』의 <포구>편에 “전막(全幕)이 대명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것이 이 마을 이름으로는 처음 등장한다. 여기서 전막(全幕)은 점막(店幕)이다. 즉, 예전에 음식을 팔고 나그네를 유숙시키던 집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식사하는 곳을 ‘한바’라 하는데, 이것이 ‘한정(停)’이 되었다가 ‘한정(寒井)’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한다. 한정마을은 대명나루, 대명포구, 전막, 점막, 점막개로 부른다. 최근 대명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곶면 약암1리 마을의 ‘적암(赤岩)포구’도 있다. ‘붉은배’로 칭해지기도 한다. 변성 퇴적암의 색깔이 붉어 인근의 토양이 모두 붉은색을 띤다. 붉은배, 적암으로 부르는 이 바위는 거북의 형상을 한 큰 바위였으나 풍화되어 많이 부서졌다. 바로 바위 앞이 포구였다.

### 하성, '주모, 배들어왔나봐'

하성면 지역의 옛 나루터는 여섯 곳이다. 하성면 석탄4리 곡촌동(谷村洞) 마을을 들 수 있다. ‘풀막’이라고 하는데 가작동(후평리)남쪽 한강변 산부리 지역을 말한다. 한강 제방이 없던 예전에 이 마을까지 배가 드나들었는데, 배를 대고 술을 마시던 주막이 있었는데 현재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 그곳이다. 그 앞의 논은 ‘풀막주막’이라 부른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강감동주막(江甘東酒幕)’이라 기록하고 ‘풀막주막’이라 고유지명을 달았다.

또한 시암2리 영촌(鈴村)마을도 예전에 배가 닿던 포구였다. ‘개머리’라 하는데 감바위에서 동북편 등성이 너머에 있는 강과 접해 있던 산부리였으나 제방을 쌓았다.

마곡2리 신기(新基)마을도 포구였다. ‘나룻개’라 했는데 안골 서쪽에 있던 예전의 개(浦)이다. 다음으로 마근포(痲近浦)를 들 수 있다. ‘마근개’라 하는데 부엉바위산 서남쪽에 있는 마근개 마을로 예전에는 포구로 큰 마을이었으나 6·25전쟁 후 현재의 ‘마음두’로 마을 전체가 이주했다. 여기서 ‘마음두’는 ‘신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이곳 나루는 강 건너 개풍군 임한면 정곶리 사이를 왕래하던 곳이었다.



하성면 석탄리 '풀막'. 배가드나들던 나루와 느티나무(사진) 앞에 주막이 있었다.

옛날 ‘마근포’라 부르던 곳이다.

또한 하사1리 중촌, 하사2리 사포(蛇浦)마을도 포구다. ‘배다리’라고 하는데 하사교 앞의 들에는 예전에 갯골이 있어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배다리라고 부른다. 그 일대의 들을 ‘배다리개’라 했다. 옛 지명 사포(蛇浦)가 현지의 지명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봉성1리 상동, 봉성2리 하동마을도 포구로서, 봉성리 주막 터가 있었다. 현 배수 펌프장 위 길옆에 있던 예전의 주막 터로 차씨라는 사람이 최후의 주인이었다고 한다. 『조선지지자료』에도 봉성리 주막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배가 드나들던 나루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류1리 내촌(內村)마을의 ‘전류정나루’가 있다. 낭모댕이 안쪽에 있던 예전의 나루터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이 나루와 함께 전류리 주막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왕래가 빈번했던 것 같다.

### ‘김포1동’에도 나루가 있었어

북변동 지역의 옛 나루터는 한 곳인데,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읍전포(邑前浦)’(읍읍기라는 이름의 포구가 북변리(동)에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당시 위치는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다. 현재 읍전포가 있던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배가 드나들던 걸포동 신향마을 ‘암우포’ (밤모통이)

걸포동 지역 옛 나루터는 두 곳인데, 하나는 걸포동 돌방구지라는 곳이다. 신향마을 동쪽 고새기 동산의 부리가 계양천과 맞닿은 곳으로 바위덩어리들이 능선에서부터 계양천까지 연이어 있었다. 지금의 걸포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이 위치한 곳이다.

『조선지지자료』는 이곳에 ‘암우포(岩隅浦)’(밤모통이기)라는 포구로 배가

드나들었다고 전해주고 있다.

또한 곽포리 동쪽 지금의 제방도로 부근에 섬이 있었다. 오염(五念), 고도(孤島), 독도(獨島)로 불렸다. 마을이 있었으나 을축년(1925년)에 없어졌다. 이곳에서 고양군 이산포로 가는 나룻배가 기착하는 나루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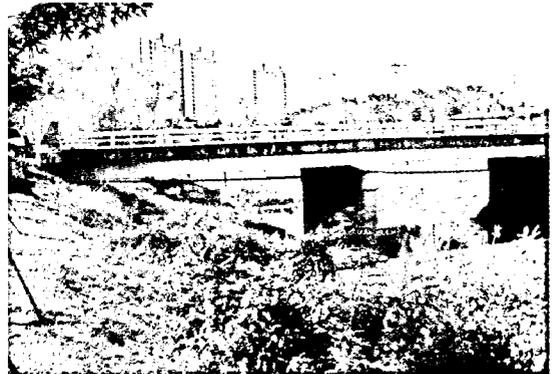
감정동 나진교(포) 지역에 나루터가 있었다면 믿어질까 싶다. 나진교는 다리를 놓은 다음부터 쓰기 시작한 지명이고,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명칭은 ‘나진포’였다. 나진교 아래로 흐르는 나진포천은 조수가 드나들기는 하지만 하사리, 즉 매월 보름과 그믐 때만 배가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개’로 불려오다가 음이 유사한 한자 지명인 나진포가 되었다.

### 사우동 지역 나루터

사우동(沙隅洞) 지역의 옛 나루터는 두 곳이다. 사우동은 조수가 드나들던 한강변에 위치한 까닭에 개펄에 모래가 많이 쌓여 ‘모래모퉁이마을’이라 했다. 모래모퉁이 마을을 한자명으로 한 것이 사우동이다.

사우동의 마분교(馬糞橋)가 있던 자리도 포구다. 지금의 사우지역 건영아파트 뒤편으로 흐르는 계양천 다리를 말한다. 일명 양수장다리라고 했는데 이 다리 밑이 암반이 있어 포구로 사용되었다. 육로로 말을 타고 이곳에 도착해 선편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곳에다 말을 매어놓다 보니 말이 똥을 싸 마분(馬糞), 그곳의 다리를 마분교라 불렀다.

『조선지지자료』에 ‘소평포(小坪浦)’(소골기)나루가 고현내면(풍무리) 신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신리는



사우동 팽아지깨다리(마분교)



운양동 감바위나루터



운양동 감바위나루터가 있는 감박산, 원안은 증봉 조헌 선생이 낚시를 했다고 전해지는 감바위

지금의 개양천 가기 전 농어촌공사 수로다리(사우교)다.

### 운양동 지역 나루터

운양동 지역의 옛 나루터는 두 곳이다. 하나는 운양1리(천현마을) 감바위 나루터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감암포’로 기재되어 있다. 감바위나루에서 고양군 이산포나 서울 마포를 오가던 나룻배가 정박하던 곳이었고, 광복 이후까지도 ‘감바위 주막’이 운영되었다. 감바위가 있는 산의 이름은 ‘감박산(해발 35m)’이다. 이곳

감바위에서 중봉 조헌 선생이 우국 충정을 달래며 낚시질을 했다는 감바위 전설이 서려 있다.

또 하나는 운양4리 대촌(大村)마을의 ‘운양나루’다. 위치는 지금의 용화사와 앞 삼거리에서 직전 왼쪽 지점이다. 예전 절말(지금의 용화사 아래마을)에 있던 나루로 나루가 기능을 잃은 현재도 지명은 여전히 운양나루로 남아 있다. 예전에는 서울 마포나루와 파주군 법곶리를 왕래하던 나루터였다. 소규모 어선의 기항지로 사용되었다.



고촌읍 쇄골나루가 있던 자리 (사진 속 군부대로 막혀있는 곳)

## 고촌읍 지역 나루터

고촌읍 지역은 옛 나루터가 세 곳이다. 고촌읍 풍곡리 지역의 쇄골나루(나룻개)는 ‘신동진(薪洞津)’(쇄골)으로 불린다. 신동(薪洞)은 풍곡4리 마을인데 소애, 큰말, 웃말로도 불린다.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전투에 임하면서 왜국의 전선(戰船)이 이 마을 쪽 산 아래 강을 지날 무렵 주민들이 장작에 불을 붙여 산 아래 강을 지나는 왜선에 던져 불살랐다 하여 ‘장작마을’이라는 뜻에서 ‘쇄골’이라 했고, 이를 한자 지명으로 신동(薪洞)으로 썼다고 한다. 한강 제방을 막기 전에는 한강물이 이 마을까지 올라와 배를 대곤 했으므로 배대이(渡船場)라고도 불렀다.

고촌 신곡양수장이 조성된 한강 쪽의 섬으로 백마도(=오류도, 梧柳島)도 나루터다. 옛 문헌에는 ‘박말도(朴抹島)’로 기재되어 있어 배가 드나들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전호리 마을의 ‘향주진(香洲津)’이다. ‘향주나루’로 불린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향주나루가 위치가 임촌면 전호리로 설명한다. 전호리는 제진리로도 불렀는데 옛 문헌의 지도나 읍지에는 제진리를 ‘제진도(濟津島)’라 기록하고 있다. 제진도는 “나루를 건너는 섬”의 뜻으로 한강 제방이 들어서기 전에는

전호리가 섬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통진읍 지역 나루터

통진읍 지역의 옛 나루터 흔적은 4곳이다. 우선 통진읍 도사 1리 속사(束沙) 마을을 들 수 있다. 예전 한강에 제방이 없던 시절에 한강의 조수가 이 마을 앞까지 밀려와 물결이 출렁거릴 때마다 땅이 패어나가 모래를 섬<sup>4)</sup>에 담아 묶어 토사의 유실을 막아서 속사(束沙)라고 했다고 전해온다. 때문에 배가 드나들 수 있었다.

수참(水站)리는 예전의 역참(驛站)으로 문헌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한강에 제방이 없던 시절 한강의 조수가 이 마을까지 드나들었기 때문에 나룻배를 이용해 고양, 마포 등을 통행했는데 조수 관계로 물때를 맞추느라 역처럼 쉬어가던 곳이라 하여 수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가현1리 가진포(佳辰浦)마을을 들 수 있다. 옛 지명 '가진개'는 이 마을 앞까지 한강 조수가 밀려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가진포'로도 불렸다. 동을산1리 갑곶마을도 있는데, 아랫말 남쪽의 곳이다. 예전에는 이곳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

4) 섬이란 짚으로 엮어 가마니보다 크게 만들어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쓰는 물건이다. 새끼로 낱을 삼고 짚으로 엮어 가마니와 비슷하게 만들어 양끝을 안으로 넣어 꿰맨다. 섬의 크기는 낱의 수로 따진다. 보통 5날섬과 7날섬이 있으며, 7날섬은 30말[차]이 들어간다. 섬은 용량을 계산하는 단위로서 1말의 10배를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주로 곡식이나 액체를 다룰 때 섬의 단위를 쓴다. 가마니가 대두(大斗) 5말이 들어간다. 그래서 2가마니를 1섬 또는 양석이라 한다. 섬은 10말들이가 보통이다. 소금섬·숯섬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 김포를 지켜낸 8개의 성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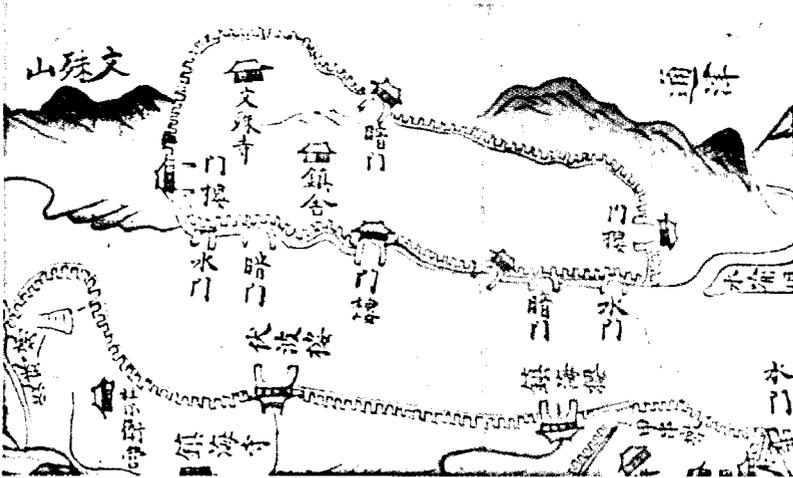


문수산성 성벽

김포에는 문수산성 이외에 7개의 성곽이 더 있었다. 하성면 동성산에 석축으로 세워진 동성산성, 대곶면의 수안산성과 대능리성, 송마리성, 김포 사우동의 북성산성, 장기동의 장기동성, 양촌면의 가현산성이 바로 그것이다. 총 8개의 성곽을 찾아나서 본다.

### 월곶면 문수산성

문수산성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와 포내리에 있는 문수산(해발 376m)에 축조된 석축산성이다. 문수산은 역사적으로 비솔산(比率山), 비아산(比兒山), 통진산(通津



문수산성지도: 『海東地圖』로 1800년 이후 1822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병인양요가 1866년에 있었으니까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 약 66~44년 전에 제작된 중요한 자료다. 이 해동지도의 강도(강화도)지역에서 문수산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山)으로 불리우며 김포에서 가장 높다.

강화의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 입구를 지키는 성으로 조선 숙종 20년(1694년)에 축성되었다. 이 성을 축조하게 된 동기는 병자호란(1638년) 때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봉쇄당하여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했

다. 청국에게 삼전도의 처욕을 당한 이후 강화도와 연결되는 길목인 통진의 갑곶나루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가 요구되어 문수산 서쪽 산록에 산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군의 내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가 이곳 문수산성에서 벌어진 바 있다.

『여지도서』에는

“성의 축성은 1693년(숙종 19년) 가을 임금이 이 산을 보고 강화도를 지키는 관방중지(關方重地)<sup>1)</sup>라 하면서 지도를 그려 바치게 했으며, 1694년(숙종 20년)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에 명령하여 둘레 5,529보의 성을 쌓게 하고, 별장(別將)<sup>2)</sup> 1명, 본

- 1) 관방중지(關防重地)란 국경 방비상 중요한 지역으로 관북(關北)·관서(關西)지역을 의미함.
- 2) 별장(別將)이란 조선시대 지방의 산성·나루(渡津) 등의 수비를 맡은 종9품의 무관직이다. 포구·보(堡)·소도(小島)를 비롯하여 파발마(擺撥馬)까지 관리했으며, 정원은 1명이다. 조선시대 경강(京江)나루의 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경강에는 광진(廣津)·삼전도(三田渡)·마포진(麻浦津)·노량진(露梁津) 등의 나루가 있었으며, 관부에서는 나루 이용의 편의와 관리를 위하여 관선(官船)과 진부(津夫)를 배치하고, 별장과 같은 책임자를 임명했다. 각 나루의 관선은 선적(船籍)에 기록하고 척수를 정하여 모든 군문(軍門)에 분속시켰으며, 별장이 검사, 감독했다. 송파의 별장은 광진·삼전도·신천의 관선을 동시에 관리하며, 수어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강의 별장은 훈련도감에, 노량진의 별장은 금위영에 소속되어 있었다. 양화도 별장은 공암과 철곳의 관선을 겸하여 관리했는데 어영청 소속으로 병조에서 임명·파견했으며, 각 군문은 별장을 자유로이 임명했다. 각 나루의 도선 및 내왕선이 파손되었을 경우, 다른 선박을 가진 사람이 이를 즉시 구출하지 않으면 별장은 곤장의 벌에 처하도록 했다.

부 중군(中軍)<sup>3)</sup> 감관(監官)<sup>4)</sup> 1명, 수첩군관(守堞軍官, 조선시대 수어청·총리영·총용청에 둔 군관) 90명, 총섭(總攝)<sup>5)</sup>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병장기를 보관하는 창고의 관리를 맡은 하급관리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민간인) 8명, 진군관(鎭軍官, 진의 군관) 20명, 사졸 56명 등으로 하여금 차례로 번(番, 숙직이나 당직을 서는 일)을 서게 했다.”

또한 “문수산성은 김포, 통진과 강화의 경계 지점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둘레 15리 129보(步, 한 걸음 정도의 거리, 1.2m 정도)에 첩구(堞口, 몸을 숨겨 적의 공격에 대비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인 성가퀴[堞]의 입구)가 1,273첩(堞), 문루(門樓, 성문의 위쪽에 지은 건물)가 3곳, 암문(暗門, 성벽에다 문루 없이 만들어놓은 문)이 3곳이다. 1728년(영조 4년) 가을에 개축하여 본부의 연성(沿城)의 관례에 따라 진영 소속으로 삼아 통진 속오군(東伍軍)<sup>6)</sup>이 그 성첩(城堞)<sup>7)</sup>을 나누어 관리하며 매년 7월 안에 류락(類落)한 곳을 맡아 수축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또한 '대동지지'에서는 “문수산성은 통진 문수산 서쪽 산록에 있으며 갑곶나루와 닿아 있고 강화도를 굽어본다. 속중 2년 축성하여 둘레 5,529보이며 서쪽, 남쪽, 북쪽에 문이 3곳 있다. 별장 1명을 두었다”라고 했다.

- 
- 3) 중군(中軍)은 고려·조선시대의 군대조직으로, 고려는 건국 초에 군대 조직을 전군·후군·중군·좌군·우군의 5군으로 조직하여 국방을 담당하게 하다가, 1391년(공양왕 3년) 전·후군을 없애고 중·좌·우 3군으로 개편,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라 했다. 조선시대의 경관직(京官職)에서는 훈련도감·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용청(總戎廳) 등에 둔 종2품관으로 대장에 버금가는 장군직이었으며, 외관직(外官職)에서는 절도사·방어사·통제사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는 장군직이었다. 각 영(營)에서 대장 또는 사(使)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
  - 4) 감관(監官)이란 조선시대에, 각 관이나 궁방(宮房)에서 금전·곡식의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던 관리를 말한다.
  - 5) 총섭(總攝)은 고려·조선시대의 승려의 직책이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의 나옹(懶翁)이 선교도총섭(禪敎都總攝)을 역임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다. 1566년(명종 21년)에 선교양종(禪敎兩宗)을 폐지하면서 판사직(判事職)도 없어졌다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8도(道)에 각 2명씩 총섭을 새로 두었다. 그 뒤에는 '조선 왕조실록'을 소장한 월정사(月精寺)·적상산성(赤裳山城)·각화사(覺華寺)·전등사(傳燈寺)의 주지를 총섭이라 했으며, 석왕사(釋王寺)·유점사(楡岾寺)·해인사·법주사 등의 주지도 총섭이라 불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에는 사찰의 주지를 대체로 총섭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때의 총섭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선발했다. 이들은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고 업무를 담당하며 사찰을 대표했다. 1899년(광무 3년)에 섭리(攝理), 1902년에 교정(敎正), 1911년에는 주지로 각각 개칭되었다.
  - 6) 속오군(東伍軍)은 역(役)을 지지 아니한 양인과 천민으로 편성한 군대다. 선조 27년(1594년)에 두었으며,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게 하고 나라에 일이 있거나 훈련할 때에 소집했다.
  - 7) 성첩(城堞)이란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말하는데 성가퀴라고도 한다. 이곳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한다. 비슷한 말은 보원(堡垣)·성첩(城堞)·여담·여장(女牆)·여첩(女堞)·치성(雉城)·치첩(雉堞)·타구(堞口) 등이다.

산성의 총 둘레는 6,201m, 면적은 64,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산성이다. 이 성은 1812년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으나 현재 해안쪽의 성벽과 문루는 거의 파괴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성면 동성산성 북벽전경

### 하성면의 '동성산성'

하성면의 동성산성은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석탄리 지점에 있는 동성산(해발 113m)의 정상부와 9부 능선(해발 100m 내외)을 이용하여 축조된 테피식(테두리의 '테'와 산을 뜻하는 '피'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산봉우리를 빙 둘러싸 쌓는 방식) 석축 산성이다.

동성산은 태산(해발 113m)의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솟은 봉우리에 해당되는데, 지리적으로 현재의 하성초등학교 뒷산이다. 산성의 둘레는 441m로 지금은 산성 내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문헌적으로 '동성산성'에 대해 기술된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성산 고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807척(尺, 1척을 30cm로 환산한다면 약 242m)이고 높이가 12척(약 3.6m)이었으나 현재 반쯤 무너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대동지지』(1862)에는 ‘동성고현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는 “동성산성은 동쪽 20리 지점에 위치한 석축으로 둘레가 807척이나 지금은 무너졌다”고 하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년)는 “『여지승람』에 동성산성 석축에 해당하는 성벽의 둘레는 약 700간(間·間, 1간은 10척, 약 245m)으로 완전하여 별모양을 이루고 있다. 둘레 200간의 석축 성지가 있는데 이는 앞 성지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설명을 통해 보면 다른 산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직선거리로 600m 떨어진 태산에 동성산성의 보조 산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동성산성을 ‘동성현성’으로 김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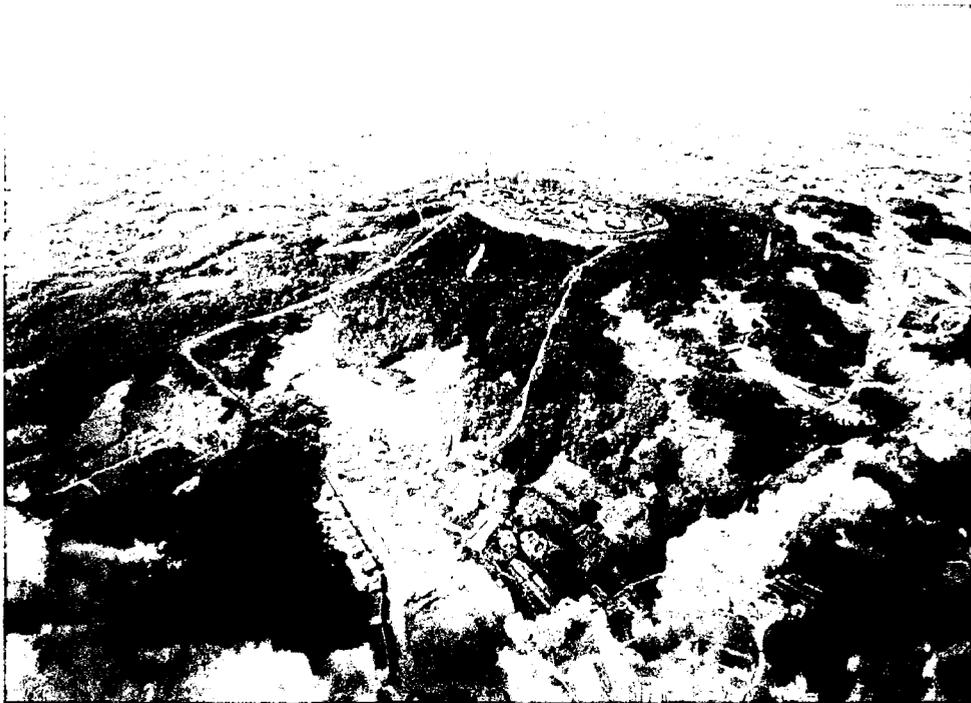
지로 보고, 삼국-통일신라 시기에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성격을 가진 교두보의 역할을 한 성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강 북안의 오두산성과 함께 교하면 일대에 1차 방어선을 구축하여 서해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적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축조된 관방 유적으로 규정한다.

## 대곶면의 '수안산성(守安山城)'

대곶면 울생리에 있는 수안산성은 수안산(燧安山, 해발 146.8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테피식 석축성을 말한다. '수안(守安)'이라는 지명은 이곳의 진산(鎭山)이던 '수산(守山)'에서 유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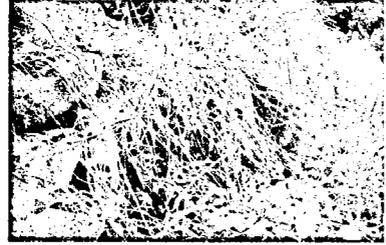
산 정상부에 조선시대의 봉화대가 있어 수안산성(燧安山城)이라고도 한다. 동남쪽에 산줄기를 따라 대능리성이 이어지고 있다. 산성의 서쪽으로는 강화도 남동편의 길상면으로 연결되는 대명나루와 손돌목이 있으며 해안 너머 강화도로 이어진다.

이 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각종 지리지에 전하고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산천예'와 『대동지지』(1862년)에서는 산성의 위치 및 현상에 대해 대한 기록이 있지만, 나머지 『여지도서』(1760년), 『세종실록지리지』(1454



복원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수안산성(조감도)

년, 『동국여지』(1656년), 『대동지지』(1862년) 등에서는 산성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봉수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수안산성 석축흔적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안산은 현의 동쪽 23리에 있다. 옛 석성이 있는데 둘레는 2리고 높이는 10척이다”로 기술되며 이미 고성(古城, 옛 석성)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1530년 이전에 이미 산성의 기능을 상실하고 봉수대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년)는 “수안산 성지로 낮은 토루(土壘, 흙으로 만든 보루, 즉 토벽) 약 400간이 잔존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적총람』(1977년)에는 “수안산성은 표고 140m의 수안산 정상부에 석축으로 쌓은 전형적인 삼국시대 산성으로 석축은 높이 5~10m의 험준한 요새를 구축한 것으로 한강 유역의 산성 중에서 아차산성(俄嵯山城)의 규모와 비슷하다. 일부 무너진 곳을 보면 석축의 두께가 1~2m이며 성 둘레는 약 700m이고 삼국시대 토기편, 외편 등이 많이 출토된다. 서해안 방어의 요새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며 후대 조선조에는 봉화대로도 사용된 듯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성곽은 수안산 정상부 아래 8~9부(해발 120~140m)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했다. 산성의 둘레는 78.5m이다. 성벽은 남벽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그 나머지는 토사로 인해 성벽이 덮혀 있거나 군사시설로 인해 파괴된 상태다. 남아 있는 성벽의 규모는 돌 벽돌을 10단(段)<sup>8)</sup> 높이로 쌓았는데 2.2m이다. 원래 성벽 높이는 3m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 대곶면의 '대릉리성'과 '송마리성'

대곶면 대능리 산42번지 일대에 있는 '대릉리성'이다. 이 성은 수안고현성, 수안폐현성, 대릉리토성이라고도 칭해진다. 이 성은 토축성으로 수안산 정상부(해발 146.8m)에 축조된 수안산성의 남쪽 계곡부 좌우로 뻗은 능선과 경사면 아래 평지를 이용하여 축조된 평산성이다.

8) 단(段)이란 지적(地積) 단위. 300평, 즉 1정(町)의 1/10을 말하며 약 991.736㎡이다.

이곳에 대한 문헌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대동지지』(1862년)에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안고 현성이며 둘레는 2리(里, 800m)이고 옛 토루(土壘, 흙으로 만든 보루, 즉 토벽)만 남아 있다”고 했다. 성의 규모는 400간 또는 720m로 기록하고 있다. 『대동지지』에는 “수안현의 옛 현성이다. 둘레는 2리며, 옛 토루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년)는 “성지(대곶면 대릉리: 수안산, 여지승람의 수안현 폐지로서 높이는 약 4척(1.2m) 또는 6척(1.8m)이며, 길이는 약 400간의 토루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능리토성 발굴조사지역(2005)

성의 전체 둘레는 토축(土築, 흙으로 쌓은 축대) 1,140m와 석성 구간을 포함하면 1,340m에 이른다. 성벽의 길이는 500m이며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1.5m다. 축조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1998년 지표조사 때 발견됐다.

송마리성은 대곶면 송마리 산230번지 일대를 가리킨다. 토축성으로 송마4리 입구에서 200m 정도 들어가면 현 도림교회 묘지가 나오는데 산길을 따라 100m를 가면 토성에 진입하게 된다. 토성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의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했다. 현재 성벽은 매몰된 상태다. 확인되는 성벽은 잔존 길이 118m이며 성벽의 너비는 2미터다.

송마리성은 지리적으로 서해에서 강화수로를 이용하여 김포 일대로 진출하거나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성곽으로 보인다. 축조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 김포1동의 '북성산성'

북성산성은 현 김포시내 중심지인 북변동, 사우동, 감정동, 풍무동 내에 있는 장릉산(해발 150m) 정상부에 축조된 석축성을 말한다. 축조는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장릉산은 남쪽에 장릉이 있어 유래된 것으로 장릉은 조선시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추존)과 부인 인현왕후(추존) 구씨의 능이다. 1632년 장릉으로 명명된 후 북성



장릉산(북성산) 전경

산이 장릉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 “김포 북성산에 있는 고성으로 남쪽 5리에 있다. 둘레 2,650척(795m), 높이 10척(2m)으로 지금은 폐(廢)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동지지』(1862년)에는 “고성으로 서쪽 1리에 있다. 성산이라 불리우며 둘레는 2,650척이다. 장릉이 국내(局內)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년)는 “군내 북변리 장릉에 있다. 북성산 고성지라고 한다. 둘레 약 400간으로 대부분 무너져 없어졌으나, 높이 2간, 길이 30간의 석벽(石壁)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산성 안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성곽의 축조 목적은 한강을 통해 서울 남서지방으로 진입하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과 한강에서 김포반도의 평야지대로 진출하려는 적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동-초당말 유적 추정 토루지, 한강신도시 개발로 사라졌다.

## 김포2동의 '장기동성'

장기동성은 김포시 장기동 초당말 산 160-12번지 일대를 가리킨다. 48번국도에서 석모리(양촌읍 방향)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고창초교가 위치하고 있는 고창마을이 나온다. 이곳에서 상고창 마을로 진입하면 초당말이 나온다. 청송심씨 집성촌이었으나 현재는 아파트단지(장기지구) 개발로 그 흔적이 사라졌다.



가현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

장기동성은 지난 2000년 토지공사의 장기지구 개발을 앞두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김포장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그 토성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 지역에 토성이 있었음을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욱 면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단지 개발에 밀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토루의 잔존 길이는 동서 90m이고, 남북 80m다. 높이는 현지표에서 1.5~2m 가량이며 너비는 기저부가 8.5m, 상부가 0.9~1m 내외다. 서편에 인접하여 '성뜰밭'이라는 자연마을의 지명이 있어 토성 존재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토루의 북동 사면 하단부에는 길이 2m, 높이 1m의 지석묘로 추정되는 덮개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장기동성은 평지에 축조된 토축성으로, 지리적으로 서해에서 교하면을 거쳐 한강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으로 진입하려는 적을 저지하고, 한강에서 곡창지대인 김포반도로 진입하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축조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 양촌읍의 '가현산성(歌絃山城)'

가현산(해발 215m)은 김포시 양촌읍과 지금은 인천시 금곡동을 나누고 있는 경계 지역에 있는 산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와 양촌읍 구래리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1995년 3월 김포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고 이제는 김포 땅이 아니다.

『대동지지』는 <김포> '산수' 편에 "서북 15리의 옛 태봉이 있는 가현산에 있다"

고 했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검단면 금곡리, 가현산에 있다. 둘레 약 170간의 낮은 토루가 있다. 구전에는 고려조의 축조로서 고려의 후사찰이라고 전해진다. 기와는 파편이 산재한다”고 했다.

『전국유적목록』에는 “주위 약 70간의 토루가 있다. 고려조 축조, 붕괴, 도로가 통과한다. 가현산과 사자봉 간”이라고 했으며, 1977년의 『문화유적총람』에는 간단히 “전부 붕괴되어 흔적이 없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 ‘갯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는 김포에 없다

강화를 가려면 김포시를 관통하는 48국도를 지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곶면 대명리에 초지대교가 건설되어 강화로 가는 방향이 두 곳으로 늘어났지만 초지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강화대교를 건너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김포반도를 둘러싼 철책선에 가로막혀 배를 탈 수는 없다.

현재의 강화대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1969년에 만들어진 ‘강화대교’라는 이름의 다른 다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강화대교가 만들어져 사용되지 않는다.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 위치한 갯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또한 이 옛날 강화대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강화를 건너기 위한 나루터가 있었다.

두 곳 가운데 하나는 1920년대까지 사용되던 나루터인데, 일명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다. 또 다른 하나는 1920년 이후 사용하던 나루터로서 강화군의 신정리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를 오가던 나루터다.

이 나루터는 강화군 갑곶리와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를 잇는 강화대교(1965년 7월 착공, 1969년 12월에 준공)가 생긴 이후 폐쇄된 다리로, 일명 구 강화대교라 불린다. 하지만 이 다리도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강화대교(1993년 8월 착공, 1997년 12월 준공)가 만들어져 사용되지 않는다.

1920년대까지 강화를 오가던 일명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나루터는 왜 김포 지명에 없는 강화도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이름으로 지칭된다. 하나는 강화군 갑곶리의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의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다. 하나의 이름으로 두 지역에 나루터가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같은 이름으로 김포 쪽 나루터는 1988년 3월 21일자로 ‘김포시 시도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화 쪽 나루터는 19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 시도기념물 제25호’<sup>1)</sup>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명치 8년(1875년) 12월에 일본의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육군 중장(陸軍中將) 개척장관(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부관(副官)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이 조선과 수호조약을 맺기 위하여 파견되었을 때에 찍은 갑곶(甲串) 김포구의 정경. 멀리 갑곶 둔대의 성벽이 뻗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문제는 김포 쪽 이름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에 대해 문제의 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강화 쪽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는 지명과 일치된 이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실제로 갑곶리라는 지역 명칭이 있으며, 이곳은 갑곶진(甲串鎭)

1)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문리 산297외 1필지.

이 설치되어 있고, 갑곶돈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김포지역의 나루터 이름을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로 명명하고 있는 것일까?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라는 나루터가 언급되어 있는 김포지역 관련 모든 문서(자료)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강화지역 갑곶리에 있는 나루터 이름을 왜 김포지역 나루터도 같은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박신의 묘(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소재)

## '갑곶나루 석축로' 누가 만들었나?

우선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자.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1444) 윤 7월 12일자 기사 '전 이조판서 박신(朴信)의 즐기'에

"...통진현 서쪽에 갑곶(甲串)이라는 나루가 있었는데, 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속을 수십 걸음 걸어야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고, 또 배에서 내려서도 물속을 수십 걸음 걸어야 언덕에 오를 수 있었다. 때문에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릴 때면 길 다니는 나그네들이 더욱 고통을 당했는데, 신(信)이 재산을 의연(義捐)하고 고을 사람들을 이끌어 양쪽 언덕에 돌을 모아 길을 만들었더니 길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공로를 힘입고 있다고 한다. 그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을 종지(從智)·종우(從愚)라고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처음에는 나루터 시설 없이 이용되었다가 1419년 이조판서이던 박신(朴信, 1362~1444년)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14년 동안 석축로 공사(1419~1432년)를 하여 약 500년간 사용했다고 전한다.<sup>2)</sup>

2) 석축로는 사력전총 석축 편암로로 되어 있으며 외곽은 잘 다듬은 육면체의 석재를 사용했고, 노면 석은 자연석을 25~30cm 규모로 쪼개서 깔았다. 김포 쪽의 석축로는 가로 12m, 길이 40m, 전면 길이 1.2m이고, 강화 쪽은 가로 35~50m, 길이는 35m이며 전면길이는 1.5m 규모로서 저조위 수심을 따라 축조한 환경사 선착장 석축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박신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자는 경부(敬夫), 호는 운봉(雲峰)이라 하며, 정몽주의 문인(文人)이었다. 1385년(우왕 11년) 문과에 급제, 사헌부(司憲府) 교정을 거쳐 예조와 이조의 정랑(正郎, 정5품 관직으로 중견 책임자임)을 거쳐 대사성(大司成,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당상관직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봉상시(奉常寺,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소경(少卿, 종4품 벼슬), 감문위대장군 겸 사헌중승(監門衛大將軍兼司憲中丞),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종3품 벼슬)를 거쳐 대사성이 되었다. 또 대사헌(大司憲, 사헌부의 장), 한성부윤(漢城府尹, 종2품으로 현 서울특별시장), 동북면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공조·호조·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나 선공감(繕工監, 토목·영선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의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13년 동안 통진현에 유배되었다가 1432년(세종 14년)에 풀려났다.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한재당(寒齋堂)<sup>3)</sup>을 지나 가좌동 마을을 지나쳐 동쪽으로 직진하면 하성면 가금리로 들어서게 되는데 마을 입구의 좌측 산비탈에 동쪽을 향해 묘역이 마련되어 있다.

## 김포에 '갑곶'이란 지명은 없다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의 이름에서 ‘갑곶’이라는 지명은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를 말한다. ‘갑곶’이란 지명은 고려 고종 때 몽고가 침입하자 왕이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을 때 이곳의 물이 얕고 강 건너편과의 거리도 짧아서 군사들이 갑옷을 벗어 쌓아놓고 건널 수 있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인조 임금이 건넜던 사실이 있고, 1637년(인조 15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이 임금으로 되기 전 이름)에게 항복하기를 재촉했던 곳이며,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丙寅洋

3) 한재당(寒齋堂)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사당(祠堂)이다. 1975년 9월 5일 경기도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문신 이목(李穆)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1848년에 건립된 구(舊)사당과 1974년에 건립한 신(新)사당이 있다. 구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 목조와가(木造瓦家)로 건평이 10평이다. 원래는 일주문(一柱門)과 담장이 둘러 있었으나 신사당이 건립되면서 일주문은 없어지고 담장만 남아 있다. 신사당은 건평 12평의 콘크리트 건물이며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1717년(숙종 43년)과 1722년(경종 2년)에 추증(追贈)한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홍살문, 재실(齋室)이 있고 솥을삼문 주위를 돌담이 둘러싸고 있다. 이목은 영안도(永安道) 평사(評事)를 지냈으며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모함으로 사형되었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어 공주(公州) 충현서원(忠賢書院)에 배향되었다.

擾) 때는 프랑스 전함이 이곳에 상륙하여 강화도를 점령했고, 1876년(고종 13년) 일본의 구로다 기요타카와 이노우에 가오루가 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곳에 상륙했던 곳으로 역사상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렇듯 강화에 있는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를 왜 김포지역에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것일까? 이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통진현〉‘산천(山川)’편에 “갑곶진(甲串津): 현 서쪽 9리 지점에 있다. 강화부로 건너가는 나루다”와 ‘역원(譯院)’편에 “갑곶원(甲串院): 갑곶 언덕에 있다”로 기술되어 있으며 『대동지지』〈성지(城地)〉편에 “문수산성: 문수산성의 서쪽 성인데, 갑곶진(甲串津)에 닿았다, 자세한 것은 강화에 보임”과 〈진도(鎭渡)〉편에 “갑곶진(甲串鎭): 서북쪽으로 10리인데 강화에 보임, 도포진(島浦津)”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보면 어느 곳에서도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즉 갑곶나루가 현재의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나루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동지지』의 〈성지〉편에 문수산성을 설명하는 부분, 즉 “문수산성의 서쪽 성인데 갑곶진에 닿았다”라는 표현이 갑곶나루가 김포지역에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뒷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왜 김포지역에 있는 나루터에 강화의 나루터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하나는 실록에 있는 내용대로 “통진현의 서쪽에 갑곶이라는 나루가 있었는데, 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속을 수십 걸음 걸어가야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위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진현의 서쪽에 갑곶이라는 나루가 있었는데”라는 문장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즉, 통진지역에서 서쪽인 염하수로에 석축으로 된 나루터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곳을 갑곶나루터로 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 기술된 “문수산의 서쪽 성인데 갑곶진에 닿았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문수산성 서쪽 끝자락에 석축으로 된 나루터가 있으므로 또한 갑곶나루터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밝힌 대로 이조판서였던 박신이라는 사람이 석축로 공사를 14년 만에 완공했다. 바로 이 석축로 공사는 김포 성동리에 있는 석축로만을 공사한 것이 아니라 강화 갑곶리 석축로, 즉 두 곳에다가 석축 공사를 14년 동안 했다는 말이다. 김포지역에 있는 것은 강화의 갑곶나루터를 가기 위한 김포지역의 나루터인 셈이다. 따라서 김포지역의, 일명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로 부르고 있는, 옛 나루터는 김포 고유의 지명을 딴 나루터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루터가 있는 장소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역이므로 이곳을 '성동리 나루터', 혹은 박신이 사비를 들여 만들었으니 그를 기념하여 '박신 나루터' 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 김포는 어느 성씨(姓氏)들이 살았을까?

### 우리는 언제부터 성씨를 사용했을까?

성씨는 한 혈통을 잇는 족속을 말하는 개념으로, 특정 인물을 시조(始祖)로 하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단계 혈연집단을 가리킨다. 자기 혈족과 다른 혈족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성(姓)은 원시사회부터 발생한 인류문화의 보편적 현상이다.

성씨(姓氏)는 혈족(血族)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 앞에 붙이는 표지(標識)로, 성(姓)은 혈족(血族)을 나타내며, 씨(氏)는 그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성(姓)과 씨(姓)의 구분이 없어져 성씨(姓氏)가 성(姓)을 높여서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성씨’는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거나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칭호로,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계혈연집단(單系血緣集團)의 한 명칭이다.

성씨는 복잡하고도 지속적인 분화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며, 같은 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본’은 본관(本貫), 본향(本鄉), 관향(貫鄉), 관적(貫籍), 선향(先鄉) 등으로도 부르며, 시조의 출생지나 정착지 등으로 본을 삼았다.

한국의 성씨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한자식이지만 중국 성씨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독자성과 결합되었으므로 한국 고유의 특성이 있다. 한국의 성은 다른 나라와 같이 가족 전체를 표시하는 공동 호칭이 아니

라 부계혈통을 본위로 한 호칭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본관(本貫)·이름을 갖고 있는데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향렬(行列)을 통하여 가문의 대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향렬은 오행 원리(水·목·화·토·금)에 따라 한자 이름의 부수(部數)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은 본관과 결합함으로써만 자기의 혈족을 표시할 수 있다. 본관은 하나의 성이 속하는 시조의 발선지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혈족 계통을 표시함에 있어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성만으로는 혈족을 나타낼 수 없으며, 안동 김씨, 연안이씨, 문화유씨 등 본과 성을 함께 불러야만 비로소 동족을 나타낼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기 때문에 고(高)씨라고 했다 한다. 백제는 ‘부여(扶餘)’ 씨, ‘여(餘)’ 씨 등을 썼으며, 신라는 박(朴)씨, 석(昔)씨, 김(金)씨 3성의 전설이 전해오며, 서기 32년(유리왕 9년)에 육부(六部)의 촌장에게 각각 이(李)씨, 정(鄭)씨, 손(孫)씨, 최(崔)씨, 배(裨)씨, 설(薛)씨의 성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삼국시대에는 성을 쓴 사람보다 성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는데,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해 전국의 군·현 개편 작업과 함께 성(性)을 하사하여 귀족 관료들은 대부분이 성을 쓰게 되었다.

조선 초기 성은 양민에게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 후기 주요 성의 본관 수가 김씨 498개, 이씨 451개, 최씨 325개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sup>1)</sup>이 시행되면서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제781조), 성의

1) 민적법(民籍法)이란 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실시한 호적법. 전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에 의하면 분호(分戶)에 의한 분적(分籍), 호주의 교체·출생·사망에 의한 개적(改籍)은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기타 신분상의 변동은 연 1회 개적하므로 1년간 호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제거·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생·사망·호주변경·혼인·이혼·양자·파양·분가·일가창립·입가(入家)·폐가(廢家)·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부적(附籍)·이거(移去)·개명 등은 그 사실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이를 해태(懈怠)한 사람에게는 50대 이하의 태형(苔刑) 또는 5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위(詐僞) 신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태형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이 법으로 모든 신분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공시·증명했는데, 현행법의 호적법에 해당한다.

표기가 잘못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람,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예를 들어, 방송인으로 TV이 가끔 등장하는 로버트 할리(Robert Harley)의 경우 할리에서 ‘하’ 씨를 따왔고, 출신인 부산을 연고로 본관을 ‘영도’로 하여 ‘영도하씨’가 되었고, 독일 출신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내고 있는 이참(李參, 독일 이름은 베른하르트 크반트)의 경우는 ‘독일이씨’라고 칭하고 있다.

### 옛 김포에는 어떤 성들이 살았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50개의 성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흔한 다섯 개의 성씨는 김(金, 21.6%), 이(李, 14.8%), 박(朴, 8.5%), 최(崔, 4.7%), 정(鄭, 4.4%)으로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는 등 소수 성씨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나타난 가장 많은 본관을 보면 김해김씨(金海金氏) 4,124,934명(9.0%), 밀양박씨(密陽朴氏) 3,031,478명(6.6%), 전주이씨(全州李氏) 2,609,890명(5.7%), 경주김씨(慶州金氏) 1,736,798명(3.8%), 경주이씨(慶州李氏) 1,424,866명(3.1%), 경주최씨(慶州崔氏) 976,820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10명 중 한 명은 김해김씨인 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적 특징을 보면 과거 신라 지역인 경상도 쪽에 편중되어 있음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씨의 시작이 신라시대에서 비롯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김포지역에는 어떤 성씨들이 살아왔을까? 먼저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김포지역의 성씨들의 현황을 살펴보자.

	김포		통진		수안		동성현
	토성 (土姓)	정(鄭) 장(蔣) 금(琴)	토성 (土姓)	석(石) 강(康)	현성 (縣姓)	윤(尹) 이(李) 안(安)	
세종실록 지리지 (1454)	망성 (亡姓)	안(安)	망성 (亡姓)	양(梁)	내성 (來姓)	오(吳)	
	촌성 (村姓)	공(公)	망차성 (亡次姓)	길(吉) 종(宗)	망성 (亡姓)	진(陳)	
			망래성 (亡來姓)	이(李)			노(盧) 우(吳) 부(附) 이(異)
			망촌성 (亡村姓)	구(仇)	내성 (來姓)	강(康) 백(白)	

	김포		통진		수안		동성현
동국여지승람 (1530)	토성 (土姓)	정(鄭), 옹 (翁, 일운 장蔣), 금 (琴, 사성 (賜姓)임), 공(公, 촌성 (村姓)임)	석(席, '石' 이 라고도 함), 강(康), 양 (梁), 길 (吉), 종 (宗), 위 (位, 일운 구성(仇姓))				
			내성 이(李)	내성	노(盧), 우(祐), 부 (附), 이(異), 강(康), 백(白)	윤(尹), 이(李), 안 (安), 진(陳), 오(吳)	

『세종실록지리지』 <김포현>편을 보면,  
 “...토성(土姓)은 셋인데 정(鄭)·장(蔣)·금(琴)이요, 망성(亡姓)은 하나인데 안(安)이  
 며, 촌성(村姓)은 하나인데 공(公)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성은 쉽게 말해서 ‘토박이 성’을 뜻한다. 즉, 고려 초기 성씨  
 를 하사할 때 그곳에 도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유력한 씨족(氏族) 또는 그  
 곳을 본관으로 하면서 지방관이를 구성했던 성씨 집단을 가리키는데, 정씨와 장  
 씨 그리고 금씨 세 개의 토성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망성은 고려시대부  
 터 전해오던 옛 기록에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인 15  
 세기 초에는 이미 없어진 토성을 지칭하는데 안씨가 그렇다는 것이다. 촌성은 마  
 을을 본관으로 하는 성을 말하는데 공씨가 촌성이라는 말이다.

이 책의 <통진현>편을 보면,  
 “...본현(本縣)의 토성은 둘인데 석(石)·강(康)이요, 망성은 하나인데 양(梁)이며, 없  
 어진 망차성(亡次姓)이 둘인데 길(吉)·종(宗)이요, 망래성(亡來姓)이 하나인데 이(李)  
 이며, 없어진 망촌성(亡村姓)은 하나인데 구(仇)다. 수안현(守安縣)의 성은 셋인데 윤  
 (尹)·이(李)·안(安)이요,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내성(來姓)은 하나인데 오(吳)이며,  
 망성은 하나인데 진(陳)이다. 동성현의 성은 넷인데 노(盧)·우(祐)·부(附)·이(異)요,  
 내성은 둘인데 강(康)·백(白)이다...”라고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김포> ‘성씨’ 편을 보면

“본현 정(鄭), 웅(翁, 일운 장蔣), 금(琴, 임금이 하사한 성임), 공(公, 촌성임)”과 〈통진〉 ‘성씨’ 편에는 “본현 석(席, ‘石’이라고도 함), 강(康), 양(梁), 길(吉), 종(宗), 위(位, 일운 구성(仇姓), 촌성임), 이(李, 내성임)”, “동성(童城) 노(盧), 우(祐), 부(附), 이(異), 강(康), 백(白), (모두 내성임)”, “수안(守安) 윤(尹), 이(李), 안(安), 진(陳), 오(吳)(모두 내성임)”가 기록되어 있다.

1871년에 편찬된 『김포읍지』 ‘성씨’ 편은 “금씨(琴氏), 공씨(公氏), 장씨(蔣氏), 정씨(鄭氏)”를, 『통진읍지』에는 “동성최씨(童城, 崔氏), 수안이씨(守安李氏), 분진강씨(汾津, 康氏), 분진이씨(汾津, 李氏), 수안윤씨(守安尹氏)”가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 1910년 『금릉군지』 ‘성명’ 편에는

“금(琴)씨, 공(公)씨, 정(鄭)씨가 있었다. 네 성씨 가운데 금씨와 장씨는 현재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살고 있는 성족은 연안이씨, 남원양씨, 청송심씨 세 성씨가 성하게 번창하고, 남원윤씨, 평산신씨, 풍산김씨, 남양홍씨, 배천조씨, 하동정씨, 전주이씨 등이 많이 살고 있다. 각 성씨들의 예전 세거지(世居地)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포지역에서 살아왔던 성씨 종류는 강씨를 비롯하여 23개의 성씨가 나타난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191여 개의 성씨가 김포지역에 살고 있다.

## ‘김포’를 본관으로 한 성씨와 인물들<sup>2)</sup>

신라 말 고려 초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씨 가운데 김포지역을 본관으로 한 성씨는 김포정씨, 김포장씨, 김포금씨, 통진석씨, 통진강씨, 수안윤씨, 수안이씨, 수안안씨, 동성노씨, 동성우씨, 동성부씨, 동성이씨(童城異氏)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통진석씨〉, 〈통진강씨〉, 〈수안안씨〉, 〈동성우씨〉, 〈동성부씨〉, 〈김포장씨〉는 현재 사라진 성씨로 그 자세한 연혁을 알 수 없다. 다만 〈김포장씨〉의 경우 우리나라 장씨(蔣氏)의 본관은 김포, 아산, 청송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김포장씨’는 없어지고 현재는 ‘아산장씨’로 단일화되어 있다.

2) 『김포시사』 김포시사편찬위원회. 2011. 141-145쪽 요약

〈김포정씨〉 김포정씨의 시조는 정응문(鄭應文)(생몰년 미상)이다. 김포 출신의 호족으로 고려 인종 때 사신으로 금나라에 갔다 왔으며, 남계(南界)에 해적이 일어나자 어사중승으로 선무사가 되어 현지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후손들 역시 김포에 세거하며 관향을 김포로 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고려 때 정극영 등이 있다.

정극영(鄭克永)(1067~1127)은 고려시대 학자로 최유청(崔惟淸)의 매부이며, 한안인(韓安仁)의 외종제이다. 문과에 급제한 뒤 사록(봉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에 보임되었는데, 바른 정치를 하기로 소문이 났다. 사록으로는 정항(鄭沆), 한충(韓沖)과 더불어 이정일한(二鄭一韓)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1118년(예종 13) 이지미(李之美), 평장사 최홍사(崔弘嗣)와 함께 송나라에 갔다. 그의 문사(文詞)는 오묘하여 저술된 책은 중국인들도 칭송할 정도였다. 권적(權適)(1094~1147) 등과 함께 송나라 황제가 친히 시험하던 제과에 합격하고 직접 써서 내린 조서를 하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1119년(예종 14)이듬해 국자좌주 좌간 의대부가 되고, 이듬해 경연(經筵)을 위한 청연각에서 『예기(禮記)』 월령편을 강의하였다. 1120년(예종 15) 증서사인으로, 예종이 풍악을 좋아한 것을 풍자한 국학생 고효충의 「감이녀(感二女)」라는 시를 왕에게 아뢰었다.

1122년(예종 17) 한림학사가 되었다. 1123년(인종 1) 인종이 즉위하자 보문각학사 박승중(朴昇中), 보문각대제 김부식(金富軾)(1075~1151)과 더불어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수관이 되었다. 같은 해 왕의 외조부인 이자겸(李資謙)(?~1126)이 반열(班列)에 따른 예의와 대우를 논할 때 보문각학사로서, 이자겸이 왕에게 축하의 뜻을 담은 글을 올릴 때 ‘신(臣)’이라 일컫지 않게 하고, 군신의 연회가 있을 때도 백관과 달리 곧장 막차(幕次, 의식이나 거동이 있을 때 임시로 장막을 쳐서 왕이나 고관들이 잠깐 머물게 하던 곳)에 나아가 절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부식이 반대하였다. 이자겸이 신진 관료를 대표하던 한안인을 역모하였다는 이유로 죽일 때, 이와 관련된 자로 정극영은 유배되었다. 이자겸이 몰락한 뒤 소환되어 1127년(인종 5) 동경 유수사가 되고, 이어 판위위시사 한림학사 지제고에 이르렀다.

〈김포금씨〉 원래 김포금씨는 경상북도 봉화에서 분파되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화금씨(奉化琴氏)의 시조인 금용식(琴容式)은 고려 건국의 공로로 삼한공신 태사를 지낸 인물인데, 그의 7세손인 금의가 김포를 본관으로 받으면서 김포 금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금의(琴儀, 1153~1230)는 고려 명종과 고종 때의 명신(名臣)이었으며, 문장이 뛰어

나 『한림별곡(翰林別曲)』에는 ‘금학사(琴學士)’라는 별칭으로 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글짓기를 잘 하였으나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여 청도에 감무로 나갔다. 이때에도 성품이 강직하여 굽히지 않으니 백성들이 ‘철태수(鐵太守)’라고 불렀다.

1184년(명종14)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고 내시(內侍)에 보직되었다. 최충헌(崔忠獻, 1149~1219)이 문사를 구할 때李宗규(李宗揆)의 추천으로 발탁되었고, 그 후 신임을 얻어 화요직을 맡았다. 신종 때에 상서우승 우간의대부 태자찬선대부가 되었다. 한때 장작감(고려 시대에 토목공사와 궁궐 및 관청의 수리를 담당한 관청)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나, 희종 때 지주사·지이부사 등을 지냈다.

1212년(강종) 왕의 즉위에 대한 책명을 전한 책명시를 접대하였다는 공을 세우고 첨서추밀원사 좌산기상시 한림학사승지에 올랐다.

1215년(고종2) 정당문학 수국사, 수태위 중서시랑평장사가 되고, 1220년(고종7) 벽상공신이 되었으며, 수태보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판이부사로 치사하였다.

여러 번 지공거(고려 때 과거를 관장하던 주 시험관)가 되어 명사를 많이 배출하니, 세상에서 이를 일컬어 ‘금학사옥순문생(琴學士玉筍門生)’이라 하였다.

〈수안윤씨〉 현재 사라진 성씨로 그 자세한 연혁을 알 수 없다. 다만 과거 급제자로 윤징고(尹徵古)(?~1021)가 등장하고 있어 수안윤씨가 대단한 가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윤징고의 초명은 원재(元載)로 원래 수안현(지금의 경기도 부천) 사람이다. 고려 성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목종 때 감찰어사가 되었다. 현종 때에는 시어사, 내사사인, 우산기상시 검교사도 상주국을 지냈다. 1021년(현종12)에 추충좌리공신에 봉해졌다.

성품은 엄격하면서도 침착하였고, 해서를 잘 썼다. 그는 공평한 결정을 내리고

〈김포에 가장 많은 성씨 본관 별 호수 순위표〉(1977년)

순위	성씨	본관수	성씨 호수총계	최대본관		최다면	호수총계
				본관면	호수총계		
1	이씨	98	4,476	전주	2,315	양촌면	490
				연안	374	김포면	115
2	김씨	98	3,353	김해	912	월곶면	227
				경주	738	하성면	202
3	조씨	19	730	백천	343	고촌면	176
				풍양	138	월곶면	93
4	최씨	30	700	해주	238	양촌면	93
				경주	137	하성면	27

출처: 『김포군지』(1977)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1013년(현종4) 황주량(黃周亮), 최충(崔冲) 등과 함께 고려 최초의 실록인 『칠대실록(七代實錄)』의 편수관으로 임명된 기록이 남아 있다.

〈수안이씨〉 부평이씨로 추정되는 성씨이다. 부평이씨의 시조는 이희목(李希穆)으로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통합에 공헌하여 삼중대광 벽상공신에 올랐다. 증손인 이정공(李靖恭)이 문과에 급제하여 1062년(문종16) 시예부외랑, 지남원부사, 시어사 한림학사, 예부상서, 병부상서, 참지정사, 수국사를 거쳤다. 1086년(선종3)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로 치사하였다. 부평백(富平伯)에 봉해지고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를 받자, 후손들이 본관을 부평으로 삼고 세계(世系)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정공의 아들 삼형제는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맏아들 이숙(李壽)은 참지정

〈성씨 본관 별 호수 순위표〉(1977년)

순위	성씨	호수	최다음면	순위	성씨	호수	최다음면
1	전주이씨	2,315	양촌면	9	평산신씨	433	양촌면
2	김해김씨	912	월곶면	10	연안이씨	374	김포면
3	경주김씨	738	하성면	11	파평윤씨	369	계양면
4	밀양박씨	707	월곶면	12	백천조씨	343	고촌면
5	여흥민씨	658	하성면	13	진주강씨	338	양촌면
6	안동권씨	570	하성면	14	부안임씨	326	월곶면
7	청주한씨	540	대곶면	15	남양홍씨	315	양촌면
8	청송심씨	446	대곶면				

출처: 『김포군지』(1977)

〈성씨 본관 별 호수 순위표〉(1993년)

순위	성씨	호수	최다음면	순위	성씨	호수	최다음면
1	전주이씨	3,104	김포읍	11	해주최씨	389	검단면
2	김해김씨	2,879	김포읍	12	광산김씨	379	김포읍
3	밀양박씨	1,592	김포읍	13	해주오씨	361	김포읍
4	경주김씨	1,372	김포읍	14	남양홍씨	356	김포읍
5	청주한씨	536	대곶면	15	여흥민씨	334	하성면
6	진주강씨	524	김포읍	16	연안이씨	318	김포읍
7	평산신씨	502	김포읍	17	경주최씨	316	김포읍
8	안동권씨	482	김포읍	18	인동장씨	313	김포읍
9	파평윤씨	454	김포읍	19	안동김씨	313	김포읍
10	경주이씨	453	김포읍	20	청송심씨	307	김포읍

출처: 『김포군지』(1993)

사를 지냈고, 차남 이위(李瑋) 선종 때 수태보,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에 오르고 계양공에 봉해졌다. 셋째 아들인 이순(李珣)은 양광도 도순문사로 흥건적을 물리쳐 일등공신에 올랐으며 뒤에 삼사좌사를 지냈다.

〈동성노씨〉 동성노씨(童城盧氏)의 시조는 노정(盧挺)이다. 고려 시대에 소경(少卿)을 지냈다고 알려져 있지만 관련 문헌이 없으므로 세계나 본관의 유래는 알 수 없다.

〈동성이씨〉 동성이씨(童城異氏)의 세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래 토착 성씨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동성 이씨의 인물로 이응보에 대한 내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응보(異膺甫)(생몰년 미상)는 고려 현종 때의 무신으로, 1016년(현종7) 섭사현대부가 되었고, 1019년(현종10) 좌우복야에 올랐다. 무신으로서는 드물게 재상에 오른 것이다. 1029년(현종20)에는 왕가도(王可道)·황주량 등과 개경의 나성(羅城)을 축조하였다. 1031년(덕종 즉위) 수사도, 다음해에 사도가 되었다. 1036년(정종2) 왕은 제(制)를 내려 “태위상서좌복야 이응보는 해를 앞당겨 치사하였으나 공이 사직(社稷, 조정)에 있는지라 내 감히 잊지 못하니, 그 지손 중에 관직이 없는 자에게

〈2000년도 김포시 성씨별 가구 및 인구〉(1,000명 이상)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명)	비율(%)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명)
1	김(金)	8,761	29,968	20.2	15	유(柳)	655	2,282
2	이(李)	7,321	24,715	16.3	16	황(黃)	637	2,213
3	박(朴)	3,042	10,778	7.3	17	홍(洪)	607	2,009
4	최(崔)	1,920	6,526	4.4	18	안(安)	574	2,007
5	정(鄭)	1,600	5,548	3.7	19	송(宋)	514	1,826
6	조(趙)	1,242	4,340		20	서(徐)	507	1,842
7	한(韓)	917	3,220		21	심(沈)	479	1,603
8	윤(尹)	867	3,054		22	전(全)	436	1,498
9	장(張)	835	2,897		23	민(閔)	430	1,405
10	임(林)	824	2,740		24	고(高)	409	1,435
11	강(姜)	793	2,749		25	유(劉)	404	1,396
12	신(申)	779	2,633		26	문(文)	390	1,305
13	오(吳)	717	2,396		27	조(曹)	340	1,112
14	권(權)	696	2,388		28	양(梁)	327	1,225
	계	총가구수 43,275/총인구수 148,576						

출처: '2000년 행정구역(구시군) 성씨·본관별 가구 및 인구' 통계청 조사관리국

도 초직(初職)을 내주라”고 하였다. 이는 이승보가 거란의 침략이 있을 후 나성을 축조한 일 등에 공헌한 데 따른 것이다. 1047년(문종) 상장군으로 개부의동삼사에 올랐다.

### 김포 거주 성씨는 총 216개

1977년 『김포군지』 ‘성씨’ 편에 재미 있는 내용이 있다. 1911년 『금릉군지(金陵郡誌)』에는 “금(琴)씨, 공(公)씨, 장(莊)씨, 정(鄭)씨가 있는데 금씨와 장씨는 살고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66년이 지난 1977년도에 조사한 『김포군지』의 내용에는 금씨는 양촌면에 1가구, 하성면에 5가구, 월곶면에 5가구, 총 11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1871년에는 살고 있다는 공씨와 장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연안이씨, 남원양씨, 청송심씨 중 연안이씨가 이씨 중 2위, 남원양씨가 25위, 청송심씨가 9위로 나타났다. 전주이씨, 김해김씨, 밀양박씨가 1·2·3위로 상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1977년 당시 김포군 전체 성씨는 127성, 807본, 19,75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씨별 호수 순위(150가구 이상과 최소 5가구 이하)로 살펴보면 이(李)씨는 본관이 98개로 4,476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주이씨가 2,315가구인데 양촌면 거주 490가구가 거주하며, 연안이씨가 374가구인데 김포읍에 115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가 김씨로 98개의 본관에 3,353가구가 거주하며, 김해김씨가 912가구인데 월곶면에 227가구와 경주김씨가 738가구인데 하성면에 202가구가 살고 있다. 세 번째는 조(趙)씨로 19개의 본관과 730가구가 거주하는데, 이 가운데 백천조씨가 343가구인데 고촌면

### 김포지역 본관별 가구수

순위	성씨	가구수	최다읍면
1	전주이씨	3,104	김포읍
2	김해김씨	2,879	김포읍
3	밀양박씨	1,592	김포읍
4	경주김씨	1,372	김포읍
5	청주한씨	536	대곶면
6	진주강씨	524	김포읍
7	평산신씨	502	김포읍
8	안동권씨	482	김포읍
9	파평윤씨	454	김포읍
10	경주이씨	453	김포읍

출처: 『김포군지』(1993)

### 전국 성씨 본관별 가구수

순위	본관	가구수	인구수
1	김해김씨 (金海金氏)	1,295,080	4,124,934
2	밀양박씨 (密陽朴氏)	946,307	3,031,478
3	전주이씨 (全州李氏)	808,511	2,609,890
4	경주김씨 (慶州金氏)	542,018	1,736,798
5	경주이씨 (慶州李氏)	446,598	1,424,866
6	경주최씨 (慶州崔氏)	304,722	976,820
7	진주강씨 (晉州姜氏)	300,724	966,710
8	광산김씨 (光山金氏)	258,936	837,008
9	파평윤씨 (坡平尹氏)	221,477	713,947
10	청주한씨 (淸州韓氏)	199,642	642,992

출처: 통계청(2000)

에 176가구가 거주하고, 풍양조씨가 138가구인데 월곶면에 93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조사가 행해진 지 16년 후인 1993년에 발행된 『김포군지』의 김포군 성씨 분포 현황의 ‘성씨 본관별 호수 순위표’를 보면 전주이씨가 3,104가구로 1977년도보다 789가구가 증가했고, 가장 많이 거주한 양촌면(490호수)에서 김포읍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김포읍으로 많이 이주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해김씨가 2,879가구로 지난 1977년도 파악된 3,353가구보다 474가구가 적게 나타났으며, 1977년 월곶면이 최다 거주(912) 지역에서 김포읍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순위로 김포에 거주했던 조씨는 본관이 19개에서 24개로 증가했고, 거주가구 730가구에서 871가구로 역시 증가했다.

5가구 이하의 성씨를 살펴보면 1977년도에 총 42개 성씨에서 1993년도에는 총 46개로 4개 성씨가 늘어났다. 2000년 조사 때는 87개 성씨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도 통계청이 인구총조사 ‘성씨 본관’ 조사에 따르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성씨는 총 216개로 조사됐다. 성씨 본관은 총 2,510개로 파악되었다.

거주자 중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성씨별로는 김(金)씨 29,968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李)씨 24,715명, 박(朴)씨 10,778명, 최(崔)씨 6,526명, 정(鄭)씨 5,548명, 조(趙)씨 4,340명, 한(韓)씨 3,220명, 윤(尹)씨 3,054명, 장(張)씨 2,897명, 강(姜)씨 2,749명, 임(林)씨 2,740명, 신(申)씨 2,633명, 오(吳)씨 2,396명, 권(權)씨 2,388명, 유(柳)씨 2,282명, 황(黃)씨 2,213명, 홍(洪)씨 2,009명, 안(安)씨 2,007명, 서(徐)씨 1,842명, 송(宋)씨 1,826명, 심(沈)씨 1,603명, 전(全)씨 1,498명, 고(高)씨 1,435명, 민(閔)씨 1,405명, 유(劉)씨 1,396명, 문(文)씨 1,305명, 양(梁)씨 1,225명, 조(曹)씨 1,112명으로 총 28개의 성씨로 조사됐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성씨 비중인 김(金, 21.6%), 이(李, 14.8%), 박(朴, 8.5%), 최(崔, 4.7%), 정(鄭, 4.4%)과 순서는 똑같지만, 비율 측면에서는 전체 인구에 대비해보면 김포지역에는 이씨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씨 본관별로는 전주이씨가 11,443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김해김씨가 10,994명, 밀양박씨가 8,162명, 경주김씨가 5,790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인 통계는 김해김씨(金海金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전주이씨(全州李氏), 경주김씨(慶州金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경주최씨(慶州崔氏) 순인데, 김포

지역에는 전국 세 번째인 전주이씨가 제일 많고, 김해김씨, 밀양박씨 등의 순서는 비슷하다. 아마도 조선시대에 상대적으로 풍요한 김포지역에 전주이씨가 많이 거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단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성씨도 18개나 조사됐는데, 개(介), 내(奈), 담(譚), 빈(彬), 사공(司空), 창(倉), 편(扁), 견(甄), 대(大), 빙(憑), 섭(葉), 소봉(小峰), 자(慈), 창(昌), 판(判), 평(平), 풍(馮), 호(鎬), 화(化)이다.

한편 2003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성씨 및 본관 집계 결과>를 보면, 200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성씨는 모두 286개이며(김포지역은 216개), 본관은 4,179개(김포지역은 2,510개)이다. 따라서 김포지역에는 전국 286개의 성씨 중 70개 성씨가 살지 않고 있다. 또한 본관은 전국의 4,179개 중에서 2,510개로 1,669개 본관 성씨가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지역의 성씨 본관을 살펴보면, 청주한씨, 평산신씨, 안동권씨 등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김포지역에 조선시대의 세력가 집안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반증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김포에는 우리나라 성씨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동시에, 조선시대에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유력한 집안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